

행정간행물
25090-33246-44-96003

공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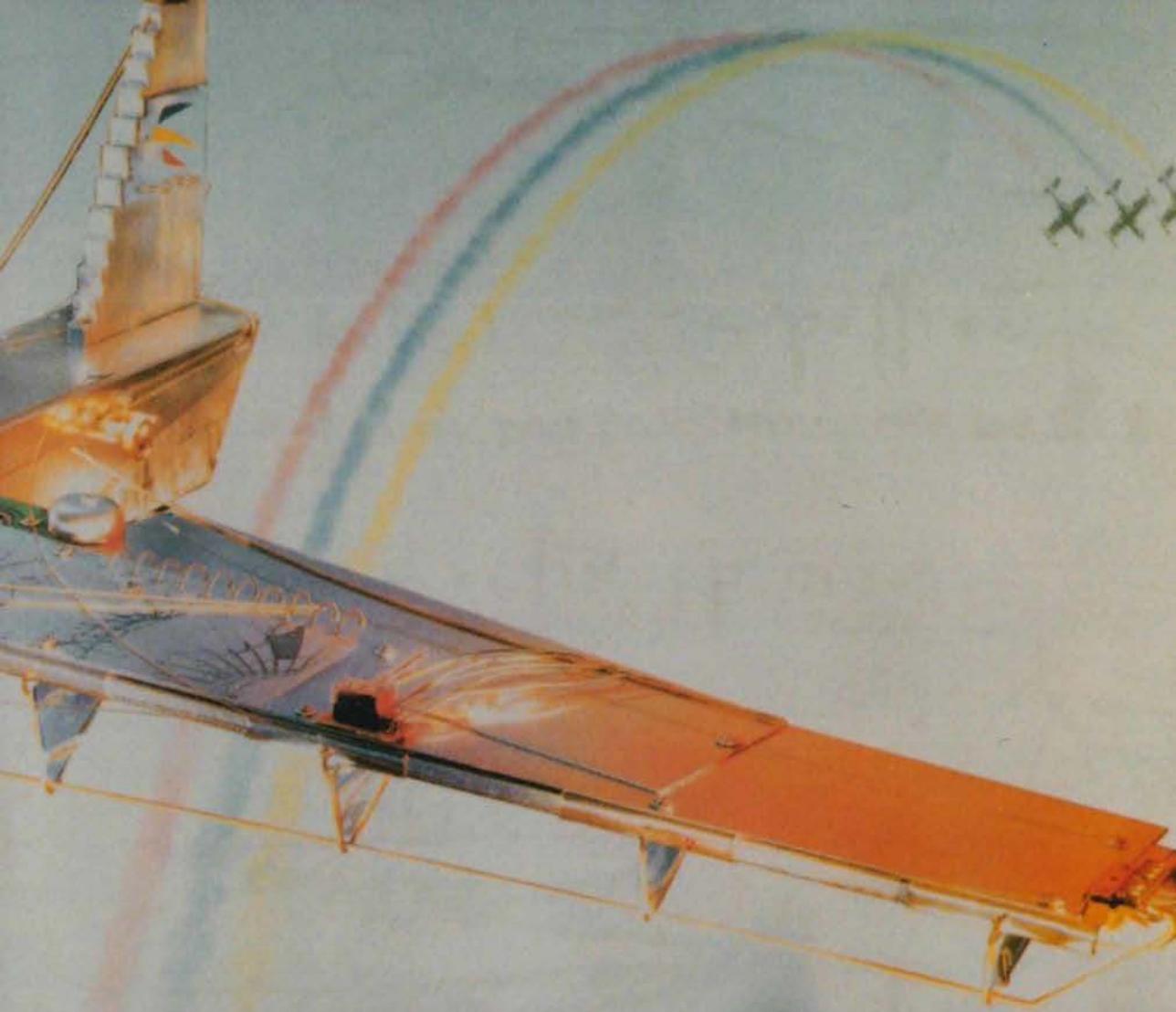
AIR FORCE QUARTERLY
1996년 여름호(통권 제235호)





서공 에어쇼

1996년 10월 21일(월) - 27일(일) / 서울공항



국
공
정
업
사
업
공
회

대한민국

한국항공우주산업지



재)

글 차례

- 권 두 화 보 _____ 4
 - 권 두 언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한 공군 _____ 10
/정훈공보실장 대령 서홍교
 - 호 국 시 선 조 국/시인 김운호 _____ 12
 - 보 라 매 칼 럽 선배 전우들의 값진 희생을 되새겨 보며/대령 김우태 _____ 14
 - 기 획 I 한국전쟁의 증인과 그 교훈
내 젊음을 비행기와 함께 하며/예비역 대령 최원문 _____ 16
한국전쟁과 B-26 비행단 전사/4급 한상진 _____ 20
한국전쟁의 역사적 재조명과 교훈
/한국시사문제 연구소장 이선호 _____ 30
 - 기 획 II 6월을 맞는 우리의 생각
아직 끝나지 않은 6월의 비극/중령 나시중 _____ 35
6월의 문턱에서/중위 박희현 _____ 38
만단개유/준위 전호명 _____ 40
서해를 바라보며/병장 신경주 _____ 43
6월이면 생각나는 사람들/5급 이희호 _____ 45
 - 공 군 논 단 공군 무기체계 획득 관리 규정의 신규제정과 그 의의
/대령 유영홍 _____ 48
세계일류 정예공군을 건설하자/중령 박충제 _____ 57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전자전/중령 전병욱 _____ 65
21세기를 향한 방공포병 발전방향/소령 이주범 _____ 74
-

글 차례

- 화 보 ————— 81
- 시 사 안 보 최근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실태/공군기무부대자료제공 — 89
예비역 고급장교들의 한반도 주변안보에 대한 인식형태연구
/교수 목진휴 — 94
북한의 정전협정 파기공세와 우리의 대응
/정치학 박사 김강녕 — 103
- 생활 정보 여름철 건강관리에 대하여/중령 임판식 ————— 108
'96년도 하계기상 전망/중령 신기운 ————— 113
- 만 화 날아라 철매/고석현 ————— 119
- 우리 부 대 동아리소개 작은 출발, 힘찬 도약/병장 박병배 ————— 127
명랑한 병영, 우리 손에 달렸다/병장 이동규 ————— 129
해동검도를 아시나요?/병장 천현석 ————— 131
- 공 군 문 단 적병이 물러가고, 질병이 나으며.../소령 조규진 ————— 134
우정의 무대 제작 지원기/중위 홍승진 ————— 136
코카콜라를 마신다?!/중위 이준복 ————— 139
판문점을 다녀와서/상사 김주광 ————— 142
꿈나무 메추리/상사 최영만 ————— 145
— 시 — 군인일기-행군/하사 이재천 ————— 147
우리나라 탐에 대한 소고/상병 유동훈 ————— 148
- 글을 기다립니다.

참·모·총·장·동·정



▲ 공군본부를 방문한 미 태평양사령관 로버(John G. Lorber) 공군대장 일행을 접견하고, 상호협조와 안보협력 증진방안 등 한반도 안보정세를 포함한 한국과 주한 미공군간의 공동 관심사에 관해 폭넓고 진지한 의견을 교환했다. (4.12)



▲ 각급 지휘관 및 공본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 지휘관 회의를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최근 주변국 안보정세와 작전환경을 분석·평가한 후 공군의 대비태세 확립 및 참모총장 지휘방침을 하달했다. (4.30)

참·모·총·장·동·정



▲ 공군본부를 방문한 로널드 포글맨(Ronald. Fogleman) 미 공군참모총장을 접견하고, 두나라 공군의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면서, 양국 공군간 상호군사협력과 우호증진방안을 협의했다. (5.10)



▲ 역대 공군참모총장 공군본부 초청(5.16)
 앞줄 왼쪽부터 金成龍, 朴元錫, 張盛煥, 金昌圭, 李光學(현총장), 張志良, 金斗萬 전총장
 뒷줄 왼쪽부터 鄭用厚, 金仁基, 尹子重, 李喜根, 徐東烈, 韓周奭 전총장

제18회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대회



(대회 개막을 알리는 공군참모총장의 축하 비행)

-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하늘에 대한 무한한 꿈을 심어주고 국민의 항공사상 고취와 과학기술 진흥에 기여하게 될 제18회 공군 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본선 대회가 이광학 공군참모총장, 윤일균 대한항공협회장, 대한항공, 대우중공업, 삼성항공 등 국내 항공관계자 및 1,800명의 참가선수, 가족, 일반관람객이 참석한 가운데 5.19(일) 공군사관학교에서 개최됐다.
- '더 넓은 세계로, 더 밝은 미래로, 더 높은 하늘로' 라는 슬로건을 내건 금번 본선 대회는 지난 4월13일부터 5월5일까지 전국 13개지역 예선을 거쳐 개최되는 것으로 글라이더, 고무동력, 유선조종, 무선조종, 헬기조종, 무선글라이더 등 총 6개부문 22개 종목에 대해 경기가 열렸다.
- 이번 대회에는 지난 '94년 발족되어 올해 개최되는 '96 서울 국제 에어쇼에 참가하는 한국 최초의 특수비행팀인 BLACK EAGLE팀의 전투기 특수비행과 동력 행글라이더 및 패러글라이더 합동 축하비행 등이 있었으며, 국내 최고 기량의 무선조종 모형항공기 비행시범이 있었다.

제18회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 대회

- ▶ 참모총장은 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의 글라이더에 일일이 싸인을 해 주며 항공에 대한 꿈을 심어 주었다.



- ◀ 특수 비행팀인 BLACK EAGLE의 곡예비행

- ▶ 전국의 동호인 및 학생들이 참가해 수준 높은 경기를 펼친 무선조종 항공기들



가·정·의·달·군·악·시·범

5월 가정의 달 및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공군에 대한 동경심을 고취하기 위한 군악 및 의장 시범행사를 실시하였다.

4월29일부터 5월14일까지 대전, 충남 등 7개 지역 42개 초등학교에서 실시된 시범을 통해, 5만5천여명의 많은 어린이들이 관람하여 공군 홍보 및 항공사상 양양에 일조를 하였다.



▲ 본부 군악대의 유천초등학교 시범(5.6)



▲ 공군사관학교 군악대의 만수초등학교 시범(5.8)



▲ 군수사 및 교육사 군악대의 인지초등학교 시범(5.13)

공군

AIR FORCE QUARTERLY

1996년 여름호(통권 제235호)



空軍目標

최고의 戰備態勢
科學的 教育訓練
總和的 安全管理
斬新한 空軍文化

공군본부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강한 공군

해마다 6월이 되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선열들을 떠올리게 된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이러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바탕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선열들의 희생을 잊고 지내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조국이 위난에 처했을 때 자신의 귀중한 생명을 초개같이 버리고 나라를 구했던 순군선열과 호국영령들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 또한 호국영령들이 조국수호를 위해 보여주었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과 고귀한 희생정신의 뜻을 받들어, 조국수호와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굳게 결속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싸움을 걸고 휩쓸기는 쉬워도, 걸어오는 싸움을 계속해서 피하거나 대응하지 않기는 어려운 것이다. 즉, 어린이 싸움이건 어른 싸움이건 간에 모든 인간의 싸움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고금의 전쟁사는 이렇게 해서 비롯되었고, 그 결과는 참혹한 인간악(人間惡)으로 표출된다.

우리의 가슴에 쓰라린 기억과 회환으로 점철된 6·25전쟁이 46주년을 맞는다. 6·25전쟁은 북한 공산집단이 그 무엇이라고 억지를 쓰더라도 우리민족으로서는 부끄러운 동족상잔이며, 어리석은 역사악의 체험이었다. 그리고, 오늘의 시점에서 통감해야 할 것은 북한의 대남 무력적화전락은 바로 그대로이며, 단 한치의 변화도 없다는 사실이다.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과 식량난 속에서도 핵무기와 화생(化生)무기 및 중·장거리 유도무기 개발 등 공격적인 군비증강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군사력의 배치면에서 대



徐 弘 毅
대령/정훈공보실장

부분의 전력을 평원선(平元線) 이남에 전진배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때 세기의 눈과 입들은 우리가 공산주의자의 위협을 눈앞에 두고서도 이렇듯 번영과 평화를 누리는 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까지 칭송하였다. 그러나 이 자유, 이 평화, 이 번영이 그 어떤 대가를 치르고 이루어졌는가를 절감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주변에서 자꾸 사라지고 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공훈을 세웠거나 희생한 분들을 보살피고 예우해서 그분들의 은공에 보답하는 것은, 오늘을 풍요롭게 살고 있는 우리들의 당연한 도리이자 국가의 기본적인 책임일 것이다.

이제 우리의 국력도 46년전의 6·25전쟁 당시 상황과 비교해 보면, 실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 놓여 있는 우리 국민은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을 다짐할 때라고 생각한다. 안이한 대북관과 안보불감증을 불식한 가운데, 유비무환을 근저로 총력안보 태세를 유지하는 일이야말로 이 시대가 요청하는 지상과제이자 소명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강력한 민주군대 앞에서는 감히 적도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다시 한번 손자병법에 나오는 “백번 싸워 백번 이기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 못된다. 싸우지 않고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방책이다(百戰百勝 非善之者也 不戰而 屈人之兵 善之善者也)”라는 말을 되새기면서, 우리 공군은 진정으로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전비태세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조 국

김 윤 호

시인/서울도시철도공사 교수실장



어머니, 당신은 언제나
굽은 허리 펴실 날 있을까요
걸음마 배울 때는 몰랐지요
당신의 거친 손과 주름살이
얼마나 큰 아픔인 줄을
해질 녘 들판에서 이삭 줍고
호롱불 심지 돋우며 물레졌던 모습은
어릴 적 아름다운 풍경화였습니다.

제주도 유채꽃밭이 피로 물들고
한강 다리 무너져 내릴 때
말을 잃은 당신
철들어 보리밭 들길에서
바다 건너

북경과 모스크바 낯선 거리에서
당신의 또 다른 얼굴을 보고
속으로 울었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저의 어머니기에

유월 산하에 흐르던 선혈
 핏빛 울음 진달래로
 무더기 무더기 이름모를 들꽃으로 피어나도
 무심한 철새들만 휴전선을 넘나들고
 바람이 남북으로 불어도
 아직은 안개 속에 있는
 백두산 천지 같은 어머니 얼굴

어머니, 사십여년 두르신
 아픈 철사 허리띠 어서 풀고
 가슴에 달아 드리겠습니다.
 한 송이 탐스런 무궁화 꽃을!

※ 이 시는 민족통일중앙협의회에서 주최한 통일문예작품 현상공모에서 부총리 겸 통일
 원장관상(금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선배 전우들의 값진 희생을 되새겨 보며



김 우 태

대령/제3758부대 부단장

매년 6월을 맞이할 때면 우리는 나라와 겨레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몰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생각하게 된다. 조국의 번영과 오늘과 같은 풍요로운 국가가 있기까지, 선배 전우들의 희생을 생각할 때 절로 숙연해지는 계절이 바로 호국의 달 6월이다.

‘나는 조국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 를 되물어 보는 시간이다. 이제, 군복을 입고 청춘을 조국 산하와 함께 해 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그 동안의 느낀 점들을 말해 보고자 한다.

우리는 군복을 입고 있는 국가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실로 개개인이 각각의 소속집단에 속해있을 때 이러한 책임감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하루 하루 일과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반성해보자.

6·25전쟁 중에야 몸소 전투기를 몰고 총을 들

고 적진을 향해 달릴 때, 조국강산을 내손으로 지키겠다는 자부심도 긍지도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그와 같은 정열적인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활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오늘의 평화스러움과 풍요로움이 선배 전우들의 피와 땀이라고 볼 때, 그것을 지키고 보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라 생각된다.

그것을 지키다는 것은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본다. 전쟁을 겪어보지도 못하고 느껴보지 못한 세대들이 대부분 우리 군을 형성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 군대에 기초를 두고 있는 집단은 신세대들이다. 이들은 너무나 풍요로운 속에서 성장해, 부족한 것을 모르고 살아 모든 것이 주어져 있는 것을 누리만 왔다. 이들 세대들에게 우리는 계속 과거만 되풀이 해서 말할 수 없다. 그들은 앞으로 전진해야 하고, 전진하면서의 역할을 되새겨 주어야 할 세대가 기성세대라 본다.



▲ 승호리 철교 폭파도

그러면 무엇을 말할 것인가?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하라고 말할 것인가? 선배 전우들의 희생을 값지게 생각하고 오늘의 조국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바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찾아 주어야 한다고 본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배고픔을 잊고 싸워야 했던 기억들을 우리의 식단에서 되찾아 주어야 하고, 선배 전우들의 고귀한 희생을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 각자의 소속장에서 자기에게 부여된 일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하느냐에서 찾아 줘야 할 것이다.

또한 신세대들은 군대에 몸담고 있는 동안 수동적인 자세가 된다. 상급자의 지시가 없으면 움직이기조차 하지 않는 세대들에게, 지금 총탄없는 전쟁중에 있음을 일깨우는 것은 각자의 역할과 위치를 찾아주는 것이다. 아울러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지금 총탄없는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요, 선배 전우들의 고귀한 희생을 더욱 더 값지게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군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가장 기본적인

물음에서부터 주어진 임무를 명확히 할 때, 바로 호국간성으로서의 자리에 우뚝설 수 있다고 본다. 선배 장병들은 후배 장병들에게 계속해서 자리를 대물림 해주고 있다. 계속해서 얼마나 발전적인 군대, 군대다운 군대로 전통과 맥을 이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선배 전우들의 완벽한 임무수행 자세가 후배 장병들에게 귀감이 되고, 지시와 명령이 아닌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모습일 때 우리 군은 건강하고 강한 군대로서의 발전을 거듭해 갈 수 있을 것이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이 단순히 기념되는 달이 아니라, 선배 전우들의 값진 희생을 되새겨 보고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각자의 맡은 바 위치와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복귀와 대치하고 있는 지금의 총탄없는 전쟁속에서, 조국을 승리로 이끄는 지금길이라 생각한다.

선배 전우들의 고귀한 희생을 조국의 번영으로 승화하고, 통일된 조국을 맞이하여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고대해 본다. **공근**

내 젊음을 비행기와 함께 하며

최 원 문

예비역 대령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것만큼이나 행복한 것도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나에게 있어서도 젊음을, 아니 평생을 비행기와 함께 한 시간들은 정녕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내가 비행기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한국전쟁 이전의 일제 식민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청주사범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던 필자는,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징병제도가 실시되기 전에 “소년병”으로 해군에 입대하여 정비병으로 비행기를 다루게 되었다.

해방 이후 학교로 복학한 나는 당시 군인이었던 분의 권유로, 뜻한 바가 있어 학업을 중단하고 군에 입대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육군 항공대”에서 비행기의 정비를 계속하게 되었다. 당시 여의도에 있었던 항공대에는 4개 중대가 있었는데 1·2·3중대는 비행중대였고 4중대가 정비중대였다.

드디어 1949년 10월 1일 공군이 독립되었고, 한달 후 “건국기”의 조립요원으로 차출되어 T-6을 조립하고, 건국기 10대 중 109호의 “기장”으로 임명되었다.

필자가 한국전쟁을 맞은 것은 청주집에서였다. 나는 전날 서울시민회관에서 열린 서울 발레단 창립공연을 보고, 부대로 귀대하지 않고 모처럼만에 집에 갔던 것이다. 다음날 전쟁발발 소식을 듣고 부대로 바로 귀대하려 했으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고 미군 사령부가 있는 대전으로 목적지를 정했다.

유성 비행장으로 가 보니 건국기가 몇 대 있었으나 “109호”는 보이지 않았다. 얘기를 들어보니 북괴의 적기가 여의도 비행장을 2~3번 공습하였는데, 그때 오른쪽 날개에 기총을 맞아 비행기를 그냥두고 왔다는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도 어이가 없었다. ‘멀쩡한 비행기를 그냥두고 오다니. 연료탱크만 교체했어도 됐을 것을…….’

정비사에게 있어서 비행기는 자식만큼, 아니 어쩌면 자식보다도 더 소중하고 아끼는 물건이다. 오일이 새기만 해도 병에 걸린 자식을 간호하는 심정으로, 밤을 새워 가며 고치는 그런 비행기를 그냥 두고 왔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 망연 자실할 수 밖에 없었다.

한국전쟁 초기에 공군은 주로 정찰비행을 통해 전황을 지상 지휘소에 알렸고, 포탄을 직접 투하하거나 비행기의 밑부분에 바추카포를 부착하여 로켓포로 사용하며 전투에 참여하였다.

그후 태평양 참전 10명의 조종사가 일본에서 무스탕 10대를 인수하면서, 우리 공군도 제트기 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때부터 부대를 대구기지로 옮겨 미군들과 공동으로 협조하며, 합동정비를 통해 한국공군의 정비실력을 자랑할 수 있었다. 20~30명의 정비사들은 다음날의 작전을 위하여 밤샘 작업을 계속하였는데, 이는 전투기가 모자랐기 때문이었다.

B-29의 융단폭격과 맥아더의 인천 상륙작전 성공으로 인해 전세가 호전되면서, 드디어 여의도 비행장으로 오게 되었다. 1950년 10월 초순 지금의 5·16 광장인 여의도 비행장은 잡초가 무성하여 옛 활주로의 모습을 찾을 길이 없었고, 여기저기 북괴군의 시체가 덩굴고 있어서 치열했던 9·28 수복의 전투상황을 실감케 했다.

당시 공군 주력부대는 진해, 인천을 거쳐 여의도 비행장에 도착하여, 성남고등학교에 캠프를 두고 잡초를 제거한 뒤 활주로를 정비하고 출격 준비 작업을 서둘렀다. 한편으로는 출격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훈련을 계속하였다.

이후에 평양에 입성하여 이제 조국의 통일을 목전에 두는 감격을 느꼈으나 이도 잠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우리는 다시 물러서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후 양측의 팽팽한 힘 겨루기 속에 1951년 9월 하순 강릉기지에서 전투비행대대가 최초로 전개되어, 1953년에 휴전이 될 때까지 전투부대의 정비사로서 바쁜 생활을 계속하게 되었다. 조종사와 정비사는 비록 그 임무는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가 되어 조국의 승리를 위해 싸웠으며, 서로 일심동체가 되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눴다.

그러나 한국전쟁은 우리의 바램과는 무관하게 조국이 분단된 채 휴전이 되었으며, 한국전쟁을 담당했거나 경험한 세대들은 이제 서서히 역사의 뒤로 사라지고 있다.

끝으로 한국전쟁과 군생활을 통틀어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는 한국전쟁 초기에 한국공군의 미국 고문단장이었던 헤스대령을 보필하게 되었다. 그는 북괴군 섬멸을 위해 애기(愛機) F-51 무스탕 18호기를 몰고 직접 출격하여 전투에 임하는 한편, 한국 전투조종사를 훈련·양성하는 두 가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필자는 현역정비사로 그분의 얘기를 정비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었다.

하루는 그가 애기 옆에서 필자에게 쪽지를 건네 주면서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나요?”라고 물었다. 그 쪽지엔 ‘I fly by faith.’라고 쓰여져 있었으며, 필자는 ‘나는 신념으로 난다.’ 즉 ‘신념(信念)의 조인(鳥人)’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애기 무스탕 18호기의 양쪽 동체 엔진커버에 그 글자를 써 줄 것을 요청했다. 이것이 영화배우 록 허드슨이 주연했던 ‘전승가(戰頌歌)’의 주인공 헤스대령이며, ‘신념의 조인’의 탄생으로 지금도 공사에 전시돼 후배 보라매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것이다.(현재 전시되어 있는 것은 그의 애기 18호기는 아니며, 다른 무스탕에 표기되어 있는 것이다. 18호기는 전후 태풍으로 이동중 파손되었다.)

헤스대령, 그는 투철한 군인정신과 책임감으로 철저히 무장되어 있던 위대한 군인이자 파일럿이었다.

그는 ‘신념의 조인’답게 곧잘 단기출격을 감

행했는데, 대전 비행장으로 철수한 뒤 성탄절 전 야제를 맞아 부대가 모처럼 안식과 명절의 분위기에 젖어있을 때, 필자에게 애기의 정비를 부탁하여 곧장 단기출격을 하기도 했다. 그는 생명을 건 투철한 사명감으로 한국전에서 무려 2백50회나 출격하는 대업을 달성하였다. 당시 1백회 출격을 완료하면 귀국할 수 있는 특전이 있었으나, 그는 이를 오로지 책임감으로 이루어낸 것이다.

또한 헤스대령은 군인이기 앞서 참으로 인간애가 풍부한 휴머니스트였다. 중공군의 침투로 남하해야 했던 그 위급한 시점에, 평양에서 서울로 내려오는 길은 피난차량 대열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북쪽의 고아들을 무사히 이동시켰다.

그는 필자에게도 허심탄회하게 비행기의 정비라든가 기타사항을 얘기하는 자상함을 보여주었으며, 지난 54년 내가 도미하였을 때엔 친절한



▲ 헤스대령이 이륙하기 직전 필자에게 싸인을 보내는 모습

배려와 안내로 국방성 내부를 골고루 견학시켜 주기도 했다.

그의 자택을 방문하였을 때, 나는 또 한번 놀랐다. 그는 한국역사에 대한 진귀한 서적을 구입하고 공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한국전쟁에서 보여준 불사조의 기백, 숭고한 인간애, 투철한 군인정신은 결코 일시적인 영웅심이나 감정에서 표출된 것이 아니다. 그는 앞으로도 역사속의 한국을 이해하고 아껴준 우인(友人)으로서, 또한 진정한 '신님의 조인'으로서 우리들 가슴속에 기억될 것이다. **공민**

한국전쟁과 B-26비행단 전사(戰史)

한 상 진

4급/작사 전투태세검열실



이 글은 필자가 일본 “항공 FAN”(’94년 9·10월호)을 편역한 것이다.

〈편집자 주〉

한국전쟁 최초의 36시간

1950년 6월 27일 오후, 동경의 제일생명 빌딩에서는 맥아더 원수와 통합참모본부(JCS) 사이에 중계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당일 동경에 도착하여 극동항공군(AEAF)의 지휘를 인계받은 ‘스트라트메이어’ 장군이 아니라, 당시 제5항공군(5th AF)의 부사령관으로서 실질적으로 사령관직을 대행하고 있던 ‘알 E. 패트리지’ 장군이였다.

텔레타이프가 참모본부로부터의 명령확인서를 토해내자마자, 맥아더의 입에서 ‘패트리지’에게 명령이 떨어졌다.

「한반도에서의 작전성공 여부는 한국군과 한

국민의 전의를 얼마나 회복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대규모 공습으로 북한군을 38도선 이북으로 몰아내라!」

결의에 찬 맥아더의 명령은 강력한 스트레스로 변해 극동공군에 퍼져갔다.

그 후의 36시간, 극동의 전비행대에는 그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북한군을 공격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명령이 하달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극동공군은 한반도에서의 전투경험은 물론, 명확한 작전계획조차 수립되어 있지 않았다.

동(同) 27일 저녁 6시, 맥아더는 작전지시서를 배포하였다. 남한은 자유사격 지역으로 지정되어, 극동공군은 남한 내에서의 철수와 보급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38선 이남에 침투한 북한군의 모든 목표를 공격하게 되었으나, 38도선 이북에서는 자위목적 이외의 항공작전은 엄금한다는 경고가 내려졌다.

이 무렵, 이미 제일생명 빌딩에서는 극동공군의 작전참모들에 의해 명령이행이 시작되고 있



었다. B-26폭격기를 운용하는 제3경 폭격항공군(3rd BG-L)에도 전력폭격임무가 시달되었다. 목표는 전차, 포병진지, 보병부대, 물자집결지, 그리고 38도선과 전선을 연결하는 교량과 보급선이었다.

동경 근교의 존슨공군기지(현재의 '이리마' 기지)에 있던 제3경폭격항공군은 예하의 제8경폭격비행대(8th BS-L)와 제13경폭격비행대(13th BS-L)에 총계 26대의 B-26을 보유하고 있었다. 적대행위가 시작된 6월 25일, 제8경폭격비행대는 오키나와의 제20항공군(20th AF)과 함께 훈련중이었으며, 제13경폭격비행대는 항공군훈련에 대비하여 '마쓰시마' 기지로 이동한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하에 있던 비행단은 즉일 전력 전투임무, 그것도 야간 작전명령이 하달되면서 더욱 어수선한 분위기로 빠져 들었다.

비행단이 직면한 것은 보급에 대한 악몽이었다. 병력을 포함한 비행단의 모든 자재는 일본 남부의 3개 기지에 분산되어 있었다. 제8경폭격비행대의 우연한 '아시아' 기지 전개도 그것이 임시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불완전한 상태였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저녁 무렵 '아시아' 기지에는 제13경폭격비행대의 B-26이 집결하여 즉시 실전에 투입되기 시작하였다. 육체적 한계를 넘어서는 필사의 노력으로, 2개 비행대의 작전을 지원한 것은 제8경폭격비행대의 지상요원들

이었다.

최초로 요구된 것은 철수작전의 안전확보였다. 즉시 제8경폭격비행대의 B-26 6대가 '후쿠오까'로 향해 느린 속도로 항진하는 난민선 '레인볼트' 호의 지원에 투입되었다. 동비행대의 나머지 4대는 서울 근교 어딘가에 소재하고 있는 적의 전차부대를 공격하기 위해, 일몰 직전의 '아시아' 기지를 이륙하였으나 곧이은 야음과 악천후로 임무를 소화하지 못하고 귀환하였다. '아시아' 기지에는 일몰과 함께 한기가 엄습하며, 낮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20시 32분까지 출격 중지되었던 다음 편대는 고장으로 한 대가 임무 중지되고, 나머지 4대도 목표 상공을 뒤덮은 구름때문에 귀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가운데 약천후를 무릅쓰고 '요코다' 기지로부터 한 대의 RF-80A 정찰기가 이륙하였다. 제8전술정찰비행대(8th TRS)에 소속된 이 정찰기 조종사인 '블루스·포세Ⅱ' 대위는 전진하는 북한군 선두부대의 사진촬영에 성공하는 한편, 한반도 상공의 기상이 회복되어가고 있음을 통보하였다. 그리고 이 기상정보에 따라 극동항공군은 항공기가 발진만 할 수 있다면, 남한 상공에서의 폭격임무를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시작된 혼란속의 전투

6월 28일 아침 7시 30분, 대량의 무기를 탑재한 제3경폭격항공군의 B-26이 '아시아' 기지의 활주로에 모습을 나타내었다. 불안스런 기색의 탑승원들을 태운 폭격기는 20초 간격으로 이륙해 갔다. 비행 전의 브리핑은 명확한 작전 정보 없이 이루어졌다. 유일하게 기상만이 '제로·제로' 상황임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더욱 악화되어가고 있었다. 목표에 대한 상황이나 그들이 직면할 대공포 진지의 폭진상황도 알 수 없었다.

이때 9대의 B-26이 편대강하로 두터운 구름층을 돌파한 것은 이륙한 지 2시간후였다. 그 고도는 13,500ft에 달하고 있었다.

10시 30분, 제2편대의 선도를 맡고 있던 '레이몬드·사이보스키' 대위는 편대장인 '에이브·슈크' 소령으로부터 구름의 하한선을 탐색하도록 지시를 받고, 강하하기 시작하였으나 대위기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후에 생존자인 '하리·리스크' 중의(항법사)에 의하면 자신들의 비행기는 거친 대기 속에서 균형을 잃고 바다에 착수했다고 한다. 기외로 탈출한 '사이보스키' 대위는 상부 기총타레트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소식이 두절되었으며, 기총수인 '호세·캄포스' 준위도 행방불명되었다.

그리고 나서 한시간 정도 지나 남한 상공에도 달한 편대는, 구름 밑으로 내려가는데 성공하였으나 그 대수는 6대로 줄어 있었다. 다른 두 대는 강하 도중 편대를 잃고 각각 단기로 귀환을 시도하였다. 이중, '디비드·메리디스' 중위는 8번기는 점심때 쯤에야 간신히 '이타후' 기지에 착륙하였지만, '르마·하딩' 대위의 편대 6번기는 대구에 있던 'Moonshine Control'의 긴급 유도로 '아시아' 기지를 발견하긴 했으나 활주로의 상의 구름 속에서 추락하여 전원이 사망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불행히도 한국전쟁 항공전에서 최초의 희생자가 되고 말았다.

이 무렵 서울 주변의 모든 도로는 패주하는 군대와 난민으로 메워져 있었다. 6월 28일, 서울에서 발생한 한 사건은 미군 중군기자인 '프랭크·기르비'에 의해 극적으로 묘사되고 있었다.

「더럽고 피로에 지칠 대로 지친 난민들과 지프상의 한국병들이 갑자기 요란한 환성을 올렸다. 모든 교통의 흐름이 일시에 멈추고 사람들은 피로에 지친 얼굴에 환희의 웃음을 띠우며, 하늘을 가리켰다. 지금까지 나는 그렇게도 마음에 와닿는 환희의 표현을 체험한 적이 없었다. 우리들의 상공에는 편대비행하는 6대의 미군폭격기, B-26의 모습이 보였던 것이다.」

B-26은 서부 개척시대의 용감한 기병대 도차이라는 강렬한 이미지를 준 것이었다.

서울 상공에 접근하자 편대는 2대씩의 소편대로 분산하여 임의폭격 목표(TOA)를 찾기 시작하였다. '슈크' 소령과 '몬테·바류' 대위는 개성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따라 북으로 향하였다. 그들은 적어도 트럭 4대를 격파하였고, 개성 근교 조차장에서 군용열차 1량을 파괴하였다. 그러나 귀환하는 길에 두번째의 Pass를 시도한 '바류'기는 소화기의 일제 사격에 휘말리고 말았다. '슈크' 소령은 불구가 된 '바류'기가 60마일 정도 떨어진, 우군 관할지역에 있는 수원기지에 착륙할 때까지 에스코트한 후 '아시아' 기지로 기수를 돌렸다.

제3소편대인 '로버트·파레트' 중령과 '디비드·스티갈' 중위는 하천을 따라 비행하다가, 서울 북서쪽에 집결하여 도하중인 적의 지상군을 발견, 극적인 전과를 올렸다.

역시 서울로 진입하는 도로를 따라 남하중인

적을 공격한 제2소련대의 '제임스·모로' 대위와 '프랭크·헤젠' 대위는 기습에 성공하여 많은 차량과 적병을 파괴, 살상하였으나 무장이 소진되어 귀로에 올랐다. 오후 12시 30분경 '모로' 대위는 200ftd의 저공에 불규칙한 구름층으로 뒤덮인 '아시아' 기지에 착륙하였다.

그러나 적의 대공포화에 크게 손상당한 '모로' 대위의 B-29는 나중에 복구불가로 판정되었으며, 오후 1시 무렵이 되자 역시 손상당한 '헤젠' 대위와 '스티갈' 대위의 B-29가 '이타후' 기지에 긴급 착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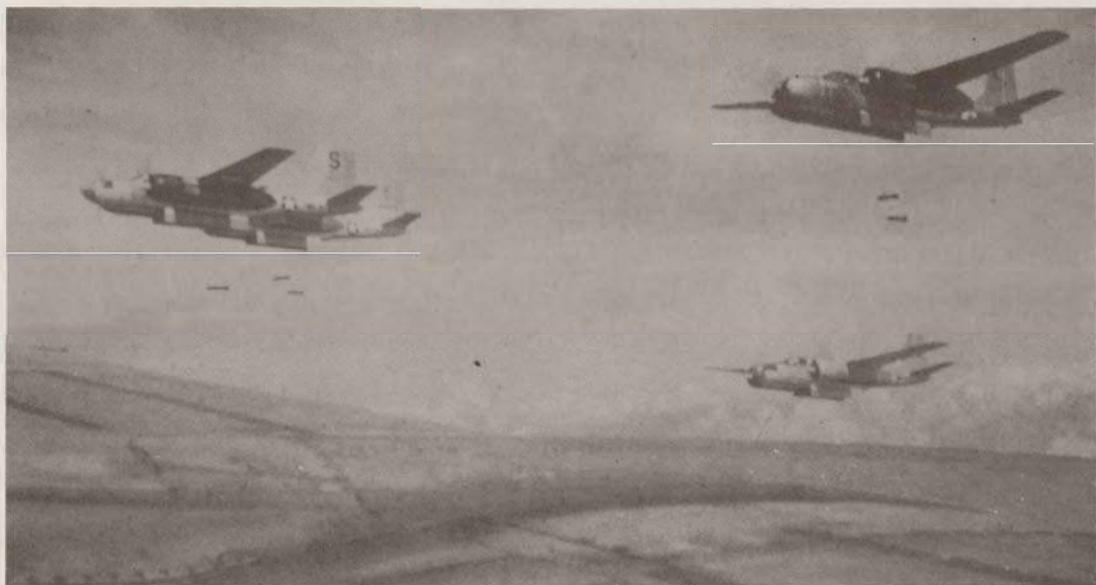
그리고 나서 20분 정도 지나 '슈크' 소령이 '아시아' 기지에 귀환하여 자신이 격추되었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시켰으며, 동시에 '바류' 대위가 무사하다는 소식도 항공군에 전하였다. 그리고 오후 2시 10분경이 되자 수많은 탄환에 관통당한 '파레르' 중령의 B-29가 6시간 40분의 비행을 마치고 귀환하였다.

하늘을 지배하라

6월 25일 정오쯤, 몇 대의 야크기가 김포비행장에 기총소사를 가해와, 미국인 피난민 제1진을 공수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C-54 한 대를 파괴하였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맥아더'는 피난민의 출구가 될 수 있는 모든 항구와 비행장에 즉시 전투기를 배치하도록 극동항공군에 명령을 내렸다.

그후 24시간 이내에 제347전천후 전투항공군(347th FG/AW)으로부터 F-82G Twin Mustang이 일본으로부터는 제8전투폭격항공그룹(8th FBG)의 F-80C Shooting Star 전투기가 파견되어 인천항 상공을 초계하기 시작하였다. 초계 비행한 지 얼마되지 않아, 곧 야크기의 공격을 받은 F-82는 치열한 공중전 끝에 야크기 3대를 격추시켰다. 이날 오후, 이번에는 IL-10폭격기 8대가 내습하였으나 이중 4대가



고전적인 폭력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B-26C

한국전쟁의 증언과 그 교훈

F-80에 의해 격추되었다. 6월 28일 오후, 야크기 4대가 수원 기지를 공격, 고장이 나 지상에 머물고 있던 F-82를 파괴하였다. 그 8시간후 6대의 야크기가 제차 나타나 C-54 1대를 지상에서 파괴하고, 착륙 진입중인 1대에 총격을 가해 '아시야' 기지로 되돌려 보냈다.

'스트라트 메이어' 장군은 북한공군을 궤멸시켜 제공권을 확보하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6월 27일 하달한 명령이 그 자신을 구속하여 효과적인 제공작전 입안을 방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북한공군의 도발을 허용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6월 28일, '처치' 장군으로부터 미 지상군의 직접 개입을 요청받아, '맥아더' 장군은 다음날 현지 상황을 시찰하기 위해 수원기지로 비행하였다. 이때, 수원기지에 있던 기종은 310마일 떨어진 '이타후' 기지에서 전개된 8전투폭격비행단의 F-80이었다. 이 F-80은 '맥아더'가 도착하기 전 20분 동안 눈부신 공중전을 벌여 La-7과 IL-10 각 1대를 격추하였다. 그러나 지상에 있던 C-54 1대가 파괴되었는데, '맥아더'를 태운 C-54 수송기 '바탄' 호는 그 잔해를 피해 간신히 착륙하여 '맥아더'를 내려놓자 곧 일본으로 돌아갔다. '맥아더'가 한국군 사령부에서 회의하던 도중 P-51D와 4대의 야크기 사이에 고전적인 공중전이 벌어졌다. 이때 야크기 모두가 격추되는 광경을 목격한 '맥아더'는, '스트라트 메이어' 장군이 요청한 38도선 이북의 북한 공군기지 공격을 허가하였다. 4시 15분, 평양 근교에 소재하고 있는 대규모 공군기지를 향해 18대의 B-26이 출격하여, 일몰 때쯤에 아무 저항도 받지 않고 해주 부근에 침투하였다.

제13경폭격기 비행대의 조종사 '리차드·프

리티만' 대위는, 전쟁 발발일로부터 4일만에 실시된 폭격임무를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우리는 극동지역에 배치된 유일한 B-26부대로서 극동항공군 중 최초로 실전에 참가한 전술부대였다. 이번의 작전은 전력 폭격임무로서 목표는 평양에 있는 군사비행장이었다. '브리핑' 장교는 전투기와 격렬한 대공포화를 염두에 두고 있으라고 말하였다. 브리핑에 참가한 대원들은 두려운 기색이 역력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제일 불쌍한 것은 폭격수였다. 폭격조준기에서 눈을 떼지 벌써 몇 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갑자기 가장 중요한 임무를 배정받은 것이었다. 내가 1949년 말 비행대에 배치되었을 때 나는 비행학교를 갓나온 신참 소위였다. B-26을 타본 적도 없는 나로서는 일본에 배치된 부대에 배속된 것은 훈련에 좋은 기회가 된 것이다. 이 무렵 부대에는 나와 처지가 비슷한 조종사들이 대부분이었으며, 폭격수 역시 조종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구성요원들에게 임무를 완수하라는 것이다. 브리핑에서는 이번 임무는 육안폭격이 될 것이라고 한다. 기분이 과히 좋지 않았다. 비행대는 보유기를 이미 4대나 잃고 있었다.」

한국에서 탑승기의 수리를 마친 항법사 '몬테·바류' 중위와 조종사 '비트맨' 대위는 실로 좋지않은 타이밍에 '아시야' 기지에 귀환하였다. '바류' 중위는 출격준비에만 몰두하고 있는 항공군의 모습이 불만스러웠다.

영웅적인 환영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지금까지 어디서 놀다왔느냐는 식의 대접을 받은 데다, 다른 폭격기를 타고 다시 출격하지 않겠느냐는 부탁을 받는 것이다. 그것도 평양으로



기수에 장착된 8문의 50mm 구경기총은 B-26의 강력한 대지공격무장이었으나 그 발사음이 조종사의 야간시력을 빼앗는 단점이 있었다.

향하는 항공군의 선도항법 폭격수로서 …… 출격한 18대 편대 중 좌익의 3번째를 비행한 '프리티맨' 대위도 증언하였다.

「이륙시의 날씨는 실중이 날 정도였다. 구름 속을 6천피트까지 상승하여 밀집 편대를 이루고 동해를 건넜다. 기습에 성공하여 1만피트에서부터 강하, 폭격 비행을 실시하려고 하였을 때, 적 기지 여기저기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주변 진지로부터는 대공포가 발사되기 시작하였으나 위협적인 존재는 되지 못하였다. 야크기 5대가 무서운 기세로 활주로 위를 달리고 있었다.」

「제1편대 선도기 '해리슨·로벨·주니어' 대위가 이륙을 시도하던 야크기 3대에 파편폭탄을 투하하였다. 나머지 2대만이 재빨리 상승하여 편대 우익 뒤편으로부터 공격을 가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닐·믹크리' 준위기의 12.7mm기총탄을 뒤집어 쓰게 되었다. 야크기 한 대가 순간

불을 뿜었다고 생각되자 빙빙 돌며 떨어져 갔다. 또 한 대는 더 이상 공격을 가해오지 않았다.」

평양비행장에 대한 폭격은 완전 성공이었다. B-26은 전기가 무사히 '아시아' 기지로 돌아왔다. 격납고, 막사, 연료저장소는 파괴되었거나 화재를 당했으며, 최저 25대의 적기가 지상에서 파괴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6월 29일, '이와구니' 기지에 주둔하던 호주 공군의 No. 77SQN이 유엔군의 일부로서 작전에 참가하였다. 7월 1일부터의 13개월 동안 제3 폭격항공군도 '이와구니' 기지로부터 작전을 벌였다. 1951년 8월, 항공군은 남한의 서해안에 새로 건설한 군산기지로 전진하였다.

야간 침입자

극동공군에 의한 하늘의 지배는 북한군에 보급상의 큰 문제를 야기하였다. 남으로 향하는 도로에는 전차 대열이 모습을 감추었으며, 열차는

한국전쟁의 증언과 그 교훈

주간이면 터널 속으로 사라지고, 차량에는 위장이 가해졌다. 그러나 밤만 되면 트럭 행렬이 줄을 지어 남하하기 때문에, 극동공군은 독자적인 야간 전력을 정비할 필요가 생겼다. 그것도 제5항공군이 보유한 기존 부대를 이용하여…….

처음부터 야간 공격임무에는 F-82 전천후 전투기가 투입되었으나, 이렇다 할 전과를 올리지 못하였다. F-80도 투입되었으나, 고속으로 야간에 지상목표를 포착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F-51에 맡겨 보았지만 이 역시 시원찮은 결과로 끝나고 말았다. 이에 등장한 것이 B-26인데, 비록 야간 장비는 불충분하지만 속도, 무장 탑재용량, 항속거리, 기동성, 그리고 화력면에서 임무에 최적이었다.

1950년 8월 8일, '스트라트 메이어' 장군은 야간작전의 Step up을 명령하였다. 제5항공군의 '패트리지' 장군은 이에 따른 주간작전의 소티수 격감을 우려했으나, 제3경폭격항공군 사령관인 '바젤·조라' 대령에게 지휘하의 50%를 야간작전에 투입하도록 명령, 1주간 교체기간을 전제로 한 2개 비행대의 야간 임무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곧 비효과적임이 입증되었다. 주간작전 훈련만을 받은 탑승원이 작전 현장에서 경험을 쌓아 야간임무 기량을 습득하도록 요구 받아, 최악의 기상 속에서 조명없이 불규칙한 지형을 비행하는 것이다. 2회 연속 임무를 수행한 후 1주일 동안 교체해 준다는 방법이, 경험이나 기량향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진 것이다. 따라서 제13경폭격비행대에만 야간임무가 주어지게 되었다.

부산 방어진으로의 철수작전이 시작되자 제3경폭격항공군의 작전이 활발해졌다. 7월의 소티수는 720소티를 넘어섰으며, 8·9월에는 각

1,000회 정도에 달하였다. 그 이후 가을 동안 제13경폭격비행대는 야간 전문부대로 변신하였다. 동대(同隊)의 B-26은 30분 마다 '이와구니' 기지를 이륙, 대구 '메로·콘트롤'의 지시를 받은 목표 폭격과 적 장악지역에서의 임의수색 폭격 임무를 밤새도록 실시하였다.

이러한 유엔군의 항공작전은 길게 뻗은 적의 통신, 보급선을 파괴하여 전선으로 향하는 자재 수송을 방해하였다. 이에 따라 적의 보급물자는 만성적인 부족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증언1 : 주간공습 임무

'토니·카트' 소령(파일럿:제3경폭격비행전대, 제13경폭격 비행대)

제13경폭격비행대에 배속된 나는 B-26 조종사와 비행전대의 브리핑장교라는 두 가지 임무를 겸하게 되었다. 재임중 어느 날, 나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간폭격 명령을 받았다. 임무란 4대의 B-26을 이끌고 평양으로 비행하여 평양과 신의주 사이에 있는 교량, 철교, 교각, 기관차, 조차장의 화차, 그리고 임의의 목표를 파괴하는 것이다.

나는 이 임무의 광경을 머리에 그리며 흥분하고 있었다. 이 무렵의 우리에게는 '하루 종일 폭격'이란 좀처럼 없는 기회였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임무의 최적임자는 우리 제13경폭격비행대로서, 그 선도를 맡아야 할 사람은 바로 나임을 '헨리·브레디' 대령(비행전대장)에 간청하여 출격허가를 얻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전에 우선 '윌트·킹' 중령에게 임무 개요를 보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별로 좋지않은 예감이 들긴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중령은 나의 비행대장이었으니까……. 직속 상관을 제치고 차상관에게 먼저 보고한다는 것은 엄금이다.

나쁜 예감은 적중하였다. 중령은 자신이 먼저 출격하겠다고 말을 꺼낸 것이다. 마음이 상했지만 어쩔 수 있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들을 인솔할테니까, 자네는 다음 편대를 인솔하면 되지 않는가?”

중령은 전혀 나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다.

8초에서 15초의 지연신관을 장착한 1,000LBS의 대형폭탄 4발, 5인치 로켓탄 8발, 네임팜탄, 기수와 선회총탄에 가득 장전된 50밀리 구경(12.7mm) 기총탄. 이것이 탑재무장이었다.

1951년 2월 23일, 예정대로 임무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제1목표 상공이 구름으로 덮혀 있었기 때문에 목표는 원산 주변으로 변경되었다.

우선, 중령이 조종하는 선도기가 초저공에서 폭격Run을 개시하여 목표에 1,000LBS폭탄을 투하하였다. 그러나 지연신관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지면에 충돌하자마자 폭발해 버렸다. 킹중령과 그 탑승원들은 폭발 여파로 살아남을 수 없었다.

비행대는 슬픔에 휩싸였으나,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를 명확히 밝혀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조사결과 지적된 사항은 폭탄 내부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킹중령의 기체는 일반적인 TNT화약이 아닌 ‘콤프B’*라 불리우는 작약이 채워진 1,000LBS폭탄을 적재하고 출격했던 것이다. ‘콤프B’는 대단히 불안정한 작약으로서, 설령 지연신관이 달려있다 해도 착탄의 충격으로 폭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하루종일 폭격’은 아직 끝나지 않고 있었다. 제1목표인 평양이 남아 있었다. 2일후 기상이 회복되자, 우리 비행대에 재차 출격 기회가 돌아왔다. 누가 선도를 맡았을까? 물론 나였다. 이륙하기 전에 폭탄에 황색띠가 그려져 있는지 모두 체크하여 보았다. 직접 내눈으로…….

내가 스스로 임무 브리핑에 나섰다. 목표지역 상공은 좋은 날씨가 예상되는 반면, 대공포화에 의한 적의 반격은 격렬해질 것 같았다. 평양에 접근하면 강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 서안에 있는 언덕은 대공포로 중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은 피해서 비행하게 되었다.

그 강은 평양 남쪽에 있었다. 그곳에 접근할 무렵 편대는 50ft 이하의 초저공으로 강하하였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Trail편대를 꾸며 강을 따라 IP**로 향해 진로를 바꾸었다. 그러나 이때 일직선으로 나를 따르던 편대의 4번기가 무슨 이유로 갑자기 요동하기 시작, 후방으로 미끌어져 나가기 시작하였다. 우리를 따라오기에만 급급했던 4번기는 IP에의 가까운 길을 비행하려고 코스를 이탈, 어느 정도 피해갔다고 생각했던 대공포 진지의 서쪽으로 향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4번기는 승무원 모두가 전사하고 말았다.

* ‘콤프B’는 Composition B로 불리우는 혼합작약의 명칭이다. 이 작약은 소량으로도 폭발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수류탄등의 소형 무기에도 많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이 ‘콤프 B’를 사용한 폭발물에는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황색의 문자나 띠가 페인트되어 있다.

** Initial Point : 비행중 위치확인에 사용하는 지상목표

그후의 임무는 모두 브리핑대로 진행되었다. 2번기, 3번기와 교체하면서 지그재그 공격으로 철교와 그 교각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었다. 조차장에서 몇 량의 화차와 대공포 타워를 파괴하였다. 그러나 타워를 해치운 것은 적의 대공포탄이 이쪽에 명중된 후였다.

처절한 대공포화가 예상되었기 때문에(실제로도 처절하였다), 우리는 신의주에 있는 커다란 다리도 피하도록 명령받았다. 우리가 신의주 철교에 접근하자 대공포 타워가 우리를 향해 불을 뿜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로켓탄을 명중시켰으나 이탈하는 순간, 꼬리에 강력한 일격을 맞았다. 그 순간 기체는 기수를 곧두세우고 급상승하기 시작했으나, 후방석의 도움으로 최대한 조종간을 누르자 간신히 수평비행으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요기와 랑데뷰하여 일본의 '이와구니' 기지로 돌아오게 되었다.

전기가 피해를 입었다. 대구에 접근했을 무렵, 나는 다른 2대에 착륙을 명하고, 심각한 피해가 없는지 기체를 체크하였다. 나의 기체는 간신히 비행할 수 있는 상태여서, 일단 착륙하면 더 이상은 비행할 수 없을 것임은 필지의 사실이었다. 그래서 수리시설이 있는 '이와구니' 기지까지 그대로 비행할 것을 결심한 것인데, 승강타의 와이어가 대부분 절단되어 있었고 그중 한 줄만이 간신히 연결되어 있었던 사실도, Trim의 컨트롤이 완전 상실되어 있었던 것도 몰랐다. 그러나 수평비행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조종간에 힘을 가해줄 필요가 있었다.

'이와구니' 기지까지는 무사히 비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간신히 상공에 도달해 보니 시정이 1/8마일 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GCA(착륙 유도관제)도 없을 때여서, ADF(자동방향탐지

기)에 의존한 착륙을 시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활주로 끝에 있는 토담을 넘어서는 순간에야 간신히 눈에 들어왔다. 무사히 착륙했을 때의 기쁨이란 이루 형용할 수 없었다.

그 후 곧 대구에 내린 2대도 돌아왔는데 모든 기체는 구멍 투성이가 된 상태였다. 하지만 그 이상의 희생자는 나오지 않았다. 격추된 기체의 탑승원을 제외하면…….

증언 2 : 총성이 멈출 때

'도날드 W. 맨스필드' 중의(파일럿:제3경폭격비행전대, 제8경폭격비행대)

'윌리엄L. 라레스톤' 중의(항법사:제3경폭격비행전대, 제8경폭격비행대)

'데니스J. 자미드' 중사(사격수:제3경폭격비행전대, 제8경폭격비행대)

1953년 7월 27일 10:00에 서명된 정전협정은, 그 후 12시간이 지난 22:00을 기해 발효되게 되었다. 서울에 있던 제5공군사령부는 이 동안 한국전쟁에서 마지막 폭탄을 투하할 부대로서 제8경폭격비행대를 결정하였다. 비행전대장인 '유진 B.라베이리' 대령이 마지막 임무에 출격할 탑승원으로서 우리를 선발하였다. 제5공군은 또한 한국 국제뉴스 서비스부의 치프인 '에드-훗하임'을 K-8기지(군산)로 보내어, 우리들의 임무에 옵서버로서 동승시킨다고 전해 왔다.

돌아오는 길에 일단 K-14(김포)기지에 착륙하여 그를 내려놓고, K-8 기지로 돌아오도록 명령을 받았다.

이 임무의 브리핑이 실시된 것은 그 날 오후였다. 이에 이어 이륙전 브리핑이 기체 앞에서 실시되었다. 여기에는 비행전대장인 '스트로간-키즈

리' 대령과 '라베이리' 대령 두 분이 모습을 나타내어 우리들을 '훗하임' 씨에게 소개하였다. 목표가 된 폭격라인 바로 북쪽에서는 적이 보급품 증대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었다. 지상부대나 장비의 이동, 그리고 보급행위 등은 그날 밤 21:00를 기해 모두 정지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동안에는 아직 전쟁이 계속되는 것이다. 유엔의 정전팀은 정전 이후의 병력 증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날 아침부터 행동을 개시하여 부대나 장비의 수량을 기록할 예정이었다.

브리핑에서 인상에 남았던 것은 '라베이리' 대령의 말이었다. 대령은 제5공군이 21:30 이후부터는 북한 침투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후에 적지않은 문제를 제기하였다.

우리는 20:15경에 K-8기지를 이륙하였다. VHF무선기의 고장으로 이륙시 약간의 시간 지체가 생겼다. 그리고 이륙에서 상승으로 옮기자 우측 엔진의 회전이 아무래도 원활치 않은 것 같았다. 그러나 수평비행으로 옮긴 후에는 엔진도 정상이 되었다. 우리는 비행기나 목표에 대한 '훗하임' 씨로부터의 질문에 대답하기 시작하였다.

TACC(제5공군의 전술항공 관제센터)에 체크인해 보니, 중요한 콘트롤러가 레이더의 부조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해 왔다. TACC는 우리를 IP까지 유도하여 8,000ft 고도로부터 폭탄을 투하하기까지의 카운트다운을 쉘 예정이었다. TACC의 레이더가 우리들의 비행기 모습을 명료히 포착하기 시작했을 무렵, 시간은 이미 21:25를 넘고 있어, 우리는 폭격라인으로부터 12마일이나 떨어진 장소를 비행하고 있었다. '라이베리' 대령의 주의사항이 머리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TACC를 통해 제5공군으로부터 임무 계속의 허가를 받기로 했다. 이리하여 우리가 통합작전 본부로부터 폭탄투하 허가를 얻은 것은 21:30 경이었다. 이것을 들은 TACC는 즉석에서 유도를 재개하여, 남북 경계선을 넘은 우리는 카운트다운에 따라 21:33에 폭탄을 투하하였다.

하늘로부터는 경계선 너머로 발사되는 포격과, 총격의 산발적인 빛이 보이기는 했지만 대공사격은 거의 받지 않았다. 우리는 공역의 항공무선넷트가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대해 감명을 받았다. 몇 사람의 콘트롤러가 우리들의 임무가 무사히 끝나도록 성원해주는 소리 이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제67정찰비행단에 소속하는 RB-26정찰기가 무선넷트에 체크인하여, 우리들의 뒤를 쫓아 폭격라인을 넘는 것을 들었다. 임무는 종료되었지만 '훗하임' 씨를 내려놓기 위해 일단 K-14기지에 착륙한 우리는 또다시 이륙에 시간이 걸리게 되었다. 비행장 담당장교는 어떤 항공기라도 이륙시켜서는 안된다는 엄명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 사정을 설명하고 간신히 이륙한 우리는 35분 후에 K-8기지로 귀환하였다.

이 짧은 비행에서 나는 우리 이외에는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 하늘을 비행한다는 드문 기회를 경험하였으며, 그곳에서 처음으로 임무의 중요성에 새삼 놀라 충격을 받았다. K-8기지에 도착하자 활주로 끝에는 약 200여명의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차 기다리고 있었다. 그 중에는 '라베이리' 대령도 있었는데, 우리 일행은 그 자리에서 대령이 안고 있는 5명의 진짜 삼페인으로 건배를 들었다. 물론, 전원의 건강과 정전의 실현을 축하하며 …….

63

한국전쟁의 역사적 재조명과 교훈

이 선 호

한국시사문제연구소장



1. 문제의 제기

지난 1996년 3월 29일, 인민무력부 제1부장 김광진 차수는 중앙방송에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 남조선 문제는 군사적 힘에 의한 해결만이 남았다. …… 적들의 전쟁도발 책동은 심지어 우리의 최고지도부를 감히 중상하는 최악의 단계까지 이르렀다. 이제와서 문제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겠는가 말겠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데 있다. 우리 인민부대는 남조선 괴뢰들이 감히 우리조국의 한치의 땅, 한 포기의 풀이라도 건드린다면, 강력한 자위적 조치로 짓밟게 버릴 것이다.」란 소름이 끼치는 전쟁불사 선언을 했다. 북한군부의 제2인자로서 국방차관격인 그는 5일 후 「전쟁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임무를 포기한다」고 전쟁협정의 자의적 무효화선언을 한 연후에, 4월5일부터 연3일간에 걸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

측지역에 중무장병력 1개 중대규모를 투입하여 무력시위를 자행한 것이다.

한마디로 한반도는 현재, 탈냉전 이전의 냉전이 아니라 냉전이전의 열전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 세계유일의 분단국인 남북한이 세계최고 밀도의 군사력으로 첨예한 대결을 벌리고 있는 화약고나 다름없는 곳이다.

북한은 전세계에서 여섯나라 밖에 남지않은 사회주의 국가들(북한, 쿠바, 캄푸치아, 베트남, 러시아, 중국)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를 사수하고 있는 신세계질서에 역행하는 반동국가(Backlaching State)이며 테러집단임은 물론, 머지않아 세계 11번째의 핵무장국가가 될지도 모르는 무서운 존재이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은 세계 5위의 다병력 보유국이며, 세계 1위의 비정규전능력, 세계 3위의 화학전 능력, 세계 4위의 잠수함 다보유국(비공식 집계 40척)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김일성의 권자세습에 의한 유혼통치체제로 과도

기의 군사대권을 장악한 김정일은 4년째 국방위원장직을 맡아 인민군 총사령관으로서 특유한 카리스마로 백전노장들을 다스리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당과 정치권력을 완전히 독점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의 휴전선의 무력행위나 4자회담의 거부반응 등은, 모두가 김정일의 국가대권 원전장악을 위한 군사력의 정치적 기반확대를 노린 계산된 군사적 영향력 극대화 조치였던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소프트랜딩을 지향한 당근정책이 11월의 대선시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견한 나머지 고슴도치전략을 펴면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한다는 명분아래, 한국을 미국과 이간시키면서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정치·경제적 실리를 추구함과 동시에 숨겨놓고 있는 카드, 즉 주한미군의 완전철수, 한국에 대한 핵우산 철거, 한·미 상호 방위조약 폐기 등을 단계적으로 내놓고서 한국을 고립무원의 상태로 밀어부치면서, 핵무기 잠재보유국이란 간판을 배수진으로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회복하려고 발악할 것이 뻔하다.

지난 40여년간 한반도에 제2의 6·25전쟁이 발발하지 않은 것은 한마디로 한반도에 전략적 세력균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남북한 당사국의 군사력 불균형을 주한미군이란 지렛대가 균형작용을 해왔기 때문이며, 지금도 그러하다.

피비린내 나는 1,000일간 지속된 한국전쟁을 치른 대가는 한국군을 포함한 참전 16개국 군대의 20만명이란 많은 목숨을 앗아가고, 38선이 약간 동서로 조정된 휴전선을 중심으로 하여 쌍방의 총소리가 멎은 상태로 체결된 휴전협정 뿐이었다.

그러나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우리는 기전의 경제건설을 이룩하여 40여년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갖게 되었다. 한편 북한은 세계 유수의 군사대국으로 치닫고 남한을 위협하면서도, 식량난과 체제붕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잊혀지고 있는 한국전쟁을 재조명해 봄으로써 그 속에서 진정한 교훈을 되찾고, 우리의 현실적 생존과 미래의 번영을 위한 건전한 처방을 모색하여 안보불감증이 만연된 소용돌이의 안보환경 현실을 뚫고 나가 대망의 세계화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

2. 한국전쟁의 세계역사적 회고

미국과 한국은 맹방으로서 금세기 중반이후 치러진 양대전쟁인 한국전쟁과 월남전쟁에서 공산주의자를 격멸하는데 함께 손잡고 싸웠다. 특히 미국은 한국을 북한의 침공으로부터 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와 민주화의 기적을 성취하는데 초석이 되어준 것이다. 그리하여 1953년에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하나의 커다란 전쟁이던 냉전을 승리로 이끄는 데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냉전이 종식을 고한 다음인 지난해 7월, 한국전쟁이 끝난지 23년만에 미국은 수도 워싱턴에 세워진 웅장한 한국전쟁 기념비의 제막식을 가졌다. 기념비에 각인된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란 의미심장한 문구 그대로,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자유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던가를 되새기게 한다. 나라잃은 베트남인들은 한국전쟁 기념비에 비하여 초라한 모습의 검은 대리석에 전

한국전쟁의 증언과 그 교훈

사자의 이름만 새겨진 월남전 기념비를 제막할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 참석을 거부했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미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VIP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최근의 이 장면과 대조적으로 관찰했을 것이다. 이는 자유를 잃은 자의 슬픔과 아픔을 동시에 통감하게 했다.

한국전쟁 기념비는 잊혀져가고 있는 ‘한국전쟁을 어떻게 싸웠으며’, ‘그 전쟁의 역사적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가르쳐 주는가’를 반성하도록 적적한 시기에 건립되었다.

불과 창군된지 2년여만에 한국군은 한국전쟁에 투입되어 전 근대적인 장비와 불완전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용전분투하였음은 당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던 맥아더 장군의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고별사의 일단에서 충분히 입증되고도 남음이 있다.

「한국군의 늠름한 용맹성은 이루 형언할 수 없다(The magnificence and courage of Korean soldier Defier decription)」

북한이 남침했던 1950년 6월 25일, 트루만 대통령은 용감하고도 결정적인 결단을 내려 한국을 구출했다. 유엔과 의회의 동의도 받기 전에 전투부대의 투입결정을 내렸던 바는 높이 평가되었지만, 전쟁이 장기화되자 그의 대통령으로서의 인기가 하락되자 결국 재출마의 뜻을 포기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때 천우신조로 유엔 안보이사회에서 소련이 중공을 상임이사국으로 넣어주지 않은데 항의하여 불참함으로써, 미국은 거부권 행사가 없이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한국에 전투부대 파병을 전원일치로 의사진행을 속행함으로써 트루만의 선행결단을 무리없이 후속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오늘날 미국 시민

들은 트루만 대통령을 워싱턴과 링컨에 못지않은 위대한 지도자로 존경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전쟁은 세계사적 맥락에서 볼 때, 중추적인 역할(Pivotal role)을 하였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한국전쟁의 주역이었던 미국과 한국, 그리고 참전 15개 맹방들은 냉전을 승리로 장식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을 침공한 북한의 정체가 들어남으로써 전세계가 공산주의에 대하여 긴장하게 되었고, 서방측을 잠에서 깨게 했던 것이다.

북한이 침략의 마수를 뻗치기 전까지는 NATO는 연합군 사령부조차 형성하지 않은 단순한 정치적 제휴체에 불과했던 것이다. 한국전쟁은 얼마나 신속하게 냉전이 열전으로 변환할 수 있는가를 시범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동맹국 지도자들로 하여금 NATO를 진정한 군사동맹 조직으로 전환시키도록 촉진시켰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미군의 철수가 잘못이었음을 깨닫게 하고, 군사력의 현시(Presence)를 더욱 강화시켜 그후부터 오늘날까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계속 현장에 주둔시키도록 하여 지역안정을 유지하는 확고한 정책적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었다.

냉전에 있어서 서방측의 승리와 더불어 한국의 경제·민주적 기적성취는 한국전쟁에서 산화한 한·미 군인들의 고귀한 피의 대가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잊혀져 가는 한국전쟁,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임을 신세대들에게 세계사적 맥락에서 깨우쳐 주어야 할 것이다.

3. 한국전쟁의 올바른 인식

가. 한국전쟁은 누가 일으켰는가?

최근 탈냉전시대의 개방추세에 발맞추어 한국전쟁과 관련된 회고록, 비밀외교문서, 공산권 인사들의 증언 등으로, 스탈린의 사주에 의한 김일성의 치밀한 남침계획에 따라 한국전쟁이 치러졌음이 입증됨으로써 그 동안의 좌경사향에 심취한 회색분자들의 북침설, 남침유도설 또는 무력충돌격화설 등은 40여년만에 비로소 논증불가한 한갓 가설에 불과함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북한의 남침을 결정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는 뭐니뭐니해도 후루시초프의 회고록이라고 하겠다. 1974년에 출간된 이 책은 후루시초프 자신이 직접 썼거나 구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의 제2권에 한국전쟁을 증언하는 다음과 같은 대목은 우리의 관심을 끈다.

「1949년말 내가 우크라이나에서 모스크바로 전근되었을 때, 김일성은 스탈린과 협의차 대표단을 이끌고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그들은 남한을 침공하고 싶어했으며, 전쟁이 시작되기만 하면 남한에는 내란이 발생할 것이고, 북한의 지배 세력이 남한을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스탈린은 김일성의 이러한 생각에 반대하지 않았다.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이 문제를 숙고한 다음,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다시 오라고 설득했다....

그 후 김일성은 세부계획을 갖고 다시 모스크바로 왔다. 김일성은 전쟁의 승리가 절대적으로 확실하다고 보고했다. 이때 스탈린은 두가지 의문을 제기했는데, 하나는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고, 다른 하나는 모택동의 동의 여부였다.

이에 대하여 김일성은 미국이 개입하기 전에 전쟁이 조기엔 끝날 것이며, 모택동이 이 계획에 승인했다고 대답하자, 스탈린은 모택동에게 확인한 결과 김일성의 의견과 일치함을 알았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탱크, 야포, 소총, 기관총, 공병장비 및 대공포를 지원해 주었으며, 전쟁은 예정된 시기에 개시되었다.」

한마디로 당시 소련은 북한의 남침의도를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필요한 군사적 수단을 제공했으며 전쟁을 원방통제했음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나. 중공군은 왜 참전했으며, 그들의 개입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한국과 유엔군이 파죽지세로 북한을 진공하던 1950년 10월 9일경, 중공군은 벌써 압록강을 건너 남하하기 시작했다.

유엔군이 본격적으로 38도선을 돌파했던 10월 7일보다 4일이나 앞선 10월 3일, 소련은 「만약 유엔군이 38도선을 넘는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란 중국의 물음에 대해 묵묵부답이었다. 중국은 「전쟁에 개입할 것이다」란 단정적인 경고를 북경주재 인도대사 파니카를 통해 미국측에 전달했으나, 미국은 주은래의 이 발언을 허세적 외교제스처로 받아들이고 즉각적인 반응을 유보하고 있었다.

모택동선집 제5권에 보면, 실은 모택동인 1950년 10월 8일에 한국전쟁 참전지시를 전군에 하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루만은 이를 모르고 동년월 19일에 웨이크섬에서 맥아더와 전략회담을 갖고, 맥아더의 중공개입 불가 주장을 전제로 확전결의를 굳혔던 것

한국전쟁의 증언과 그 교훈

이다.

그리하여 팽덕회의 지휘아래 중공군 제3 및 제4야전군은 10월 중순부터 약 40만의 병력으로 압록강을 연한 중국국경 부근에 집결, 인해전술로 남하하기 시작하였다. 중공군의 참전목적은 모택동의 회고록에서 「조선인의 해방전쟁을 지지하고, 미제국주의자와 그 앞잡이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 그리고 중국 및 동양인민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중국 인민의용군은 속히 조선으로 진군하여 동지들과 함께 침략자들을 무찔러 승리를 쟁취할 것을 명령한다.」라고 한 그대로였다.

1951년 1월 4일 드디어 중공군에 의해 서울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고 전선은 평택-안성-장호원-삼척선으로 남하하였다. 그러나 1월 중순부터 유엔군의 반격으로 주도권을 회복, 3월 15일에 1·4후퇴로 빼앗긴 서울을 재탈환하고, 3월 30일에 38선을 밀고 올라가 현 휴전선을 중심으로 전선의 교착상태를 이루어 2년여에 걸친 일전일퇴의 공방전을 벌이다 1953년 7월 27일 휴전에 들어갔던 것이다.

결국 중공군의 개입은 우리 겨레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앗아간 것이다. 중공군이 아니었더라면, 맥아더가 예상한대로 1950년 추수감사절까지 전쟁이 끝나고, 크리스마스때는 미군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한반도는 통일되고 김일성은 중국에 망명정부를 세웠을지도 모른다.

맥아더는 끝까지 공산군을 괴멸시키고, 한반도는 통일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완고한 야전지휘관다운 리더십을 발휘했으나, 불행히도 중공군의 개입을 자초하게 되고 결국 트루만으로부터 해임당하였으며, 한국전쟁을 무승부로 끝나게

한 장본인이 되었다.

4. 한국전쟁의 교훈과 우리의 결의

한국전쟁은 세계전쟁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1,000일간의 공방전으로서, 인구 6명당 1명꼴인 무려 500여만의 인명손실과 1천만의 이산가족을 낸 처참한 동족상잔의 혈전이였다. 이제 한국전쟁 46주년을 맞으면서 제2의 6·25를 예방하고, 한반도의 분단상황을 극복해야 할 우리의 절박한 당면과제를 재인식하고 전쟁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지금도 한반도에는 세계에서 가장 밀도 높은 170여만의 군사력이 남북으로 갈라져 무력대결을 벌리고 있으며, 이른바 김일성 유헌통치체제하의 북한은 탈냉전시대 도래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의 필승불패를 부르짖으면서, 식량난과 체제존속 위기에도 불구하고 대남적화야육의 망사를 버리지 않은 채 시대착오적인 테러집단으로 남아있다. 인류역사는 도전과 응전속에서 계속 전진하고 있으나, 공산주의자들의 역사발전 단계설은 이미 부정되었으며, 500만명의 한민족을 죽인 살인마 김일성은 죽었고,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체스크도 불행한 죽임을 당하였다. 한국전쟁이 우리에게 준 진정한 교훈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고, 악을 멸하여 정의와 진리를 자유케 한다는 사실이다. **증언**

아직 끝나지 않은 6월의 비극

나 시 중

중령/제3591부대 표준화평가실



6.25 발발 46년, 이제 우리 국민들중 이 비극을 체험했던 이가 얼마나 되는가? 해마다 6월이 오면 한번쯤 상기해 보는 6·25가, 이젠 단순히 역사적 사실로만 기억되고 있지는 않는지 의심해 볼 때다.

김일성 사후 이내 몰락한 것만 같았던 북한이었고 그로 인하여 조만간 통일이 될 듯한 느낌도 주었지만, 그러한 생각이 단지 통일을 회구하는 우리 국민의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은 아니었는지 모르겠다. 오로지 몇 십년을 전쟁만 준비해 왔던 북한이고, 이래서 이따금씩 내뱉는 한반도 전쟁 운운의 도발적 발언이 결코 우리가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전쟁이란 승패의 여부를 떠나 쌍방 모두에게 커다란 상처와 피해만 안겨준다는 것이, 역사가 가르쳐 준 냉혹한 교훈임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의식은 어떠한가?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에 성급하게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 모두의 통일준비는 얼마나 되어 있는가?

국가간 통합이 상호대등한 균형상태보다는 한 국가가 상대국을 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월등한 국력을 보유하고 있을 때, 훨씬 더 용이하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는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현실이 기아에 허덕이면서도 전쟁준비에만 광분해 온 북한을 흡수통일할 수 있는 상황인지는 냉정하게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된다. 1990년 10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서로 얼싸안고 그토록 기뻐했던 독일인들이 "기쁨은 짧고, 고통은 길다"라는 말로 통일이후의 생활에 대해 고백했었다. 1989년 무역흑자

6월을 맞는 우리의 생각

820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제일의 무역대국이었고 1인당 GNP가 2만 달러를 훨씬 넘었던 서독이었지만, 낙후된 동독을 흡수통일하면서 서독은 증가된 과세에, 동독은 상대적 빈곤감에 4~5년의 후유증을 겪어야 했던 사례를 우리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부유한 서독이 북한보다 상대적으로 월등한 동독을 흡수하고서도, 통일을 후회하리만큼 그 후유증이 컸다는 사실이 결코 남의 얘기만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실례로 1993년도의 남북한 경제력을 비교해 보면 북한의 경우 GNP는 16배, 1인당 GNP는 8.3배나 뒤쳐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계수상으로도 독일의 경우보다 그 후유증이 결코 작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다. 더구나 우리와 독일의 경우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독일은 쌍방이 동일한 통일이념을 가지고 그 희망을 실현시킨 것이지만, 우리의 경우는 남북한이 너무나도 상이한 통일논리를 가지고 수 십년을 살아왔다는 것이다.

기아와 빈곤에 허덕이고 국제적 고립아가 되어버린 북한이 머지않아 자멸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세계가 예견하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통일형태는 북한의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통일의 주체인 우리 국민의 자세는 너무 안이한 생각에 젖어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무엇보다도 통일만 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에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며 입벌리고 있는 환상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현실적이고 냉철한 판단으로 수 십년간 벌어진 한민족의 이질감 회복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절대로 이완되서는 안될 것이 우리 모두의 안보의식이다. 북한정권은 우리와 동일한 '통일'이라는

용어를 쓰면서도, '적화통일'이라는 실제 의미로는 분단이후 지금까지 결코 한치의 변함이 없었다. 남북대화가 성사된 이래 우리는 곧 통일이 될 듯한 분위기에 몇 번이고 설레었으나, 그것은 단지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의 한가지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길으로는 각종 평화협정 조항에 승인하고 악수를 청하면서, 언제고 대남도발의 기회를 노려왔던 것이 바로 거짓웃음에 가려진 북한의 본모습이기 때문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만불시대에 돌입하며 선진국 대열로 박진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휴전선 비무장지대가 붕괴되려는 숨막히는 긴장어느 정도의 위기로 느끼고 있는지, 국방은 그저 군인에게만 맡겨진 울타리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는지 걱정스럽다.

어느 국방칼럼에서 이솝 우화중 "늑대와 양치기"를 비유하여 국민의 안보의식을 꼬집은 글을 본 적이 있다. 양치기 소년이 "늑대"라고 외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삼이며 곡괭이를 들고 달려왔으나 번번히 늑대를 발견할 수 없게 되자, 양치기 소년을 거짓말쟁이로 인식하여 정말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큰 화를 입었다는 이야기……。 이 글에서 이솝이 의도한 것은 잦은 거짓말이 주는 불신을 교훈삼기 위함이었지만, 사실 늑대라는 동물은 청각이 사람보다 50배나 발달한 동물이기 때문에 마을사람들이 달려올 때는 당연히 왔다가도 도망을 갔을 것이라는 사실을 미처 생각 못한 것 같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상황을 우리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그간 수차례의 대남도발 의도를 보도했을 때 처음에는 국민 모두 대북상황을 주시하며 이에 대비하는 모습이였다. 그러나 어느 정도 6·25의 상처도 아물고, 기억에서 멀어져간 지금은 숨



막히는 대북상황 보도에도 그리 큰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조만간 통일이 될텐데 괜스레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며, 마치 군인을 양치기 소년 정도로 취급하여 무시해 버린다면 언젠가 큰 화를 입을 것이 자명한 이치라고 생각된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달되고 국가위상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도 우리 국민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가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로 북한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같은 곳이라는 사실이다. 동작동 국민묘지가 비좁아 대전에 국립묘지를 만들고도 어느새 뿔뿔이 들어차 버린 호국영령들의 슬한 묘비가 우리의 현실을 말해줄진데, 이 땅에 또 다시 비극이 있을 수 없다는 큰 책임감을 가진 군인으로서 계절의 변화에 어김없이 찾아온 6월이지만 다른 해보다 더 굳은 사명감을 느끼며 멀리 북녘을 응시해 본다. **승권**

6월의 문턱에서

박 희 현

중위/제3252부대 151대대



우리의 어깨를 움츠리게 하고 마음까지 굳게 단계했던 초봄의 쌀쌀하던 기운도 5월로 접어들면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언제나 반복되는 변화지만 어김없이 찾아주는 계절이 때론 반갑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젠 집으로 향하는 길목 어디에서나 보게 되는 차창밖 풍경은 봄기운을 흠뻑 간직한 채, 그 여유로움과 풍요로움을 뽐내는 듯하다.

그러나 이런 평온함도 지난 얼마간 계속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된 북한의 동향때문에 제대로 느끼지 못한채 그동안을 보냈던 것 같다. “한반도 긴장고조”, “전쟁 징후” 등의 문구가 난무하며 우려의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 상황속에서 현재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는지 일면 머릿기사로 보도되지는 않지만 약간의 긴장상태는 지속되고 있으리라.

그러면 이에 따른 나의 자세와 마음가짐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았다. 전후세대라 지칭되는

26세의 난 사실 전쟁을 직접 경험한 분들의 우려와 불안, 긴장 등을 이해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그 당시의 참담했던 현실, 힘겨웁게 살아온 그들의 인생을 알지 못한다. 단지 학교에서 배우던 기억, 교과서에서 보던 참상들, 6월이 되면 질세라 방영되는 전쟁 다큐멘터리 등이 내가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전부라 할 수 있다. 즉, 간접경험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런 마음가짐이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지어, 과장되어진 모습을 지울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기성세대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우리도 그대로 느껴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껏 6월을 맞으며 보여왔던 태도는 어떠한가? 6월의 기억을 되새겨 그때의 상황이 다시는 재현되지 않길 바라며 주먹을 불끈 쥐고 다짐에 다짐을 했다. 그 어려웠던 순간들을 돌아보며 각오를 새롭게 다지길 바랐다.

그러나 언젠가 TV를 통해 대학생들의 의식구조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들의 인터뷰를 들어보

며 여러가지 생각을 했다. 나와 얼마 차이나지 않는 또래의 공통된 생각 - 어쩌면 방송국의 일방적인 견해일 수도 있으며, 그것이 방송이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힘일 것이다 - 을 들어보고 곰곰히 되짚어 보았다. 그들의 한결같은 답의 끝은 전쟁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던 것이었다. TV에서 그렇듯 심각하게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과연 그들은 무엇때문에 이 나라의 어디에서 어떤 부분을 보고, 찾았길래 그렇듯 확신한 것일까? 이제 겨우 조종 총장을 가슴에 달고 자신감에 차 있는 나에게, 없는 무엇이 그들에게 있는 것일까 한번 찾고 싶었다. 많은 시간 생각했고 고민하면서 답일수 없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리고 나의 이 결론이 그들의 생각 어느 한쪽에 있을 것이라 믿고 싶다. 소위 소수에 의해 과대포장된 잘못된 신세대의 모습이 아닌 진정 자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진짜 신세대의 눈에는, 이 나라의 발전된 모습과 더욱 발전할 수 있으리라는 신뢰가 있었을 것이다. 그동안 내면의 성장없이 비대해진 사회의 모순된 구조가 하나 둘 무너져 내리고, 새로운 기반 위에 다시 일어서려는 모습이 비춰졌을 것이다. 그 다져져 가는 기반위에서 이전보다 나은 나라의 설계자가 자신들임을 보았을 것이다. 서독

의 흡수통일, 무력이 아닌 경제력과 진정한 자유에 대한 우월의식이 이룬 작품을 그들은 분명 보았다. 공산권의 붕괴를 그들은 보았던 것이다.

누군가가 내게 와서 너의 이 모든 말이 억측이라고 말한다면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생각에서 나온 결론이기에. 하지만 나는 나름대로의 결론속에서 우리 모두의 행보를 그려본다. 그들의 믿음에 금이 가지않도록, 그들의 신뢰가 더욱 확고해지도록, 이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하나씩 새로운 기반위에서 새롭게 변모해가고 있다. 우리 군 또한 시대의 변화에 적응해야 할 것이다. 첨단화 되어가는 군으로, 과학의 발달로 이룩된 첨단 무기체계를 운용하며 그들에게 한층 더한 믿음을 주어야 할 것이다.

6월은 앞으로도 계속 기억될 것이고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이제 6월에 대한 시각을 부정적 측면이 아닌 긍정적 측면으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등문**



만단개유(萬端改諭)

전 호 명

준위/제3515부대 정비과



작년 11월 공중전투지원 평가대회를 광주기지에서 개최할 때의 일이다.

그 곳에서 35년 동안 군대생활을 하고 전역한 선배 한 분을 만난 적이 있다. 그건 우연이 아니라 수소문해서 내가 찾아갔던 것이다.

그 선배는 남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간 분이다. 어떻게 보면 고지식한 사람이라 할 수도 있지만, 좋은 방향으로 돌이킨다면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다. 보직에 연연하지 않고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였을 뿐이다. 그래서 그런지 산업시찰 한번 다녀온 적도 없고 수상의 기회를 가진 바도 없다. 보기에 따라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같이 근무한 적이 없으니 신상에 대해 아는 바도 없다. 하지만 몇 번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진솔한 마음의 자세에 이끌려 호감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나눈 이야기인 즉, 여러 가지를 타이르는 내용이었다.

그 선배는 전역을 하고 곧 출판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다. 35년간 군대생활을 하였으니 직장 생활에 이골이 나기도 했지만, 막상 군복을 벗고 집에 있을려고 하니 좀이 쑤셔서 그냥 지낼 수 없었다. 틀에 박힌듯 출·퇴근에 얽매어 있을 때는 잠이나 실컷 자고, 경승지를 여행하면 세월가는 줄 모를 줄 알았는데 정녕 전역을 하고 집에 있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자고 싶어하던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 한밤에도 일어나 먹을게 없는가 뒤져 보게 되고, 어디를 다녀올까 해서 나서보면 60세도 훨씬 넘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쫓아다니는 걸 보며 미안하고 송구스런 마음이 들어서 무턱대고 다닐 수도 없더라. 나이 56세로는 경로당 부근에 얼씬거리지도 못하고 청년대접을 받아야 하니, 군대 있을 때 노병대우는 눈뜨고 봐도 찾을 길이 없어서 취업을 다시 하게 되었다.

막상 취업을 하고 나니 군대에서 항공기 정비사 노릇만 했는데, 직장은 정비와 거리가 먼 출

판사 교정업무. 어떻게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뛰어들긴 했지만 도태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밤늦게까지 남아서 관련도서를 찾아보면서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법이었다. 사회에서 대학을 졸업하면서 전문분야를 전공한 젊은이들만이야 못하지만, 나이가 지긋한 50대들의 일반직이야 따라가지 않으려 했는데 그곳에서 생각에도 없던 복병을 만날 줄이야.

회사에 3년 먼저 들어온 형편이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입사한지 한달쯤 되었을 때 저녁이나 같이 하자고 해서 따라나선게 화근이었다.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두살아래란 걸 알고는 말을 놓았더니 기분이 나쁜 듯 시무룩해 하더라. 이튿날 출근해서부터는 더러 내놓고 감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대책이 있을 수 있으랴. 포기해서는 안되겠다 싶어 시키는 대로 일을 했지만 하루 이틀도 아닌 불편한 관계만 유지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선배가 저녁식사에 초대를 하였는데, 별로 좋지 않던 감정이 노출되면서 목소리를 높이기까지 이르렀다.

그런 일이 있은 후 회사에서 한동안 헛소문과 음모에 시달리게 되었지만 꼭 참고 지냈더니,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오해가 풀리고 제자리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였다.

그것이 우리가 모르는 세상인지도 모른다. 군인의 길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활주로에서 항공기의 이륙 소음이 천지를 진동해야만 내가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냥 조용하기만 하면 생기자차 떨어지던 장구한 세월의 뿌리가 아니던가! 그러한 분들이 새삼스럽게 사회에 적응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

“자네도 이미 30년 군대생활에 잔뼈가 굵었으니 이르는 말인데 공군만한 데가 없어. 인정이 있잖아. 잘못해서 비틀거리도 밀어 뜨리지 않고, 붙잡아 주고, 넘어지더라도 짓밟지 않고 일으켜 세워주는 인정이 있는 곳이 공군이야.”

과연 그러한가! 지난날 그러하였던 우리들의 자리가 지금 훼손되어 가는 것은 아닐까? 머릿속으로 진달래 붉게 피던 고향의 푸른 언덕이 떠오르며 가물가물 현기증이 밀려오고 있었다.

첫째로 언제나 관용을 베풀게나.

나쁜 마음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악용하려 하는 상대가 아니라면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게나. 그건 무능한 것이 아니고 위선도 아니야. 인성(人性)이란 상대가 있음으로 해서 의지하며 사는 건데, 각박하게 굴어서야 어떻게 생활의 맛을 느끼며 여유를 가질 수 있겠는가! 사람 인(人)자를 보면 서로 기대어 살게끔 되어 있지를 않는가! 이끌어 주고 받들어 주는게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좋은 상부상조가 아니겠는가.

둘째로 인생을 조금 영위했다고 해서 자기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들게하지 말일이야.

흔히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던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 애들은 형편없어.」

바꾸어 말하면 자신이 걸어온 길 보다 더 좋은 형편에 있으면서도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때만큼 일을 못한다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이라고 알보는 말인데 옛날과 지금은 시대가 틀리다는 걸 알아. 환경이 너무 바뀌었다는 걸 알아야 해. 자네 컴퓨터 사용할 줄 아는가? 신세대들이 우리를 보고 컴맹이라고 하지 않나. 모르는 사람들



이 웬 말이 많느냐는 뜻이야.

셋째로 비굴하지 말게.

나 하나 살자고 해서 남을 비방하거나 흔들지 말아. 사실 그대로를 말한다 해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남을 비방하는 비굴함을 보여서야 되겠는가. 유순한 사람들을 억박지르거나, 그렇지 않은 일을 그런 것처럼 조작하면 그게 오래 갈 줄 아는가. 진실은 밝혀지게 되는 법, 그래서 세상 이치를 대변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생각나는 구먼. 「물 흐르듯이 살라.」 「남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 자신은 오물을 뒤집어쓰게 된다.」

마지막으로 편가름을 하지 말게.

너는 내편이니까 잘 봐주어야 하고, 당신은 저쪽 패이므로 혼이 좀 나아 되지. 이런 일이 있다면 소름끼치는 경우가 아닌가. 편가름이 웬 말인가. 출신지역으로 나누고, 학연으로 나누고, 같이 근무를 했다고 해서 수근수근 상대 비방이나 일 삼으면, 그것이 버릇이 되어 입방아를 찧지

않으면 쪼미 쭈시게 되거든. 그러다 보면 음모가 생기고 싸움이 되는 법이야.

세상에 할 일이 많고 많은데 아무 보람도 없는 소요에 정력을 낭비해서야 되겠는가. 조용히 명상을 해가면서 밝고 건전한 군대생활에 작은 힘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순수한 자세로 기여하란 말이야.

이것이 모선배가 나에게 들려준 말이다.

올해로 6·25전쟁 46주년을 맞이하였다.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인식도 달라지고 생활수준도 향상되어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 공군역시 차세대 전투기인 KF-16C/D 항공기를 중심으로 창공의 역사를 일으키는 만큼, 이기와 자만을 버리고 참신한 기풍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선배가 후배에게 여러가지로 타 이르는 만단개유(萬端改諭)의 의미가, 새삼 끝없는 메아리가 되어 우리들의 다짐으로 솟아오르고 있다. **등근**

서해를 바라보며

신 경 주

병장/제8990부대 정작계



군에 입대하여 세 번째의 여름을 맞고 있다. 조만간 산뜻하고 현대화된 곳으로 터를 옮길 예정이지만, 아직은 낙후된 환경에서 또 한여름을 나아 한다는 사실에 산 정상 눈아래 탁 트여진 서해 바다는 유달리 시원스럽게만 보인다. 이번 여름만 잘 보내고 나면 가을엔 드디어 제대구나. 결코 짧다고만은 할 수 없는 30개월의 군생활을 시작하는 이등병 때보다, 겨우 한여름을 남겨놓고 지래 걱정하고 해이해져 있는 나를 발견하자 부끄러움이 물 밀듯 밀려왔다. 그래, 나만 군인의 신분으로 나라를 지킨 건 결코 아니다. 내 선배들, 그리고 그 선배, 또 그전의 어떤 분들……. 문득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던 시간이 어는 정점에서 머물자, 마치 불을 끼얹은 듯 얼굴이 붉게 물들고 조금 전 그 부끄러움 보다는 훨씬 큰 부끄러움과 죄송함이 엄습했다.

저 쨍쨍한 햇빛도 보기 어려운 북녘 땅에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말을 달리시던 내 아버지의 할아버지들, 겨우 되찾은 나라가 두 동강

이 나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켜줘야 했던 아버지의 아버지들, 그리고 여기선 느낄수 없을 정도로 지옥같이 더운 바다 건너 남의 나라 정글에서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워야 했던 우리 아버지들, 여기서 생각이 멈추자 나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었다. 아직도 적과 대치하고 있는 나라의 병사로서, 나는 그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안일했던가.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바다 끝과 하늘이 맞닿은 수평선에 해가 반쯤 걸려있고, 그 줄을 타고 온통 붉은 빛이 이글거린다. 마치 그 어느 때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던져야 했던 시기에, 활활 불타오르던 우리 산하를 보는 것 같다. 반만년 동안 우리의 긍지와 자부심이 되어왔던 조국, 이 작지만 소중한 땅덩어리를 지키기 위해 너무도 많은 젊음들이 미처 생을 불태워 보기도 전에 산화해야 했다. 누가 그들의 등을 떠밀었던가? 아니면 역사의 한 페이지에 영웅으로, 애국자로 남아야겠다는 공명심이었을까? 과연 나라면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 역사책 한 귀퉁이 몇

6월을 맞는 우리의 생각

줄을 차지하기 위해 수류탄 한 발만을 가슴에 안고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 적 탱크로 돌진할 수 있겠는가?

그건 부질없는 짓이다. 지금의 내가 우리 조상, 선배들의 희생을 숭고한 애국애족의 승화라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나의 한낱 공명심으로 인한 보여주기 위한 용기는 내 후손들에게 나의 죽음을 헛된 영웅심의 말로라 생각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렇다. 적과 싸워 기꺼이 한 목숨 불사른 그분들에게서 진정으로 내가 배우고 느껴야 할 것은, 빗발치는 적탄을 뚫고 돌격하는 그 분들의 멋진 모습이 아니라 그 때의 그 눈빛, 그 숨소리, 그리고 흘린 피 한방울 한방울에 스며 있는 영혼인 것이다.

우리의 전사에 기록될 큰 공을 세우고 장렬히 최후를 마쳐야 했던 젊은이들 중에는, 지금의 나보다 체력도 약하고 애국애족에 대하여 뚜렷하게 정리된 생각도 가지지 못한, 어찌 보면 후세의 우리가 영웅, 전사로서의 기릴만한 외적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당장 내 한 몸 던져서라도 내 조상이 묻힌 선산, 일밖에 모르시는 부모님, 그 뻘안 살결 한 번 허락하지 않은 순이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그들에게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는 용기를 주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 소중한 주변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땅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다. 그토록 사랑하는 부모형제, 터전, 연인을 허락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이 아름다운 산하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다시 뼈를 묻음이 당연한 일 아닌가? 이러한 감사의 마음은 비단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젊은이, 모든 생명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 아직 긴장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과 피의 무서움을 모르고 자란 채, 어딘가에서 느슨한 팔로 총을 지탱하고 있을 전우들이여! 이전에 조국을 지키다 먼저간 님의 피와 그토록 지키려 애쓴 이 땅의 고마움을 생각한다면, 지금 흘리는 땀 한방울쯤은 하찮기 짝이 없는 것임을 명심하자.

마음속으로 그렇게 외치고 나서 집중한 눈 앞의 광경은 어느덧 해는 높이 떠, 온 하늘을 향해 빛을 떨치고 있다. 그렇게 밝은 서해바다와 하늘을 가로·세로 획을 나누어 이 땅의 생명의 수만큼 나누어 본다. 그리고 내가 알고 사랑하는 이들의 수만큼,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킬 넓이를 헤아렸을 때 온 하늘의 넓이만큼 광활하게 커진 내 가슴을 느끼며 아랫입술을 살면서 깨물어 본다.

이 곳에서 수호해야 하는 철벽 서해의 영광을, 한 물결이 바위를 때리고 날아와 느껴지는 바닷물보다 더 짝조름한 내 땀 냄새에서 느끼며 뿌듯한 웃음을 지어 본다. **등근**

6월이면 생각나는 사람들



이 희 호

5급/제2762부대 40보급장

요즘 내생활 주변에 건강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성인병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생기는 것을 보니 이제는 나도 신(?) 세대이구나 하는 隔世之感이 실감난다. 흔히 사람들은 “젊을 때는 희망에 살고 늙어지면 추억에 산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생활의 화제 꺼리는 늘 추억담들이다.

옛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조그만 한 건축 내장재를 생산하는 산업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의 일이다. 고교 선배 G는 일찍 군대에 들어가 곧 직업군인의 길을 택했다. 그 당시 산업체에서 근무를 하였던 나로선 일찍부터 좋은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흰철한 키에 제복을 입은 멋진 군인인 그가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그는 직장에서도 근무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상관인 사위를 삼을 정도로 인간관계 형성도 원만하였고 특히 나와도 소중한 인연을 오래토록 유지했는데, 음악에 남다른 소질이 있어 학창 시

절에 트럼펫을 가지고 고향 뒷산에서 악기를 다루면서 같이 활동을 하였던 인연 때문이다.

내가 군 입대를 하고 몇 년간 우리는 소식 없이 지내다가 그가 불행한 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00작전 임무 수행중에 중상을 입고 난 후 몇년을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하였지만, 척추 마비로 하반신을 못쓰는 지체 장애자가 되어 휠체어를 타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만나게 되었다.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승승장구’ 기대를 걸었지만, 그의 인생은 너무 달리 산산조각이 나 버렸다.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많은 갈등 속에서 수차례 삶을 포기도 했으나, 아내의 극진한 보살핌과 주변 사람들의 관심으로, 비교적 빨리 마음에 안정을 찾도록 복잡한 시내보다는, 가족 모두가 고향 시골에서 내려 왔다는 이야기」



생계는 보훈 가족으로 처리가 되어 매월 정부에서 지원되는 일정금으로 생활에 별 어려움이 없었으나 점차 아이들이 성장하고 학비 부담이 커지자 집 밖을 모르는 부인이, 이제는 인근 산업 공업 단지에서 억척같이 일하면서 생계를 꾸려가는 그녀의 모습이 고맙기도 하거니와 대견스러웠다.

갑자기 신체적인 불구자가 되고 보니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러다가 차츰 신문사나 방송국으로 투병기를 적어, 채택된 고료를 받아 자녀들에게 학용품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가 있어 그런대로 삶에 적응을 빨리 하게 되었다.

이제는 도장을 새기는 기술을 익혀 꽤 괜찮은 수입으로 경제적으로 별 어려움이 없이 단란하게 살아가는 친구를 보면 대견스럽다. 이처럼 우리 이웃에 어렵게 살아가는 보훈 가족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보훈의 달인 6월이 되면 어렵게 살아가는 고

등학교 선배처럼 우리 이웃에는 나라를 위해서 몸 바친 분이나, 또는 아직도 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게 된다.

6·25가 일어 난지도 어언 반세기란 세월이 지나갔지만 그때 죽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부상당한 사람들이 아직도 대구 시내 보훈병원에서 1백 40여명이 아직도 아물지 않는 몸과 마음의 상처를 가누면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만큼 이라도 잘 살고 있는 것도, 모두가 고귀한 생명을 바친 선현들의 은덕과 보훈자들이 희생적인 애국심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즈음 마스크에서 북한군의 심상찮은 보도에 6월의 우리 다짐은 아직도 병원에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두번 다시는 이런 비운을 겪지 않도록 각자가 맡은 임무에 충실하면서 정신적 재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복귀의 허튼 수작이 있다면 기필코 초전박살을 내어야지! **등문**

공/군/논/단

- 공군 무기체계 획득 관리규정의 신규제정과 그 의의
- 『세계일류 정예공군』을 건설하자
-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전자전
- 21세기를 향한 방공포병 발전방향

공군 무기체계 획득 관리 규정의 신규제정과 그 의의

유 영 홍

대령/제2762부대 41보급창



1. 제정배경

울곡사업(현 방위력 개선사업) 및 군수조달분야의 제도 및 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94년 1월 국방부에 발족된 국방제도개선 연구위원회는 선정된 과제 ○○○건에 대하여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공군에서도 국방제도개선 공군 연구위원회를 구성, 공군 무기체계 획득관리규정의 신규 제정을 포함한 ○○건의 과제를 '95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한 바 있다.

무기체계 획득관리규정은 당초 국방부 훈령 431호로 발령되어 시행중에 있었으며, 국방부 제도개선 연구위원회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1차 개정 작업후 '95.3.26. 훈령 475호로 발령되어 일부 개정 내용을 잠정 시행하다가, 최종적인 개정 결과인 훈령 531호는 '96.1.13일부로 발령되

어 시행중에 있다.

국방부 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제3장에서 상술하므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지만, 국방부 규정과는 별도로 공군 무기체계 획득관리규정을 제정하게 된다는 국방부 무기체계 획득관리정책의 과감한 변화로 통칭되는 군으로의 권한 위임사항이 대폭 발생하였기 때문이었다. 즉, 군의 소요제기 기능 부여, 일부 무기체계 기종결정 권한의 군 위임, 종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던 업체주도 연구개발사업의 군 위임, 집행위임된 사업의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위원회의 군 운영 및 사업승인 권한 부여 등 종전 군 자체적으로 수행하지 않던 업무를 군이 수행하게 되므로써, 군 내부적인 업무체계 정립 및 부서별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고,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는 규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공군

무기체계 획득관리규정(공규1-4, '96.2.20)을 신규 제정하게 된 것이다.

2. 제정방향

공군 무기체계 획득관리규정은 상위 규정인 국방부훈령 531호를 근거로 하여 그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국방부에서 군으로 권한 위임된 각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제반절차를 구체화하고 특히, 무기체계 획득단계별 주관 부서 지정 및 책임한계를 명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무기체계 기종 결정을 위한 군 획득협의회 등 각종 협의회가 신설됨에 따라 그 기능과 운영절차를 규정함은 물론 향후 군이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업체주도 연구개발사업의 군 관리 업무절차를 확립함으로써 체계적인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전시무기체계 획득관리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필요한 무기체계를 적기에 획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하였다.

3. 국방부 규정 주요 개정내용(요약)

가. 해외도입 대상 무기체계의 범위 확대

개정된 규정에는 해외도입 무기체계의 경우 외국에서 야전배치중인 무기체계로만 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무기체계 획득기간의 장기성을 고려시 획득후에는 진부화될 가능성이 상존하였으므로, 신규정에는 전력화 시기를 고려하여 외국에서 배치운영이 확실시 되는 장비도 대상에 포

함시키므로써 선정의 폭을 확대함은 물론, 진부화를 방지 할 수 있게 하였다.

나. 연구개발단계 축소 및 업체주도 연구개발 관리기능 조정

연구개발단계를 기존 5단계(체계개념연구, 탐색개발, 선행개발, 실용개발, 초도생산)에서 3단계(체계개념연구, 탐색개발, 체계개발)로 축소 조정하므로써 의사결정 및 사업추진 절차를 간소화 하도록 하였고, 21세기 기술 집약형 군사력 건설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던 업체주도 연구개발사업 관리기능을 군으로 이관 하였다.

다. 기술획득 및 협상여건 강화

독립된 획득방법으로 되어 있던 기술도입생산을 해외도입 방법에 포함하여 기종 결정시까지 직구매 방법과 경쟁관계를 유도하므로써 협상시 가격 및 기술이전 수준 등의 협상여건을 강화토록 하였다. <연구개발, 기술도입 생산, 해외구매 → 연구개발, 해외도입(기술도입생산, 직구매)>

라. 요구운영능력서 확정단계 추가

종전의 개념요구능력서(ROC1), 정량화 요구운영능력서(ROC2), 단계에서 확정 요구운영능력서(ROC3) 단계를 추가하므로써 정량화 요구운영능력서(ROC2)를 운용시험평가 결과에 의거 최종 확정토록 하여 무기체계 채택의 근거를 제공토록 하였다.

마. 전시 무기체계 획득관리절차 신설

획득 추진중에 있는 무기체계의 전시전환 절차를 신설하여 당해사업의 진행정도에 따라 조

기추진 및 추진중지사업으로 구분하여 조기 전력화 되도록 하였고, 전시 신규 무기체계의 경우 최단기간내 획득을 위해 직구매로 추진토록 하는 등 도표와 같이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구분	평시절차	전시절차
소요제안	-소요군→합참	(좌동)
획득방법 결정	-국본 심의회 의결 -부서:합참	-단계생략(직구매 추진)
무기체계 선정	-대상장비:ROC 충족복수이상 선정 -결정방법:심의회	-부서:(좌동) -대상장비:ROC 충족 단일장비선 정 -결정방법:결재처 리원칙
시험평가	-자료에 의한 평가 원칙 -해외시험평가 및 국내시험평가는 필요시 제한적으 로 수행	-자료에 의한 평가 원칙 -관련자료 불충분 시는 제한적으로 수행 또는 생략가 능
기종결정 채택	-국본 심의회 의결 -합참 심의회 의결	-합참 결재처리 -기종결정 및 채택 동시수행

4. 공군 무기체계 획득관리규정 (공규1-4) 주요 내용

가. 문서의 구성

공군 무기체계 획득관리규정은 총 9장 16절 107조로 구성하였으며, 무기체계 획득 단계별로 대별하여 무기체계 소요기획 및 획득계획 수립 단계, 연구개발단계, 해외도입단계 순으로 문서

체계를 정립함으로써 국방부 규정과 유사한 형태를 유지하게 하였으며, 본 규정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운영될 각종 협의회의 참석인원과 기능 및 운영절차를 규정에 포함함으로써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나. 무기체계 소요기획 및 획득계획 수립 절차

○ 무기체계 소요제안

무기체계 소요제안은 ROC 1 작성 양식에 의거 각 부감실 및 전투발전단에서 수시로 제안할 수 있으며 도표의 절차를 거쳐 합참으로 제출된다.

업무명	업무분장	비고
소요제안	부감실 전발단	수시제안
소요제안서 작성 지시	기참부 (전략기획처)	
소요제안서 작성	전발단	
공군소요결정 / 합참제출 (무기체계협의회)	기참부 (전략기획처)	
장기소요결정 (ROI 확정) (무기체계협의회)	합참	합동중·장기 무기체계 기획서 확정

○ 개략 획득계획서 작성

해외도입의 경우 개략해외도입 계획서를 조달 본부에서 작성하나, 업체주도 연구개발의 경우

에는 개략 연구개발계획서(주계약 업체작성)를 공군본부의 검토를 거쳐 국방부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업 무 명	업무분장	비 고
개략계획서 작성지침 수립	국 본 (획득개발국)	
개략해외도입 계획서 작성 지침	조 본	
개략연구개발 계획서 작성지침 (국과연 주도 연구개발)	국 과 연	
개략연구개발계획 서 작성지침 (업체주도 연구개발)	기 참 부 (전력계획처)	
개략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주 계 약 대 상 업 체	
개략연구개발 계획서 검토의견서 작성	부 감 실 전 발 단	- 소요 제안 부서
개략계획서 국방부 제출	기 참 부 (전력계획처)	

○ 국방 중·장기 무기체계 획득개발계획 공군 요구서 작성

국방 중·장기 무기체계 획득개발계획서에 반영할 공군 요구서는 부서별 소요제안 사항을 종합 검토후 군 획득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에 제출토록 하였다.

업 무 명	업무분장	비 고
국방 중·장기획득 개발계획 작성지침 수립	국 본 (획득개발국)	
공군요구서 작성 지침 수립 및 요구 서(안) 작성 지시	기 참 부 (전력계획처)	
부서별 요구서 (안) 작성	부 감 실 전 발 단	- 소요 제안 부서
공군요구서(안) 확정(획득협의회)	기 참 부 (전력계획처)	
공군요구서(안) 국방부 제출	기 참 부 (전력계획처)	- 국방 중 ·장기획득 개발계획 확정

다. 연구개발 업무절차

○ 탐색개발 및 정량화 요구운영능력서(ROC2) 확정

국방 중·장기 무기체계 획득개발계획서를 근거로 작성되는 탐색개발 업무는 군이 주계약 대상업체에 작성 의뢰한 탐색개발계획서에 의거하여, 검토과정을 거쳐 국방부 및 합참에 제출된다.

또한 정량화 요구운영능력서(ROC2)는 군의 요구에 의해 합참에서 확정토록 하였다.

업 무 명	업무주관	비 고
탐색개발계획 작성 의뢰	기 참 부 (전략계획처)	-근거: 국방 중·장기 무기 체계 획득개 발 계획서
탐색개발계획서 작성	주 계 약 대 상 업 체	
탐색개발계획서 검토 및 관리 계획서 작성	항 사 단 (사업주관 부서)	
탐색개발계획 승인 국방부 건의 탐색개발사업 승인 국방부 건의	기 획 부 (전략계획처)	
탐색개발 수행/ 연구결과보고	주 계 약 업 체 국 과 연	
탐색개발 연구 결과 검토	항 사 단 (사업주관 부서)	
탐색개발연구결과 국방부 및 합참 제출	기 참 부 (전략계획처)	
ROC I (안) 작성	전 발 단	-근거: 탐색 개발결과
ROC II (안) 확정/ 합참 제출 (무기체계협의회)	기 참 부 (전략계획처)	
ROC II 확정 (무기체계협의회)	합 참	

○체계개발 운용시험 평가 및 무기체계 채택
개발장비의 시제품에 대한 운용시험평가는 기술시험평가를 충족한 장비에 대하여 운용상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군이 작성한 운용시험평가 계획서를 합참 승인과정을 거친후 시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거 합참에서 확정요구운영능력서(ROC3)로 확정되며 이를 근거로 무기체제로 채택토록 하였다.

업 무 명	업무분장	비 고
운용시험평가 계획서 작성	전 발 단 (시험평가실)	-근거: 정량화 요구운영능력서 (ROC I) 및 체 계개발동의서 (안)
운용시험평가계획 검토 및 합참 제출	기 참 부 (전략계획처)	
운용시험평가 계획 승인	합 참	
운용시험평가 수행/결과보고	전 발 단 (시험평가실)	
결과 합참 제출	정량화요구 운영능력서 (ROC II)수 정건의(안) 작성	전 발 단
	정량화요구 운영능력서 수정건의 (안) 확정/합 참제출 (무기체계협 의회)	기 참 부 (전략계획처)

업 무 명	업무분장	비 고
정량화요구운 능력서 수정 확정: 확정요 구운능력서 (ROCⅡ) (무기체계협 의회)	합 참	-근거 • 시험평가결과 • 정량화요구운 용능력 또는 확 정능력
무기체계채택 (무기체계협의회)	합 참	

라. 해외도입 업무절차

○ 무기체계 선정 및 시험평가

해외도입 무기체계는 군의 선정 건의안을 토대로 합참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으며, 시험평가는 군의 시험평가계획을 합참 승인 과정을 거쳐 수행하나, 시험평가 사업은 군의 사업건의에 의거 방위력개선사업 추진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업 무 명	업무분장	비 고
선정건의(안)작성	전 발 단	-근거: 합동 중·장기 무기 체계 기획서
선정건의(안) 확정 /합참 제출 (무기체계협의회/ 필요시 정책회의)	기 참 부 (전략기획처)	
선정 (ROCⅡ 확정) (무기체계협의회)	합 참	

업 무 명	업무분장	비 고
시험평가 계획서 작성	전 발 단	-국방부 집 행시는 합참 에서 승인
시험평가 계획 승인	기 참 부 (전략기획처)	
시험평가사업 승인 건의	항 사 단 (전략기획처)	
시험평가사업 승인	항 사 단 (사업주관부서)	
시험평가사업 승인	기 참 부 (전략기획처)	
시험평가 수행/ 결과보고	전 발 단	

○ 협상, 기술도입 생산계획서 및 직구매 가계약서 검토

해외도입으로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국방부의 협상지침에 의거 협상 요구자료를 작성하여 협상전문부서인 조달본부에 통보하고, 조달본부의 협상 타결시 가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업무절차는 도표와 같다.

업 무 명	주관부서	비 고
세부협상 지침 수립/요구자료 작성 지시	기 참 부 (전력계획처)	-근거:국방부협상 지침 -국방부 집행
세부협상 요구자료 작성	항 사 단 (사업주관부서)	행시는 협상 지침이 조달 본부로 하달
세부협상 요구 자료 조분통보	기 참 부 (전력계획처)	됨
기술도입 생산가계약 체결	주계약대상업체 ↔ 외국업체	
기술도입 생산계획서 작성	주 계약 대상 업체	
직구매가 계약체결	조분 ↔ 외국업체	
기술도입생산 계획서 및 직구매 가계약서 접수	기 참 부 (전력계획처)	-국방부 집행시는 획득 개발국 및 군수국에서 접수
기술도입생산 계획서 및 직구매 가계약서 검토	항 사 단 (사업주관부서)	

업 무 명	주관부서	비 고
기종결정요청	항 사 단 (사업주관부서)	-국방부 기종 결정시는 획득 개발국에서 결정
기종결정계획서 작성	기 참 부 (전력계획처)	
기종결정건의안작성 (획득실무위원회구성)	기 참 부 (전력계획처)	
기종결정 (획득협의회)	기 참 부 (전략기획처)	
무기체계 채택 합참 건의	합 참	
사업승인건의	항 사 단 (사업주관부서)	
사업 승인	기 참 부 (전력계획처)	-국방부 집행시는 사업조정관실에서 승인
배치 및 운영		
최초 운영능력 확인	기 참 부 (전력계획처)	
운영평가분석	기 참 부 (재무관리처)	

○기종결정, 무기체계채택, 도입 및 배치

무기체계의 기종결정은 국방부의 권한사항이나, 군으로 기종결정이 위임된 무기체계는 도표의 절차에 의거 군에서 기종결정후 합참으로 통보하여 무기체계 채택후 사업승인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기대효과

공규1-4(공군 무기체계 획득관리규정)의 신규 제정으로 국방부의 무기체계 획득관리규정의 시행과 관련된 공군내 업무절차를 조기에 정착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군 무기체계 획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 부서에 지침 제공은 물론 업무범위를 설정해주므로써 책임한계를 분명히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무기체계의 국산화 추세에 부응하여 연구개발 업무절차를 구체화하고 현실화함으로써 공군내 연구개발 업무를 활성화 하는데도 기여하는 등 그 효과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6. 발전시켜야 할 과제

공군 무기체계 획득관리규정을 제정하므로써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적극 수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기는 하였으나, 각론적인 업무수행체계면에서는 보다더 발전시켜야 할 과제들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향후 추가 발전시켜야 할 과제들을 공군본부 조직 발전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기체계 획득관리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 전력화 지원요소 발전을 전담할 주관부서 신설의 필요성이다. 즉, 전력화 지원요소는 전투발전요소와 종합군수지원요소를 말하는 것으로써 무기체계 획득시 필수적으로 검토·지원되어야 할 분야이나, 현재는 사업주관부서별로 산발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완벽한 업무수행에 제한을 받고 있음이 사실이라 할 수 있으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업무를 수행할 종합군수지원과(가칭)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형상관리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 통제할 부서에 대한 인력보완의 필요성이다. 형상관리업무는 전 무기체계에 대하여 신규 도입부터 도태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발전되어야하

나 현재 실정은 사업주관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유지·관리하므로써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음은 물론, 전체적인 자료관리 및 정책수립이 미진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검토가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다.

셋째, 군의 연구개발업무를 주관할 부서의 조직과 인력의 확충 필요성이다. 무기체계의 획득방법이 연구개발로 결정된 경우, 업체주도 연구개발사업은 소요군이 주관함을 원칙으로 규정함에 따라, 군은 업체의 개발계획검토, 개발계약, 시험평가, 품질보증관리, 규격검토 등을 수행해야하나, 이러한 기본 업무를 수행할 전문적인 조직과 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연구개발업무와 이와 수반되는 사업관리는 군에서 지금까지 수행하지 않던 업무일 뿐 아니라, 향후 다양한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이 군주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 항공사업단 연구개발사업처를 모체로 하여 조직 및 인력의 확충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국방과학기술 및 무기체계 획득정보관리를 위한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다. 무기체계 획득관련 정책결정과 연구개발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방과학기술 및 무기체계 획득정보관리에 필수적인 자료인 국방과학기술정보, 조달정보, 비용대 효과분석정보, 무기체계정보, 운영정보 등 이미 획득된 기술 및 무기체계정보와 새로운 무기체계 획득사업 추진시의 획득 자료를 통합 유지·관리하는 조직 및 체계를 구축하므로써 업무효율성 제고는 물론, 신속한 업무처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몇가지 보완시켜야 할 과제들은 현 규

정을 시행하면서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부터 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나, 문제 해결에 장기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이 기울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7. 결론

공군 무기체계 획득관리규정(공규1-4, '96.2.20)은 무기체계획득업무와 관련하여서는 공군 유사이래 최초로 제정된 규정으로써, 공군력 건설의 핵심이 되는 무기체계 획득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무기체계 획득업무는 그동안 국방부 훈령에

의거하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업무의 중복 또는 공백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금번 제정된 규정은 무기체계의 소요제기에서부터 획득, 운영과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부서별 업무수행범위와 수행절차를 명시함으로써 근거제시와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게 되었다.

공군 무기체계 획득관리규정은 제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잘 시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공군 전 장병은 “전략형 공군력 건설”이 핵심이 되는 “세계일류 정예 공군 건설”의 공군 지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공근**

『세계일류 정예공군』을 건설하자

박 충 제
중령/전발단 군제발전실



1. 서 언

꿈이 있는 자는 성공하고, 꿈이 없는 자는 망한다고 한다. 조직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꿈이 있는 조직은 흥할 것이며, 꿈이 없는 조직에게 기대를 걸기가 어려울 것이다. 꿈이 있는 개인, 꿈이 있는 조직 이들에게서 우리들은 기대를 걸어도 좋을 '희망의 씨앗' 이 잉태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다.

갓 태어난 아이에게 왜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는 것일까? 그 아이에게 평생에 대한 기대하는 바 꿈을 그 이름자에 새겨두는 것이다. 김개똥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사람은 위대한 인물이 되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이다. 스스로 자기 이름을 소개할 때나 남이 그 이름을 부를 때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훌륭한 가문의 자식치고 이런 천박한 이름을 가진 이는 드물다.

성서에서 선택받은 인물들은 하늘에서 직접

작명을 해주고 위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어 그의 생을 이끌어 왔다. 「야곱」은 원래 이름의 내용이 별로 좋지 않았다. 그가 성년이 되었을 때 하늘의 천사가 그의 이름을 다시 지어 주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승리한 자라는 뜻임)이고, 야곱의 개명된 이름이 국가의 이름이 되었다. 이 민족은 로마 지배하에 전세계에 흩어져 2000년간의 유랑생활을 했으나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고, 4차에 걸친 아랍국가와의 전쟁에서 현대전에 돋보이는 승리를 이룩했다.

야곱의 12아들중 하나가 요셉이다. 요셉이 어렸을 때 하늘에서 높은 직위에 올라가는 꿈을 보여 주었다. 요셉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으나 이 위대한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였고, 이방인으로서 당시 이집트의 재상이 되어 자기 민족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자가 되었다.

개인도 이러니와 조직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위대한 조직이 되려면 위대한 꿈인 비전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공군은 21세기를

4년 남짓 남겨둔 이 시기에 공군의 지혜와 중론을 모아 공군의 비전이요 미래상을 「세계일류 정예공군 건설」로 하고 이를 空軍指標 (VISION)로 명명하였다. 이제 우리 공군은 한반도를 보는 차원에서 세계를 염두에 둔 공군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그 중에서도 세계 일류를 제시하였다. 공군인들의 마음속에 이 위대한 꿈을 품었고 이 위대한 꿈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을 가졌으니, 우리 공군은 기필코 이루워 내고야 말 것이다. 북한위협에 대처에도 급급한 전력이며, 또한 이 시기에 왜 「세계일류 정예공군 건설」의 기치(旗幟)를 내세웠는가? 다가오는 21세기는 세계 최고수준을 지향해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2. 민간조직의 비전(VISION) 설정

이 시대는 엄청난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다. 미국의 한 유명한 과학자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지식의 90%는 지난 10년동안 형성되었다고 말한다. 인간의 역사는 대략 1만년으로 보더라도 세계의 激變을 깨닫게 해주는 말이다. 이러한 격동의 변화는 이 시대를 새로운 흐름으로 특징 지워주고 있으며, 그 주요 특징으로는 불연속적

(Discontinuity) 변화시대¹⁾, 정보/지식시대²⁾, 글러벌화(Globalization)시대³⁾ 전개 등으로써, 예측이 어렵고 국경을 초월한 기업간의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흐름에 따라 민간기업의 경우 그 흥망이 가속화되고 있다. 1983년도 미국 포춘(FORTUNE)지 조사에 따르면, 1970년 미국의 500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중 30%가 몰락하여 대기업의 평균수명이 약 40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재미교수 이상문 박사의 92년도 조사에 의하면 80년대 미국의 100대 기업중 50%를 조금 넘는 기업만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대부분의 민간기업은 세계적 수준의 기업육성을 그 비전으로 제시하고 경영혁신을 단행하고 있으며,⁴⁾ 민간기업이 세계수준을 그 목표에 두는 것은 하나의 꿈이나 이상적인 것이라기보다 생존을 보장 받기 위한 절박한 목표라고도 할 수 있다.

3. 미 공·육군의 비전설정

세계제일의 군대인 미공군과 미육군도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미공군의 비전은 '공군인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항공우주군을 건설하며,

- 1) 불연속적 변화는 사회의 변화가 작고 반복적인 변화를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불연속적 변화를 하기 때문에 미래를 현재의 연장선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2) 정보/지식시대는 엘빈토플러, 피터 드러커 등의 학자가 주장하는 것으로 산업화시대에는 토지나 자본, 노동이 생산성 향상을 가져다주는 1급자원이나, 현시대는 정보나 지식이 보다 더 고가의 자원으로 보는 견해이다.
- 3) 글로벌화 시대는 경쟁의 국제화, 자원/기술/정보 등의 국제적인 흐름을 말한다.
- 4) 민간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이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세계적 수준을 그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국 대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예 : 삼성-인류에 봉사하는 세계 초일류기업, 선경-세계적 일류수준의 기업 등)

미국을 위해 세계적인 힘과 세계적인 도달(Global power and reach for America)을 이룬다'고 되어 있다. 미육군은 '전투를 수행키 위해 훈련되고 준비된 완전한 군(Total Forces), 결정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 전략적인 군(Strategic Force)'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공군과 미육군은 그들이 바라고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 몇 마디의 핵심적인 단어 속에 잘 포함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한국공군 지표(VISION) 설정

군사적인 측면에서 한국공군은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인 집단인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으면서, 주변국은 세계최고 군사강국들로 둘러싸여 세계적인 수준을 지향해야 국가 영공방위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96년도에 들어와 독도문제가 한·일간에 쟁점으로 또다시 부상되고 있으며, 언론매체는 과연 우리가 최악의 경우에 승리를 장담할 수 있을 만큼 강한가? 라는 것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는 주변국과의 다양한 마찰요인(국경, 어업, 경제, 환경 등)을 안고 있으며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리엔지니어링 창시자 「마이클·해머」는 현대조직이 지향해야 방향을 두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그 첫째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목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비전(VISION)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조직에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이클 해머는 조직에 있어서 비전의 역할을, 비전제시는 「사기가 떨어지는 군인들을 그 주위

로 모이게 하는 깃발」과 같은 역할을 하며, 「우리가 그곳에 다다랐을 때 얼마나 멋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비전은 「한결같은 초점을 제시하고 조직이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며, 「조직의 성숙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비전 설정방향에 있어서는 비전 선언문은 강력해야 하며, 비전에는 최고가 되겠다는 의지와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 후를 상정하였을 때 군사작전 환경은 기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공군은 현 북한 감시위주에서 전방향의 광범위한 영역에 대한 감시를 맡아야 하며, 작전수행 측면에서 3군중 최일선 영역에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육군의 경우 대규모의 북한 지상군과 대치하고 있는 현상과는 달리 북부 접경지역 위주로 소규모로 배치하게 될 것이며, 해군의 역할은 다소 늘어나게 될 것이다.

미래전쟁 형태는 걸프전이 그 모형을 예시하였듯이, 3차원 공간이 주 전투 영역이 될 것이며 항공전력 중심으로 전쟁이 수행될 것이다. 따라서 공군은 지역적으로도 광범위한 영역을 담당하게 되며 전쟁수행에서도 미래 국군의 중추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국공군 위상과 주변위협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공군의 비전을 空軍指標(VISION)라 명명하고, 공군지표(VISION)를 「세계일류 정예공군 건설」로 하였다.⁵⁾ 여기서 「세계일류」(world Class)는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예견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민국의 국가역량을 고려할 때, 세계강대국 공군규모를 지향하는 것은 어렵고 국가

정책상 선택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⁵⁾

따라서 「세계일류」는 전략적 중점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을 지향하는 것으로, 전략적 중점분야는 「인력의 專門化」와 「武器體系의 尖端化」 「作戰遂行能力의 極大化」로 하였다. 이를 전략적 중점분야로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인력의 전문화」는 인력의 자질이 조직운영에 핵심이고 모든 조직이 보다 더 전문인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며, 전문화된 인력과 더불어 첨단화된 무기체계와 접속시킴으로써 최상의 하부구조를 갖추게 하고, 인력과 무기체계의 조화된 연계를 통하여 궁극적인 목표인 작전수행 능력의 극대화를 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5. 공군지표(VISION) 달성을 위한 주요 추진분야

공군지표(VISION) 달성을 위해서는 다음분야에 대한 의식선행과 정책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전장중심 업무수행이다.

민간기업에 있어 고객만족이 이익창출의 근원이 되므로 널리 사용되어온 '고객은 왕이다'라는 표현처럼 고객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업 종업원의 업무조사 결과 고객요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주어지고 있지 않

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미국 Digital Equipment사의 경영진단 결과 고객을 위한 가치창출 노력이 전체 업무의 20~3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마이클 해머가 다수기업의 종업원을 관찰한 결과 고객 요구와는 거의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단지 조직내부를 만족키 위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더라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은 업무가 전문화, 분업화됨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작업자 관점에서 고객은 추상적 대상에 불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민간기업의 고객요구는 군의 전장요구에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군대가 실제 전쟁시 이런 훈련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런 작전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등 실전상의 전장요구(BattleField Requirement)를 등한시하고 군의 업무가 수행될 수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하겠다.

군의 역할은 궁극적으로 전장요구를 파악하여 작전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군이 실전을 할 기회란 극히 드물며, 각 개인의 업무는 분업화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전쟁이란 것은 대부분의 군인에게 있어서도 추상적인 영역에 속하기 십상이다(민간기업의 활동은 단시일내 이윤에 영향을 끼치나 군은 실전적용 이전에는 영향을 알 수 없으므로 더욱 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민간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고객요구를 끊임없이 추적하듯이 작전효과 극대화를 위해 정장요구를 끊임없이 추적하는 것이 요구된다.

5) 공군지표는 '95. 11. 연구를 시작했으며 전투발전단이 초안을 작성하였고, 예하부대 의견수렴과 공본 참모업무 협조회의를 거쳐 '95. 12. 참모총장 재가로 확정되었음.
6) 민간조직의 경우에도 모든 분야를 세계적 수준을 지향하기보다는 전략적 중점분야를 선택하고 있으며 학자들의 이론적인 뒷받침을 받고 있다.

세계일류 정예공군 건설을 위해 공군인은 모든 업무를 수행할 때마다 전장중심의 사고가 뇌파 속에 넘쳐흘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공군인은 전쟁을 연구하고 전쟁을 이해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미육군은 전장요구를 분석하고 신 교리를 개발하는 것이 군사주도권을 확보하는 원동력으로 보고 있다. 한국공군도 이점에 깊이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로, 창조적 인력관리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공군은 북한의 공중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공군발전보다 대비태세를 위한 인력에 중점을 둔 구조를 유지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공군의 무기가 고도기술을 바탕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공학분야 인력양성이 보다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군을 이끌어 나갈 인재육성을 위해 어떠한 경력의 틀이 요구되는가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이 전통적으로 강군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근간은 독일 참모본부를 통한 인재양성 이었다. 나폴레옹과의 전쟁후 프러시아는 샤른 호르스트, 클라우제비츠 등의 인물 주도하에 참모본부를 만들고 참모본부 요원을 선발하여 군 인재를 육성하였다. 참모본부의 모든 장교들은 전쟁전반에 대한 새로운 교육과 온갖 종류의 상황하에서 자기의 원래 병과 및 타병과 부대에 대해서 순환보직을 거치도록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가지 형태의 전투 및 실질적인 지휘에 관한 지식을 얻게 하였다. 普·佛전쟁, 1·2차 세계대전시 독일군을 주도했던 인물들은 참모본부 출신요원(몰트케, 슐리펜, 힌덴부르크, 루덴돌프, 쾰트, 벡크, 구테리안 등) 들이었다.

독인 참모본부 요원의 교육과정중 우리가 특이하게 보아야 할 사항으로 참모본부 요원은 작전적인 사항과 기술적인 사항 및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기술적인 사항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에 빠져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군은 타군에 비해 기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장교(특히 조종사)인 경우에 기술적인 문제에 정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참모본부는 참모본부 요원을 양성하는데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공군은 기술적인 문제를 잘 알아야 할 것이다. 공군은 기술에 정통하게 함으로써 우수한 전투요원은 만들 수 있을 것이나, 훌륭한 지휘관 및 참모를 양성하는데 문제를 가질 수 있다. 독일군 참모본부 요원 양성에 있어 작전적, 기술적, 기술적 사항에 관한 언급내용을 심도있게 음미할 필요가 있다. 공군은 새로운 경력관리의 틀을 구성하여 주요지휘관 및 참모가 전·평시 실질적이고, 유능한 지휘력과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양성되어야 할 것이다.

공군 인력의 질을 일류화, 전문화 시키는 것이 세계일류 공군으로 가기 위한 초석이다. 지식시대는 군사지식을 생산하고 창조할 수 있는 인재를 많이 필요로 한다. 우리는 이러한 인재육성과 관리에도 특별한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셋째, 공군구조 혁신이다.

조직의 발전이 관료주의 폐단을 제거하고, 유연화력구조 방향으로 진행되어 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조직내 최대 이용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이를 위한 신경영기업으로는 총체적 품질관리(T, Q, M)⁷⁾ 학습조직⁸⁾, 벤치마킹⁹⁾, 리엔지

니어링¹⁰⁾, 아웃소싱¹¹⁾ 등 다양한 기법이 활용되고 있다. 미공군과 미육군은 신경영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조직의 혁신을 최대한 도모하고 있다.

피터 드러커 박사¹²⁾의 견해에 따르면 미래조직은 점점 더 전문가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권한이나 통제보다 책임에 기초하여야 하며 빠른 의사결정, 현장 밀착을 위해 더욱 분권화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또한, 지식이 가치창조의 제일이므로 지식창조 조직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군에 전반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작전 수행 능력 제고를 위해 조직진단 및 신경영기법의 활용이 요구된다 하겠다. 비록 군이 보수성을 지닌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급변시대에 정체성을 띠는 것은 극히 비효율적인 조직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조혁신을 단행해야 할 것

이다.

네째, 연구활동 강화이다.

한국공군은 주로 미공군의 교리나 업무절차를 모방하여 사용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교리, 조직, 전력건설, 교육훈련방법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없이 일류군으로 발돋움하는데 한계가 있다.

어떠한 조직이 가장 강한 조직인가? 그것은 새로운 지식을 가장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조직이란 것이다.¹³⁾ 우리도 미군이 훈련교리사령부(TRADOC)¹⁴⁾를 통해서 신교리를 개발하고, 부대에 적용실험을 하듯이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새로운 군사지식을 창조해야 할 것이다.¹⁵⁾

7) Total Quality Management의 약어로서 전사적(全社的) 또는 종합적 품질관리 경영방법

8)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고 창조하며 사용하는데 능률적인 조직을 구성하는 경영기법

9) 세계최고 또는 경쟁조직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비교평가를 통해서 자기혁신을 도모하는 경영기법

10)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업무의 흐름과 프로세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경영기법

11) 핵심분야에 자원을 집중하여 경쟁적 우위를 유지하되 기타분야는 대여, 또는 위탁관리방법을 채택하는 경영기법

12) 1909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출생, 캘리포니아 클레어몬트 대학 사회과학 및 경영학교수 재직 중, 저서로는 1936년 'The end of Economic Man'을 비롯하여 '현대의 경영', '창조적 경영자', '미래기업' 등이 있다.

13) 피트 드러커는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라는 저서를 통해서 이 시대를 지식사회로 규정하고 지식이 가장 유용한 자원이며, 신 지식을 창조할 수 있는 많은 인적자원을 가진 조직이 가장 강한 조직이라고 피력하고 있으며 이것은 전반적인 공감을 얻고 주요 경영서적에서 인용되고 있다.

14) Training and Doctrine Command의 약어로서 1973년 미 육군 두퓨이(William E. Deupy)장군이 창설하였으며, 세계 최대의 군사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장교 고등교육기관, 6개의 훈련소, 21개 학교 운영)

15) 미육군은 전투지식 창조를 위하여 훈련교리사령부 산하 1개 기동연구소와 6개 전투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21세기 육군 신아이디어 개발, 전투지휘, 전투영역별 연구 등 집중적인 개발을 진행 중이다.

다섯째, 정보전 능력향상 및 미래지향적 전력건설이다.

사회의 발전과 군사적 발전은 맥을 같이 해왔다고 볼 수 있다. 사회의 흐름이 느렸던 과거에는 정보의 유동성도 정보의 양도 적었다. 그러나 사회의 흐름이 빨라지면서 정보의 유동성이 커지고 대량의 정보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포착하는 능력과 전반적인 정보흐름을 파악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미래전쟁은 전쟁행위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일련의 전투흐름에 대해 정보를 즉각 포착하고 조치하지 않으면 작전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미육군은 미래 전쟁형태를 기술하면서 戰場空洞化 현상을 주요 특징중에 하나로 들고 있다.¹⁶⁾ 리델하트는 전략론에서 전투에 있어 승리의 要諦는 집중이라고 했다. 그런데 왜 미육군은 미래전장을 전력의 집중이 없는 전장 공동화 현상을 언급했을까? 이것은 정보화시대의 특징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와 같이 전력을 집중하여 장시간 노출하게 되면 적의 정보 능력에 의해 즉각 파악되고, 이 집중된 전력은 적의 적시 정밀타격으로 심대한 손실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집중은 더 큰 손해를 가져온다). 따라서 미래전장은 별로 전력이 눈에 띄지않는 전장 공동화 현상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승리를 위해서는 결전장에 적보다 우세한 전력의

집중은 필수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항공력(전투기, 수송기, 헬기) 등을 이용한 分散進擊, 瞬間集中의 형태로 가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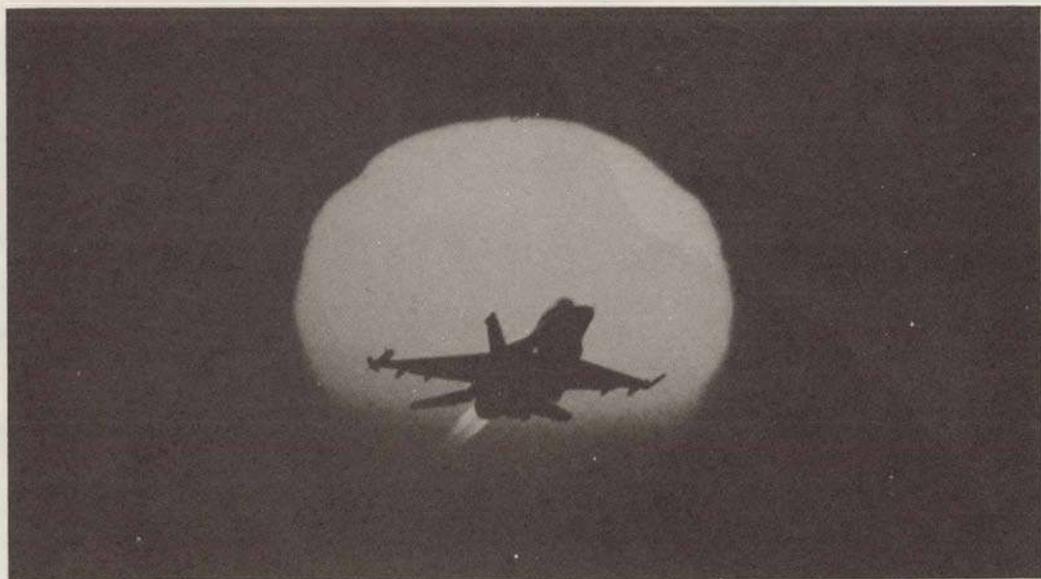
정보유동성이 심한 미래전장에서 정보의 파악은 전승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류 군 지향을 위해 정보전능력의 향상은 주 지향방향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또한 공군력은 정밀타격, 군사력 방호, 기동력 등 미래지향적 첨단전력 건설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전 공군전력을 계획하고 지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6. 결 언

한국공군은 미래에 대한 새로운 꿈을 갖고자 한다. 한국공군은 「세계일류 정예공군」이 되고자 한다. 북한의 위협에도 빈틈없이 대처하면서 세계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군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로마군이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軍旗를 사용하였으며 그 군기의 상징은 「독수리」였다. 로마군은 가히 천하무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나폴레옹도 로마군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 받았다. 그도 군기의 상징을 「독수리」로 하였다. 이들이 군기의 상징으로 선택한 독수리의 역할은 근대와 현대전에서 그 위용과 역할을 분명히 하였다. 항공력은 전승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한

16)미육군은 새로운 교리로 『21세기 군 작전』(FORCE 21 OPERATIONS)을 개발중에 있으며, 개발중인 신교리상에서 미래전장 지배요소로 ① 군사기술 발전으로 전투공간이 확대될 것이며, 군대는 생존을 추구하기위해 훨씬 분산될 것이므로 전장 空洞化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② 부대 散在에 따른 새로운 지휘통솔법 필요 ③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구분이 모호하게되는 동시성(Simultaneity) 현상 ④ 전파매체의 영향이 지대하여 전략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을 주요 특징으로 들고 있다.



국공군은 미래 국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주변상황을 고려할 때 세계적인 수준의 공군건설은 우리에게 주어진 필연적인 과제이다. 「세계일류 정예공군 건설」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전장중심의 사고를 하자. 一流指揮官

과 參謀, 戰鬥員을 만들어내자. 구조를 혁신하여 활기를 불어 넣자. 신군사지식을 창조하자. 정보화시대에 맞는 첨단전력을 건설하자. 공군인이여 「세계일류 정예공군 건설」을 위해 다같이 雄志의 날개를 펴자. **등근**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전자전

- 썬튼균(Computer Virus) -

전 병 육
중령/전발단 체계분석실



1. 선언

역사적으로 전쟁양상은 제2차 세계대전의 효과적인 종식을 위해 미국이 일본에 투하했던 두 발의 원자탄을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재래식 무기에 의해 좌우되어 왔으나, 이러한 사실은 지금부터 10년 이내에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세계 정보 고속망의 개발을 통해 맹렬하게 개방을 주장하는 정치적 당위성의 현추세에 편승하여 가속적으로 보편화 되고 있는 폭넓은 기술의 발전은 미증유의 무기를 폭력행동분자 또는 폭력국가들에게 제공하거나 사용이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무기들 중에서 가장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썬튼균이며, 그들의 출현은 썬튼의 보편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던 1980대 말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대부분의 썬튼균들이 구체화하기에

매우 어렵고 추상적임에도 불구하고,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썬튼균은 전산자동화체제에 의존하는 현대국가들을 쉽게 굴복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우려와 개념이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음에 소개되는 사실에 의해 증명이 되었다. 1988년 10월에 미국의 첨단 국방연구기관(DARPA)에서 운영하는 전산망이 썬튼균에 감염되어서 일시에 무력화되었던 사실이 떠들썩하게 미국내의 보도매체에 화제가 되었고, 국방분야 종사자들의 심각한 우려와 함께 이에 대한 대비책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소위 Arphanet라고 불리는 이 연구기관의 전산망에 썬튼균을 투입한 사람은 모리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으며, 공공롭게도 그의 아버지는 썬튼균에 침투하여 자료를 훔치거나 썬튼균을 살포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업무를 취급하는 국

가 보안청(National Security Agency)에서 암호화 부문에서 책임 연구원으로 종사하고 있었다. 당시의 Apphonet에는 무려 6만대 이상의 션틀이 연결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모든 션틀이 일시적이거나 션틀군에 의하여 무력화되었던 사실은 안보적 측면에서 국가적 비상사태의 처리능력에 대한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전산에 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션틀군의 심각성과 파괴력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션틀군은 션틀(Coputer)의 기억장치에 일단 유입이 되면 션틀의 작동을 변환시켜 오작동하게 하는 특수화된 무른모(Software), 즉 고의적 악의성을 지니고 있는 무른모이다. 이러한 션틀군은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으로 션틀의 기억장치 또는 기억매체를 손상하고 훼손시키기 위해 설계될 수 있다. 션틀군은 전산교육의 초보과정에서 학생들이 BASIC 부호로 만든 풀그림(Program), 또는 문서작성을 위해 만들어진 글월처리 풀그림(Word Processing Program)과 전혀 차이가 없는 풀그림이다. 그러나 션틀군들은 사용자들을 위한 응용풀그림과 비교하여 보면 훨씬 더 효율화가 이루어진 풀그림 부호(Prgram)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것들은 합해서 100바이트 이내의 수행부호(Executable Code)로 번역이 가능하도록 풀그려져 있다.

이와 같은 션틀군의 특성 및 공격전략의 단순성은 션틀군이 효과적으로 션틀을 감염시키는데 성공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이다. 그들의 명칭을 따온 생물학적 존재인 바이러스처럼, 일단 션틀 내부에 침투를 성공한 션틀군들은 스스로 복제되어 급속도로 번식한다.실질적으로 1992년

초에 우리 나라에서 문제화되었던 미켈란젤로와 예루살렘이라는 션틀군의 경우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이미 1990년대 한차례 소동을 일으킨 바 있다. 션틀은 형태가 거대한 주장비이거나 탁상형 또는 휴대용 등에 대한 차이와 용도에 관계없이 션틀군 감염에 무방비하며 예방능력이 없다. 그러나, 션틀의 읽기장치(Read-only Device)는 마치 음악을 미리 녹음한 후에 필요할 때마다 재생하여 음악을 감상하는데 사용하는 예전의 음반레코드나 요즈음에 개발된 광기록매체와 마찬가지로 수록할 내용을 매개체에 영구적이거나 반영구적으로 새겨져 있기 때문에, 션틀의 읽기장치인 중앙처리장치(Ccpu)와 늘기억장치(ROM:Read-only Memory)는 일반적으로 션틀군의 공격이 불가능한 부분이다.

션틀의 중앙처리장치와 늘기억장치의 작동은 막기억장치(RAM:Random-access Memory) 또는 자기매체와 같은 일시적 기억매체에 의존하므로, 어떠한 션틀이라도 션틀내부의 상호작동에 영향을 주도록 고안된 공격전략으로 무장된 고의적 악의성을 띤 무른모인 션틀군에 의해 치명적으로 황폐화될 수 있다. 특히 전산망이 구성되어 있는 작동체계에서 전산망을 통해 감염된 한 무른모로부터 전산망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션틀에 전파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션틀군이 무기화되었을 때에 가공할만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션틀군의 개념을 이용하여 적의 전자 시스템에 션틀군으로 작성된 풀그림을 전자적으로 침투시켜서, 감염 및 파괴활동을 하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전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 션틀군이 정보화 사회에서 군사 무기화될 수 있는 기능



성들에 대하여 언급할 것이다.

2. 썬들군의 무기화

군의 전자시스템은 여러 종류의 감지기, 제어 시스템, 통신 및 전자전 장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감지기는 레이더, 적외선 시스템, 전자광학 시스템 및 레이저 등을 말하며, 시스템의 작동 및 표적의 출현 등에 대한 감시등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제어 시스템은 지동비행 시스템, 평형 시스템, 지형추적 시스템 등을 말한다. 통신 체계는 통신 가입자들을 상호 연결해주며, 이러한 연결을 통해 임무의 배분과 자료/정보를 원활하게 유통시킨다. 전자전 시스템은 전자장의 스펙트럼을 사용하여 적의 위협체계에 대한 위협경고, 자체방어 및 대응책을 수행하는 것이다.

썬들군은 이론적으로 가능한 개념일 뿐 아니라 전산체계와 전산망에 신속하고도 결정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적의 전자 시스템에 썬들군으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전자적으로 침투시켜서 감염 및 파괴활동을 하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전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썬들군을 이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전을 썬들군 방해책(C.V.C.M : Computer Virus Counter Measure) 라고 한다. 정보화 추세에 따른 첨단 기술의 혁신적인 개발의 영향으로, 날로 발전하고 있는 군의 전자시스템은 이러한 썬들군 무기의 공격에 더욱 더 취약하게 되었다.

2.1. 썬들군 무기의 특징

지난 수년간 썬들군에 의한 사건들이 널리 공표됨으로써 썬들군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썬들군을 격리시키고 박멸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

지 새로운 샘플군들이 계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지금까지 출현했던 샘플군들은 그들의 크기(size), 다용성(versatility), 전파성(propagation), 효율성(effectiveness), 기능성(functionality), 그리고 지속성(persistence)의 측면에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샘플군으로 작성된 무른모의 크기는 놀라울 정도로 작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샘플군의 크기가 작음으로써 다른 응용 무른모에 쉽게 감염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에 주위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샘플군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응용 무른모들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처럼 보인다. 어떤 종류의 샘플군은 자신이 감염시키고자 하는 무른모에 대한 정보를 전혀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샘플군의 특성을 다용성이라 한다. 일단 응용 무른모가 샘플군에 감염이 되면 감염된 무른모가 실행이 되는 도중에 다른 폴그림뿐만 아니라 그 샘플에 접근이 가능한 모든 기록철들에게도 전파가 가능하다. 다른 무른모나 기록철들에게로의 전파능력은 샘플군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지금까지 널리 알려져 있는 샘플군의 대부분은 자신이 공격하고자 하는 무른모에 광범위하고 치명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전산자료, 폴그림, 샘플 운영체제 등이 샘플군에 의해 파괴될 수 있다. 샘플군의 기능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어떤 샘플군은 자료 기록철이나 무른모의 기능 또는 샘플운영체제의 작동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한 무른모에서 다른 무른모로 단순히 감염만 시키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샘플군은 자료 기록철이나 운영체제를 파괴하면서 감염활동을 하는 등 여러 가지의

기능을 보여주기도 한다.

샘플군은 지속성 때문에 발견된 후에도 감염된 전산 자료와 폴그림, 시스템의 작동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어려울 뿐 아니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특히 전산망이 구성되어 있는 작동체계에서는 전산망을 통해 감염된 한 무른모로부터, 전산망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샘플에 전파가 가능하다는 사실 때문에 샘플군을 발본 색원하기가 쉽기 않다는 것이다.

2.2. 재래식 전자전과 샘플군 무기

샘플군 무기를 이용한 새로운 전자전 방해책과 기존의 전자 방해책(E.C.M: Electronic Counter Measure)의 가장 큰 차이는 전자방해체계가 전자시스템의 수신부를 표적으로 설정하는 반면, 샘플군 방해책은 상대방의 시스템 내부에 있는 전산처리를 목표로 한다는 사실이다. 전자 방해책의 초기 시스템들은 상대방 수신부의 잡음정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수신부가 받아야 할 신호들을 수신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전자기술의 발전에 따라 잡음에 의한 방해 시스템의 효율성은 점차 감소하게 되었다. 이어서 출현한 기만방해(deception jamming)는 목표 시스템의 수신기와 전파의 주파수를 처리하는 방식의 독특한 특성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방해는 암약적으로 목표 시스템의 작동수가 모르는 상태에서 작동된다. 따라서 목표 시스템의 수신부는 수신해야 할 신호가 차단되고 엉뚱한 신호를 수신하면서,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모르거나 자신이 방해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가 있다.

샘플군 방해책도 암약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기만방해와 유사하나, 섹틀균 방해책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시스템의 전산 처리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효과를 얻는 방식에서 기만방해와 차이가 있다. 현재 통신과 레이더 시스템 등의 전자 체계의 기술발전에 의해 새로운 방해책과 기술들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개발되고 있다. 비록 성공적으로 개발되어서 용화되고 있는 여러 방해책들이 있지만 신뢰성이 있는 방해책의 개발은 대체로 쉽지 않다. 예를 들면 대형 항공기의 자체방어 시스템을 위한 방해책은 개발이 상당히 어려운 부문중의 하나이다. 보다 새롭게 개발된 디지털 체계에 대항하기 위한 시스템을 고안하는 설계자들에게 있어서 섹틀균 방해책은 선택 가능한 한가지의 방법이며, 이러한 섹틀균 방해책들이 야전에 배치되게 될 때에 야전 지휘관들에게는 비할 바 없이 좋은 방해책이 될 것이다.

3.3. 섹틀균 방해책의 특징

섹틀균 방해책의 독특한 면은 전술작전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섹틀균 방해책은 방해전송이 끝난 뒤에도 섹틀균이 목표물의 전산 처리기에서 계속 활동하기 때문에, 방해전송과 함께 그 효과가 시작되고 끝나는 기존의 전자 방해책에 비해서 매우 지속적이며 파괴적이다. 따라서 섹틀균 방해책을 이용하면 표적에 비교적 쉽게 전하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술작전의 개시 이전에 공격이 가능하므로 작전계획의 수립시에 불확실한 요소의 사전 제거가 용이하다. 또한 이와 같은 방해책은 감염성의 효과가 있으므로 한 시스템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전파되어서 광범위하게 효과가 미치게 될 수 있다. 일단 초기의 목표물에 섹틀균이 투입되면 여러

사용자 집단과 시스템으로 전파될 것이고, 다양한 중간 목표물을 통해서 실제의 목표물을 간접적으로도 공격이 가능하다. 섹틀균 방해책은 섹틀균 감염의 특징을 이용하여, 적의 방어체계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를 초기에 공격하여 나중에 실제 목표로 유입되도록 할 수 있다.

섹틀균 방해책은 정확한 목표물에 직접 투입되어 공격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또한 특정한 목표물을 공격하기 위해, 섹틀균을 작성하여 침투시킨 후에 작전개시가 될 때까지 잠복상태로 있을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섹틀균 방해책 효과의 예를 들며, 적 시스템의 기능을 몰래 바꾸어 놓거나 완전하게 마비시킬 수도 있다. 또한 적의 자료/정보나 전술 무른모를 파괴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자료/정보의 흐름을 차단 또는 지연시킬 수도 있다. 섹틀균 방해책은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상대방이 그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작동되고 전파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만적으로 상대방이 인지하지 못하도록 섹틀균 방해책을 수행함으로써, 적이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하여 현재의 거짓된 상황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것이다.

3.4. 섹틀균 방해책의 필수 조건

섹틀균 방해책이 유용한 전자전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작전의 일부분으로 정해진 목적을 위해 신뢰성 있게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까지의 전자전 경험을 살펴보면 단순교란의 목적으로 무작위적이며, 통제되지 않은 전자방해책은 공격목표대상에게 별로 피해를 주지 못해 왔다. 게다가 전자방해책은 전술작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작전계획의 일부로 적용되어야만 한다. 섹틀균 방해책은 효과에 있어서 이전의

다른 방해책에서 보기 드문 정도의 시간성과 주 문성이라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즉, 섀틀군 방해책은 특정 목표에 대해 임으로 정해진 시간에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에 공격대상인 목표 시스템내의 전산자료를 미리 확보할 수 있다면, 섀틀 방해책은 목표 시스템 내에 잠복상태로 있다가 정해진 시간이 되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목표 시스템 내에서 점목될 수 있다.

섀틀군 방해책은 특성상 기존의 전자 방해책에 비해서 놀라운 정도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격 대상인 목표 시스템의 섀틀 처리기를 공격한다. 이 방해책은 전파 및 확산이 가능하고, 예정된 순간에 맞추어서 파괴적이고 혼란을 초래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 켈란제로와 같은 섀틀군이 섀틀 내부에 잠복해 있다가 정해진 날짜에 감염 및 파괴활동을 하는 등의 직접 효과를 나타낸다. 섀틀군 방해책의 효과는 충족해야 할 필요조건들을 일부 모르는 상태에서 미리 개발하여 시험할 수 있다. 또한 전자전이 작전계획의 일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술 지휘관이 임무 수행 중에 전자전의 효과를 측정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러한 효과 측정은 현재 사용중인 전자전을 지속해야 할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전환을 시도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섀틀군 방해책이 적의 시스템 내부에 침투되어 있어서 작동대기 중이라는 사실을 우군에게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풀그려져 있어야 하며, 이러한 사실은 적의자료 접합점이나 시스템들의 교란된 정도를 감시하거나 섀틀군으로 작성된 풀그림으로부터 전달되는 응답 신호를 통해 감지될 수 있어야 한다.

3.4. 섀틀군 방해책 실행가능 요소

최근의 군사 전자시스템이 발전하는 추세로 인하여 섀틀군 방해책의 존재 가능성은 더욱 더 증가하였다. 현재의 군사 전자시스템의 발전 추세는 분산된 정보 처리화, 재풀그림 (Reprogramming)이 가능한 무른모가 내장된 섀틀체계화, 전산 통신망화, 섀틀 군은모의 표준화, 무른모의 표준화, 표준화된 전산 통신메시지의 규격화, 표준화된 데이터 링크 등의 경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분산 정보처리

분산 정보처리 섀틀체계를 군사 전자시스템에 사용하게 되면, 시스템의 성능이 향상된다는 이점 때문에 분산 정보처리체계의 운용은 점차 늘어갈 것이다. 이러한 성능의 증가 이외에도 초소형 처리기(Microprocessor), 기억장치용 반도체, 다목적용 반도체 등과 같은 것들을 보다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므로, 분산 정보처리 체계에서는 전산화되지 않은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성능의 향상을 이룩할 수 있다. 전자 방해책은 이러한 분산 정보처리 체계를 매개체로 하여 작동할 수 있다.

재풀그림 가능한 무른모 내장형 섀틀

시스템 설계가 전산화되었을 때의 장점들 중의 한 가지는, 재풀그림을 통해 시스템의 기능과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재풀그림이 가능한 섀틀의 기억소자는 기능이 날로 향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소자는 이전 보다 훨씬 용이하게 획득할 수가 있게 됨으로써 어떠한 시스템의 설계도 점차 쉬워지고 있다. 따라서 섀틀 방해책은 적의 시스템 처리기로 사용되는 이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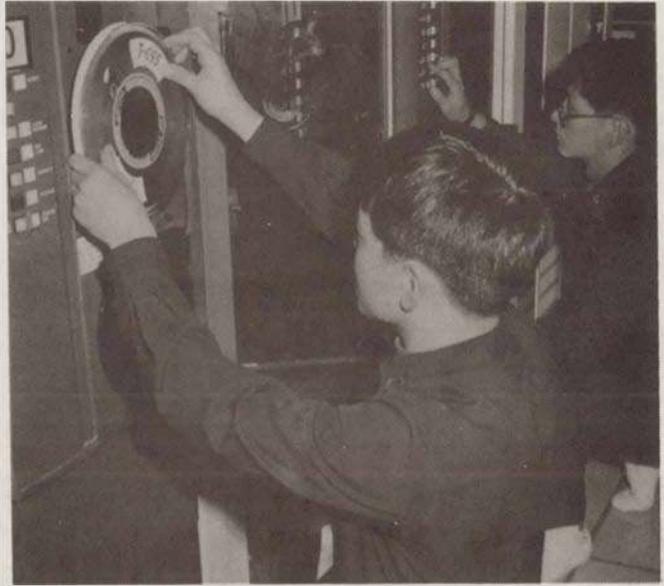
셈틀에, 셈틀군을 침투시켜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적의 시스템을 공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산 통신망

셈틀에 의해 통제를 받는 군사 전자시스템들이 널리 사용됨에 따라, 시스템간의 자료/정보의 교환 또는 유통의 필요성이 한층 더 증가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셈틀간에 자료/정보통신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형성된 전산 통신망을 통해 셈틀군류 빠르게 확산되어 전파될 수가 있다. 이외에도 셈틀군은 정보의 통신 경로를 바꾸어서 원래의 목표지점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시스템에 대한 공격을 시도할 수도 있다. 또한 전산 통신망은 그 자체가 셈틀군의 공격목표가 될 수도 있으며, 셈틀군이 전산 통신망체계를 무력화시키는 효과가 위력적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셈틀 군은모의 표준화

군의 모든 체계에서 셈틀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군은모의 표준화가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그 이유로는 장비의 획득 비용을 감소시킬 수가 있으며, 정밀한 장비인 셈틀의 보수유지가 용이하기 때문이었다. 이와 유사하게 셈틀구조와 셈틀 명령어를 표준화하면 셈틀간의 호환성이 좋아진다. 셈틀군은 각각의 셈틀에 적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표준화된 셈틀 군은모를 사용하는 것은 셈틀군 방해책 실행을 용이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다.



셈틀 무른모의 표준화

표준화된 셈틀의 군은모의 선정이 끝난 후에 시스템의 획득과 운영 유지비용을 줄이기 위한 다음 단계로 취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은, 셈틀 운영체제와 풀그램 등에 대한 무른모의 표준화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셈틀 시스템에서는 셈틀 무른모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므로 무른모의 표준화는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러한 표준화의 이점은 셈틀의 군은모와 무른모를 포함한 셈틀체계의 획득과정에서의 위험 부담과 무른모 개발비용이 감소하며 무른모의 교환성이 증가하는 점 등이 있다. 따라서 셈틀군은 한 가지의 무른모로 활동하므로, 무른모의 표준화 선택은 셈틀군 방해책에서 표준화된 셈틀군의 존재를 가능하게 해준다.

표준화된 셈틀 통신 메시지 규격

메시지 통신 규약과 구조를 표준 규격화하면 통신에 필요한 밴드 폭이 감소함은 물론, 자료/정보 통신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다. 메시지 규격을 효율적으로 설

계하면 실제로 필요한 자료의 전송량을 거의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 이와 같은 통신 메시지 규격의 표준화 선택에 의해 규격화된 정보의 공격이 용이하므로, 셋들군 방해책에 사용될 셋들군의 설계는 상대적으로 단순화가 가능해진다.

표준화된 데이터 링크

군사 시스템간에 자료/정보의 유통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상호 연결을 가능하게 할 데이터 링크의 설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데이터 링크에서는 표준화된 자료의 전송과 경로 선택을 사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표준화된 데이터 링크의 사용은 셋들군 방해책을 위한 표준 진입점을 마련하여 준다. 대부분의 표준화된 데이터 링크들은 셋들에 의해 통제되기 때문에, 이러한 링크자체가 셋들군의 표준화된 공격목표가 될 수도 있다.

3. 결론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셋들군은 실제로 고의적 파괴성향이 있는 풀그림 중, 한가지 부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생성되어 적용하고 있는 명칭이다. 이러한 명칭이 부여된 이유는 생물학적 바이러스가 자신을 복제하는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증식이 가능한 것처럼, 셋들군이 다른 셋들의 무른모 내부에 자기자신을 복제하고 주 셋들의 내부에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수년간 셋들군에 의한 사건들이 널리 공표 됨으로써 셋들군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셋들군들을 걸리시키고 박멸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셋

들군들이 계속적으로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셋들군들은 셋들체계 뿐만 아니라 전산망에 신속하고도 결정적인 피해를 줄 수있으며, 특히 전산망이 구성되어 있는 작동체계에서는 전산망을 통해 감염된 한 무른모로부터 전산망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셋들에 전파가 가능하다는 사실 때문에 셋들군을 발본 색원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셋들군의 개념을 이용하여 적의 전자 시스템에 셋들군으로 작성된 풀그림을 전자적으로 침투시켜서, 감염 및 파괴활동을 하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전 수행가능성을 앞에서 소개하였다. 군의 전자시스템은 여러 종류의 감지기, 제어 시스템, 통신및 전자전 장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의사결정 지원 체제인 C³I 체계, 군수관리 지원체계 등은 셋들체계 및 전산통신망에 거의 의존하고 있어, 군의 전자시스템은 정보화 추세에 따른 첨단기술의 혁신적 개발에 의한 영향이 심화되는 미래전에서 셋들군무기의 공격에 더욱 더 취약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종래의 물리적인 무기의 개념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무기인 셋들군은, 현대전쟁의 한단면을 보여준 걸프전에서 소리없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미국의 특수 전투단에 속해 있는 셋들군 전투단은 이라크의 방공 유도무기 체계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셋들군을 그들의 방공망이 보유하고 있는 전산장비에 투입하여 연합군의 공격이 감행되었을 때에 이라크의 방공망을 효과적으로 교란시킬 수가 있었다. 당시에 이라크의 방공망을 무력화시켰던 셋들군의 위력은, 현재까지 우리가 보아온 어떠한 물리적인 폭탄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이고 파괴적 역량을 발휘하였다고 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힘든 무기인 샘플군은, 상대방의 시스템 내부에 있는 전산처리를 목표로 하며 발견된 후에도 감염된 전산자료와 풀그림, 시스템의 작동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어려울 뿐 아니라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전산 통신망이 구성되어 있는 체계에서는 전산망을 통해 감염된 한 무른모로부터 전산망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샘플에 전파 및 확산이 가능하다는 사실 때문에 샘플군을 발본 색원하기가 쉽지 않고, 예정된 순간에 맞추어서 파괴적이고 혼란을 초래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다. 샘플군 무기의 효과에 대한 예를 들면 적 시스템의 기능을 몰래 바꾸어 놓거나 완전하게 마비시킬 수도 있다. 또한 적의 자료/정보나 기술 무른모를 파괴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자료/정보의 흐름을 차단 또는 지연시킬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샘플군 무기의 효과는 기존의 다른 무기들에서 보기 드문 정도의 시간성과 주문성이라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즉, 무기화된 샘플군은 특정 목표에 대해 임의로 정해진 시간에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샘플군 목표물의 전산 처리기에서 계속 활동하기 때문에 매우 지속적이며 파괴적이다. 만약에 공격 대상인 목표 시스템내의 전산자료를 미리 확보할 수 있다면, 샘플 방해책은 목표 시스템 내에 잠복상태로 있다가 정해진 시간인 됴너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목표 시스템 내에서 접목될 수 있다. 이러한 샘플군 무기의 활동은 은밀

하게 진행되므로 상대방이 그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작동되고 전파될 수 있다. 따라서 전술작전의 개시이전에 공격이 가능하므로 작전계획의 수립 시에 불확실한 요소의 사전 제거가 용이하다.

오늘날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21세기의 정보화 세계로 진입을 위한 거대한 변혁의 물결 속에서 국가의 안보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공군도,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고 순응하려는 힘이 전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지휘통제체계 및 자원관리체계의 전산자동화 및 보유 무기체계의 첨단화 등에 대한 노력의 결실을 맺기 위해, 공군의 모든 구성원이 전력을 다하고 있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군의 무기체계 등에 사용되는 전자시스템의 발전추세는 굳은모(Hardware) 뿐만 아니라 무른모(Software)에 의해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경향성에 의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무기체계나 향후에 보유하려는 무기체계 등이 샘플군의 공격에 더욱 취약하게 될 것이며 그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정보화 군을 건설하고 미래의 정보화 시대에 발생할 수도 있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하여, 정보화 시대에 알맞은 새로운 개념의 무기체계를 수용하고 구축할 수가 있어야 하겠다. **공론**

21세기를 향한 방공포병 발전방향

이 주 범

소령/제8796부대장



1. 서론

방공포병은 6.25 혼란기에 육군에서 창설되어 온갖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고 성장하여 국내적으로 영공수호의 핵심전력으로 발전되어 왔고 완벽한 영공방위를 위한 통합전투력 발휘차원에서 1991.7.1 육군에서 공군으로 전군하여 공군 제2의 전투병과로 새로운 위상을 찾게 되었다.

지난 5년간 항공력과 방공포병력과의 통합된 전투력발휘를 위한 많은 전술토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방공포병의 중요성이 새로이 인식되고 있으며 요즈음 방공포병 전력발전에 기여하는 정책입안자나 실무자들의 관심이 매우 고조되고 있다.

다가올 2000년대에는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국가의 번영을 위하여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그 핵심전력으로서 우리공군력, 공군력속의 방공포병의 역할은 외부의 군사적 위협에 지대한 억제 및 방어효과를 갖

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대전에서의 지대공 유도무기의 중요성은 여러 사례를 통하여 극명하게 보여주었으며, 미래전 양상에 맞는 전술운용과 무기체계의 구비가 매우 중요하고 군사력 건설 역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서 투자하여야 한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볼때 공군의 여러 무기체계는 중요한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는바 다가올 2000년대 안보위협을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현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대한 발전방향을 개략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겠다.

2. 위협고찰

가. 북한

김일성 사망이후 정치적으로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김정일 체제의 고착을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경제파탄으로 인한 민중의 동요가 곳

곳에서 보이며 특히 최근 현성일 등 상류계급인 사들의 계속되는 탈출로 미루어 체제붕괴도 얼마남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은 과거와 변함없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주장하고 한반도에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여 최종적으로 모든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공언하며 세습 사회주의 체제를 완전히 구축하고 대남 혁명전쟁과 무력남침을 위한 전쟁준비를 강화하여 결정적 시기가 되면 평화적이든 비평화적이든 한반도를 적화통일하려고 한다.

북한의 무력남침을 위한 군사전략은 생화학 무기를 사용한 선제 기습공격으로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전후방 동시공격과 전격전으로 전중심을 동시에 전장화하여 우방군 증원이전에 전쟁을 종결하려는 단기 속전속결 전략이다.

북한 국력인 군사력(도표)은 GNP의 약 26%를 국방비에 투자하고 있으며 대부분 지·해·공군의 전력을 평원선이남 전진기지에 배치(병력:66%, 함정:59%, 항공기:38%)하여 기습공격이 가능하게 할뿐만 아니라 군사력의 양적, 질적, 측면에서도 대남우위의 공세적 군사력을 갖고 있다.

나. 주변국

표1) 북한의 국력

구분	현황	한국대비	
국토	121,129km ²	1.2	
인구	2,273만명	0.52	
G N P	211억불	0.075	
경제	성장률	-5.2%('91) -6.7%('92)	
	국방비	55.4억불	0.51

표2) 군사력 현황

구분	주요 전력
지상군	총병력 : 11.7만 야포 : 7401, 전차 : 3,735 장갑차 : 2,395
공군	전폭기 : 844 지원기 : 1388
해군	함정 : 737, 잠수함 : 26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 보면 향후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서 주변국의 추이를 간과할 수 없다. 최근 소련연방의 해체를 따라 동북아 지역에서의 힘의 불균형 상태에 따른 외분의 위협을 미국이 과거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안보문제로 대처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GNP의 15%를 생산하고 있는 일본이 경제대국에 버금가는 군사대국화를 지향하는 조짐이 있고 전통적인 중화사상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이 지역패권국가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며, 러시아 역시 경제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과거의 강대국으로의 복귀를 희망하고 있기에 한반도의 주변국 상황은 잠재적 군사대국화를 향한 각축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일본의 경우 국방예산은 95년의 경우 428억불로서 GNP의 0.959%, 정부예산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비록, GNP의 1% 수준으로서 비교규모면에서는 국제적 수준과 비교할 때 낮은 것이라 볼 수 있으나 한국정부의 연간예산 규모이며 한국국방비의 3배를 넘고 있고 2000년에는 약 600억불로서 미국 방위비의 1/3에 버금간다.

이렇듯 세계의 정치, 경제, 군사상 유럽 및 중

공 양지역과 함께 3대 전략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동북아정세는 탈이념적인 평화공존과 화해협력 분위기가 대세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내에는 여전히 군사충돌의 위협성이 있는 분단국문제, 도서영유권 문제, 해양자원 문제, 민족간의 감정 문제 등이 지역안보를 위협하는 요인들이며 중국과 일본은 미래정세의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현대 첨단무기에 중점을 둔 군비증강에 주력하고 있다.

3. 방공포병 운영개념

가. 임무 및 기능

방공포병의 임무는 지대공 무기체계로 적의 항공기나 유도탄 등 공중으로 공격/침투해 오는 비행체를 파괴, 무력화하거나 공격효과를 감소 시킴으로서 우군의 지속적인 방공작전을 보장하고 전방지역 지상군의 방공기능을 지원하며, 지대지 임무로 전략 및 전술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방공관제, 방공항공기, 방공포병부대의 상호 협조 및 통합운용하는 3위 1체의 개념하에 탐지, 식별, 추적, 격축의 단계별 기능을 수행한다.

나. 능력 및 제한

방공포병 무기체계의 능력으로는 단시간내에 전방향에 대하여 사격을 할 수 있고 광범위한 공격에서 다양한 무기체계를 혼합, 운용하여 동시 교전을 할 수가 있다. 또한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절한 진지변환으로 지속적인 방공작전 수행과 적의 전자방해에도 임무수행이 가능하고 중장거리 유도탄은 기상조건이 주야간 관계없이 전천후 방공작전을 수행하며 필요시

지대지 및 전략임무도 할 수 있다.

반면에 제한사항은 중장거리 진지변화시나 대공포유효사거리 제한으로 제공방어 능력이 감소된다. 또한 심한 지형기복은 레이더의 능력을 제한할 뿐 아니라 전자장비에서 방사되는 전자파와 특수한 장비형태는 적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다.

4. 현실태 및 발전방향

가. 교리

공교 1-1에 명시된 공군력운용은 인력과 무기체계(항공기/방공포병), 기지(비행장/레이더/SAM)의 조직을 바탕으로 유사시는 적에 대하여 공중우세 확보 전쟁수행 잠재력 파괴, 지해상군 작전지원에 운용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평시에는 적의 도발징후를 감시하고 응징보복 능력을 구비하며 고도의 전투태세를 유지하므로서 사전억제의 임무를 수행하며 전시에는 양대 무기체계를 수단으로 공중우세 확보, 적 군사력 잠재력파괴 및 무력화, 지해상군 작전지원과 공중전투지원을 통해 제반 전투작전능력을 극대화하며, 지상전투를 지원함으로써 전력을 보존하고 작전능력을 신장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나. 작계/규정

방공포병은 항공기가 갖는 요격, 격파기능을 공유함으로 시간과 공간상으로 동일전 전장에서 역할분담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전쟁주도권 획득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갖을 것이다.

현 작계규정에 명시하고 있는 이중무기 운용



기준은 항공기위주의 전력 우선배당으로서 방공 포병의 원활한 작전에 많은 제약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작계 5027과 규정에 명시하고 있는 작전개념 및 운용기준은 입안자나 전문가 여론에 의해 쉽게 결정지어져서는 안되며 전례나 각종 모의훈련 결과분석을 통해 전쟁수행 전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 무기체계

(1) 단거리 무기

증가되는 중요거점 방호요구에도 불구하고 실 소요 충족률마저 퇴보하고 있는 국지대공무기 개발 및 전력화사업은 중장거리 SAM의 사각지역을 효과적으로 방호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 개략적인 소요을 볼때 군단급에 M-

SAM(Medium range Surface to Air Missile)급을 전력화하는 한편 단거리 SAM을 개발하거나 도입하여야 하고 휴대용 SAM을 추가배치하여 장차 대공포와 복합무기체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유지하고 있는 대공포 성능개량 등을 통하여 전력극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2) 중거리 무기

장거리 무기체계와 함께 지역방공무기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거리 무기체계인 HAWK 60년대초에 미군원 및 도입으로 30년동안 유지함에 따라 전력수요면이나 장비 수명면에서 전환기에 직면하고 있으나 그동안 두차례에 걸친 장비개량(PIP)에 따라 기동성 향상과 경량화로 작전수행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증가되는 신형무기의 위협과 주변국의 잠재적인 군사력 증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M-SAM 개발이 충실히 추진되어야 하며 전력화가 되는 시기까지 현장비의 운

용능력 극대화를 위해 추가개량(PIP-Ⅲ)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 장거리 무기

역시 60년대에 군원 및 도입으로 배치되어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왔으나 우방국의 무기체계 도태에 따라 원생국의 수리부속 중단으로 장비유지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장거리 무기체계는 SAM-X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요구되며 현 유지중인 NIKE는 단계별로 지대지 전환하여 전략 및 전술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미국의 GPALS(Global Protection Against Limited Strike:제한된 공격에 대한 세계방어) 계획의중점인 TMD(Theater Missile Defense:전구유도탄 방어)체제의 무기체계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세대(SAM-X)와 연계하여 합동전역 미사일 방어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4) 지휘통제체제

80년초 자동화 작전체계 구축에 따라 방공작전은 과거 수동작전체제에서 자동표적할당과 교전지시를 통해 획기적인 통제가 이루어졌다.

특히 지휘통제체제는 지휘소와의 통신 및 정보를 긴밀히 유지하는 연동체제로서 상호 실시간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통합체제로의 구축이 요구된다. 현재 운용중에 있는 지휘통제장비는 능력향상을 위해 개량이 필수적이며 편성장비의 과부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가도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비행기지나 SAM/RDR 기지에 거점방호를 담당하고 있는 단거리 대공무기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도 C²A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단거리 무기의 표적제원은 대부분 육안 식별에 의존하고 있는 바 Lo-Lo-Hi전법으로 침투해오는 적기에 신속히 대응교전하기 위해서는 저고도 탐지 및 통제 레이더의 전력화가 요구된다.

라. 편성 및 교육

북한의 증대되는 전략/전술탄도탄의 공격에 대한 방어능력을 구비하고 순항미사일/대전자와 미사일 위협과 주변국이 대량보유하고 있는 지대지 미사일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중·장거리 SAM기지를 현 수준의 50% 증가하여야하며 인원, 장비, 방공임무 기여도를 고려하여 포대를 대대급으로 상향조정하고 비행기지 단거리 무기는 대대급으로 증편함과 동시에 단거리 복합무기를 배치하여 비행단으로 예측하여야 한다. 인원측면에서도 하향화 되어 있는 포대작전장교의 계급구조는 자율작전 전환시 임무수행상 숙련된 기량발휘에 미흡하므로 장기복무자 위주의 대위급이상 편성하는 것이 작전성공률을 향상시키는 첩경이다.

교육부대의 방공포병장교의 역할은 전무하다 할 수 있다. 공군대학에 편제없이 영관장교 한 명이 보임중에 있는 실정이며 교과목 편성 역시 소개교육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공군내에 전투병과로서 방공포병이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공군대학 및 사관학교에 교관 및 훈육요원으로 전문지식을 갖춘 방공포병장교의 편제 및 보임이 이루어져야 하며 교과목 편성의 확충과 부대교관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이중무기 운용에 대한 효율적인 체계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

5. 결론

방공포병 무기체계의 전장환경에서 기여도를 재래전인 월남전과 현대전인 걸프전에서 충분히 증명하였으므로 각론의 여지가 없다. 현재 운용중인 무기체계는 진부화와 날로 첨단화되고 있는 추세를 6.25참극을 겪은 우리로서는 바라볼 수만 없으며, 잠재적으로 다가오는 주변국 위협을 분쇄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공군력 증강에 힘써야 한다.

한반도 전장환경은 산악지형이 많아 기동성, 레이더 포착률, 군수지원등 제한성이 많은 반면 북괴의 침투효과에는 상대적인 유리함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지대공 단거리를 포함한 중·장거리 유도탄의 역할이 필수적이며 군사장비면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북한의 전재도발 의지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한반도 전장환경에 맞는 무기체계가 준비되어야 한다.

일상에서 공기의 소중함을 잇는것 같이 팔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세대는 50여년전의 나라잃은 설움과 6.25의 고통을 쉽게 잊어버린듯한 착각이 든다.

또한 세계전사에는 자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무기체계의 불비로 매우 어려운 전쟁을 겪은 사례가 많이 있으며, 단지 눈앞의 성과위주의 투자에 치중하고 국가안위에 관한 무위의 투자에 소홀한 국가말로는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북괴의 우세한 항공기, 전술탄도탄, 무인기 위협 등에 대비하고 유사시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공군은 다음 세가지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및 증강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현 운용전력 극대화로서 단거리 무기체계는 개량함과 동시에 C²A체계의 구축과 단거리 휴대용 유도무기의 추가배치가 필요하며 지휘통제장비는 추가 도입 및 개량을 하여 과부하 해소 및 성능 향상을 이루며 중거리 유도무기 역시 후속개량(PIP-Ⅲ)에 대해 심층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작전효율성 향상을 위해 작전인원의 계급상향화와 거점방어를 수행하기 위한 비행기지에 대대급 단거리 유도무기부대 증편이 요구된다.

둘째, 무기체계 개발에 관한 적극적인 투자가 국가기간산업 전반에 걸쳐 거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국내기술수준을 고려한 국책과제 수준의 연구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중거리 유도무기(M-SAM)체계의 연구개발은 시간과 경비



면에서 소요가 많지만 우리 기술향상을 도모하고 군수지원의 원활성을 들어 매우 바람직하다. 기 개발된 저고도 탐지레이더와 비호체계는 방공능력 증가차원에서 전력화되어야 하며 장거리 유도무기(SAM-X)의 전력화 역시 TMD 구성을 고려하여 조기 전력화함으로써 현용중인 NIKE 체계의 단계별 지대지 전환으로 전략, 전술임무 능력을 구비할 수 있다.

셋째, 우수한 성능의 무기체계구비 못지않게 이를 운용할 수 있는 교리 및 작계/규정의 정립이 필요하며 특히 이종무기운용상 항공기 위주의 작전운영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방공포병 무기체계를 적절히 사용토록 하며 효과적인 합동방공작전을 위해 C²A, C³I체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대공방어 능력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안보환경변화와 주한미군의 역할변경, 국방비 증가의 둔화추세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21세기를 대비한 자주적 방위역량 구축

을 목표로 대북한 억제전력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상대적으로 전쟁억제 효과가 큰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요무기 국산화를 위하여 항공기와 첨단 지대공 유도무기체계의 중점보완 및 첨단 국방과학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이 필요하다.

우리 공군은 북한과 주변강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질적으로 대등하거나 우위의 공군력(항공기+방공포병)중심의공세력을 보유함으로써 21세기에는 주변 4강에 대해서는 정치적 역량을 과시하고 대북한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평화통일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공군**

공군 최정예 전투비행단 제3515부대

최첨단 전투기와 무기체계로

21세기 우리 공군의 미래 선도



(F-16의 편대비행 모습)

제3515부대는 올해로 창단 5주년을 맞는, F-16과 KF-16을 운용하는 공군의 최정예 전투비행단이다.

한반도 중심에 있는 부대위치가 의미하듯 공군 3515부대에서 출격한 전력은 휴전선은 물론 동·서해 어느 방향에서 침투하는 적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최선봉의 핵심 전투력이며, 적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의 도발을 망설이게 할 수 밖에 없는 가장 두려운 존재인 것이다.



▲ F-16의 힘찬 이륙장면



▲ 긴급사태에 즉각 대응하는 비상출격



▲ 야간 비행

제3515부대 전투조종사들은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최정예 전투기량을 보유하고 있다. 공대공 전투훈련은 공중훈련장에서 공중 전투기동상황을 실시간 시현시킬 수 있는 지상 훈련장비를 활용하여, 복귀의 신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전술과 복합적 공중 상황 대처능력을 과학적 훈련장비를 활용하여 배양하고 있다.

공대지 전투훈련은 〇〇사격장에서 북한의 표적과 유사한 실물과 가상적 위협장비를 설치하고 초저고도 고속 및 중고도 침투후 정밀폭격훈련과 대규모 편대군 폭격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공격 훈련 후 자동 채점 장비를 활용하여 임무성적을 분석하는 등 실전적 폭격훈련을 통하여 완벽한 임무완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위협 증가에 대비하여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상대기 전력 유지를 위하여, 주·야간 항공기 및 조종사의 즉각 출동 태세를 완비하고 있으며 무기태세별로 비상대기 전력을 증가 운영하고 있다.

공군 3515부대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KFP 전력운영 계획이다. 국책 사업으로 추진중인 KFP 항공기는 주야간 전천우 공대공, 공대지/해 임무를 수행토록 하고 공대공, 공대지 다목적 대대로 구분하여 임무 전문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KF-16 항공기의 성능향상 내용은 야간항법 및 정밀폭격 장비인 LANTIRN을 구비하였고 항공전자장

부 · 대 · 탐 · 방

비가 운용이 편리하게 개선되었으며, GPS(Global Position System)의 운용, AIM-120·HARM·MABRICK 등 각종 무장운용 능력이 크게 신장되었다.

다음으로 제3515부대의 전투기 조종사들이 얼마나 뛰어난 기량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각종 대회 및 표창결과를 통해서 살펴보겠다.

161대대는 92년 승공작전 최우수, 93년 승공작전 종합우수 및 항공기 식별 최우수, 94년 보라매 공중사격 종합우수, 95년 보라매 공중사격 종합우수 및 1만시간 무사고 비행으로 안전표창 등을 받았고 162대대는 91년 보라매 사격대회 종합우수, 93년 2만시간 무사고 비행, 94년 보라매 사격대회 종합최우수, 95년 3만시간 무사고 기록 등을 남겼다.

이는 각 비행대대의 완벽한 임무완수를 위한 피나는 노력의 결과였고, 여기서 또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지원부대의 완벽한 지원활동이다. 정비, 무장, 보급, 수송, 시설, 화지, 헌병, 통신 등 지원부대를 공군 최정예 지원요원이라는 자신감과 사명감으로 항상 최상의 전력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처럼 공군 제3515부대는 최정예 전투비행단으로서 책임감을 인식하고 실전적 전투훈련 강화 및 KFP 전력화를 역점 추진함으로써, 완벽한 영공방위 임무완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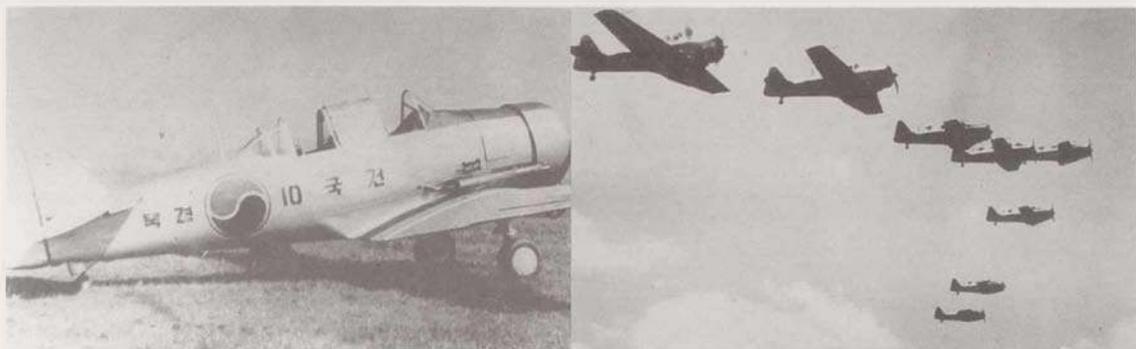
▲ 항공기 무장장착 장면



▲ 고도의 정비기술이 요구되는 항공정비



▲ 기지내의 휴식처인 반달공원



▲ 건국기 명명식

1950년 1월, 언론기관이 주체가 되어 항공기 헌납 모금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하였다. 모금된 총 3억5천만원으로 국방부는 캐나다제 T-6기 10대, 기관총 20정, 실탄 5천발을 구입하여 동년 5월 14일 여의도 기지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국내외 귀빈, 시민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명명식을 가졌다.

이날 명명식에서 T-6기는 국가의 건설과 국민의 애국심을 상징하여 "건국기"라 칭하였다.



▼ 한국공군 최초의 100회 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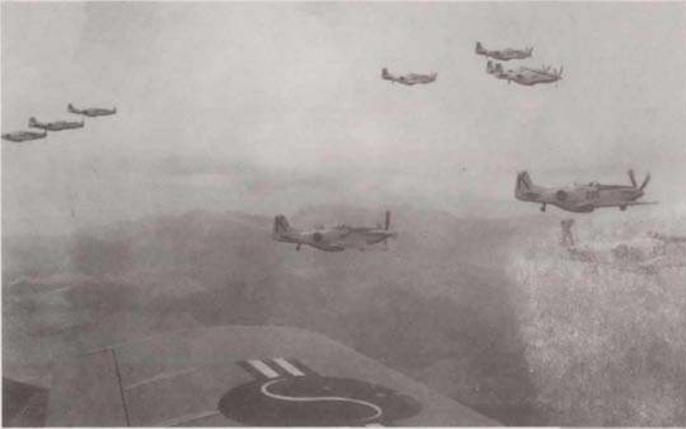
한국전쟁 중 우리 공군은 39명이 100회 이상 출격하여 총 8,276회의 출격기록을 세우는 등 활약을 하였다. (왼에는 김두만 소령이 최초의 100회 출격을 마치고 무사히 귀환하여 전우들의 환영을 받고 있는 장면)



◀ 한국 공군 단독 출격작전

1951년 10월11일, 공군은 강릉 기지에서 출격함으로써 공군역사상 최초로 단독출격하였다.

동 출격작전으로 공군은 인제 동 북방일대의 도로 7개소, 철도 1개소, 적전차 3대를 파괴하는 등 우리 보라매의 우수성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 F-86 도입

1955년 6월20일 우리 공군은 북한의 공군력 증강에 대처하기 위해 당시 주력 전폭기였던 F-51 대신 F-86 제트 전폭기로 기종을 전환하여 최초로 5대를 인수, 실전 배치함으로써 전력을 강화하였다.





▲ 73기상전대는 세계기상의 날을 맞아 각종 기념행사를 열고, 완벽한 기상정보 제공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기념행사는 부대 전장병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기념식에 이어 기상 장비 및 기상사진 전시회, 일일 기상교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또한 인근 초·중·고등학교 학생 5백여명을 초청해 실시한 일일기상 교실에서는 첨단 기계장비에 대한 소개와 기상예보 생산과정을 설명, 청소년들에게 기상과 자연과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3.23)



▲ 제3758부대는 차량운행 6백만km 무사고 기록을 달성하였다. 수송대대 전장병들이 참가한 가운데 거행된 시상식에서 운전병등 수송요원들은 기록달성을 자축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운행을 강화해 1천만km 무사고 기록을 이룩하자고 다짐했다. (3.25)



- ▲ 공군본부 법무관실에서는 한·미 공군 법무장교 및 육·해·공군 작전장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작전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미간 항공작전 수행에 있어서 제기되는 법적 문제점을 논의하고 효율적인 작전법 검토를 통해, 항공작전에 대한 법률지원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세미나는 한국과 미국발표자의 주제발표와 이에 대한 토론순으로 진행됐다. (4.1)



- ▲ 공군대학은 이광학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해 공군 주요지휘관, 육·해·공군 대학총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강당에서 공군대학원(AWC) 졸업식을 거행했다. 이날 졸업의 영광을 차지한 졸업생들은 공군대령 10여명으로서 지난해 12월18일 AWC과정 창설과 함께 입교해 15주동안 최고 수준의 군사교육을 받아왔다. (4.2)



- ▲ 제3591부대는 이광학 참모총장을 비롯해 주요 지휘관·참모 및 부대 전장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일 전투비행대대로서는 세계 최고의 기록을 달성한 101 전투비행대대의 9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시상식을 성대히 거행하였다. (4.9)



- ▲ 중앙전산소는 공군본부 지휘관 참모를 대상으로 멀티미디어 PC조작 및 인터넷 활용법 등을 교육하고, 전장병 및 군우원을 대상으로 관련분야의 첨단기술을 전시하는 "전산교육 및 사무자동화 전시회"를 공군본부 중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5.13~17)

최근 북한의 대남 선전 · 선동 실태

공군 기무부대 자료제공

1. 북한의 대남전략 개관

북한은 1948년 9월 김일성 정권을 수립한 이후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위한 무력투쟁(6·25 남침)에 이어, 정치투쟁 등을 계속 추구해 오고 있다.

통일을 '남조선 혁명'의 전제로, 그리고 '남조선 혁명'을 전 조선 혁명의 일부분으로 규정하면서 기본적으로 '선 남조선 혁명', '후 공산화 통일'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1964년 2월 27일 노동당 중앙위 4기 8차 회의를 개최하여 ① 북반부 사회주의 혁명역량 강화, ② 남조선 혁명역량 강화, ③ 국제 혁명역량 강화 등 「3대 혁명역량 강화」를 제시하였으며, '남조선 혁명역량 강화'를 위해 「맑스·레닌주의 당인 지하당 '통일혁명당' 구축」, 「반혁명역량의 약화·와해」, 「혁명역량 강화를 위한 통일전선 형성」 등을 주요과업으로 공식 설정하였다.

한편, 북한은 '남조선 혁명'과 관련하여 평화

적인 길은 없으며 폭력적 방도가 있을 뿐이라고 강조하면서 '남조선 혁명'의 폭력혁명 불가피성을 감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1970년 11월 노동당 5차 대회에서 '남조선 혁명'의 성격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반미 자주화·반파쇼 민주화 혁명)으로 규정하였으며, 주한미군 철수 및 반공법규(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통한 남한 정부(반공정부) 전복 및 「민주정권」(공산화 정권) 수립에 의한 합작통일이라는 단계적 노선을 추구해 오고 있다.

그럼 여기서 지난 1994년 7월 8일 6·25의 전범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북한의 대남전략의 변화 여부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혁명전략이란 "일정한 혁명단계에서 설정된 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기본방침"으로서 그 목표를 완성할 때까지 변화하지 않는다.

그 구체적 증거로 북한은 김일성 사후에도 '1995년을 전쟁준비를 완전히 끝내는 해'로 선언하고 전쟁 돌입태세와 방어시설 공사를 완료

하도록 독려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체 병력과 장비의 65% 이상을 평양 - 원산 이남에 전진 배치하고 특수부대 10만여 명이 침투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유사시 수도권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240밀리 방사포와 170밀리 자주포를 군사분계선 일대에 집중 포진시켰고 SUCD 미사일을 다탄두식으로 개량한 데 이어, 대포동 1·2호 미사일과 대규모 살상력을 가진 기화폭탄 등 신형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남공작기구와 역량을 대폭 보강했는데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에 특급연구원 350명을 배치, 남한정세 수집·분석과 대남전략·전술 및 공작방향 연구에 주력하는 한편, 노동당 작전부 산하에 「414 연구소」를 설치, 각종 침투 장비와 통신장비·위장품·독침 등 공작장비의 개발과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난해 10월 17일 발생한 1사단 무장공비 침투사건(1명 사살)과 10월 24일 충남부여에서 발생한 무장간첩사건(1명 생포, 1명 사살)이 거듭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김일성 사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전쟁준비 실태와 최근의 대남도발 양상을 직시할 때, 주변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든 한반도를 무력으로 적화하겠다는 기본 목표에는 결코 변화가 없음이 분명한 것이다.

2. 북한의 대남전술의 변화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전술이란 “일정한 혁명단계에서 내세운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동방침(행동방식)”이며, “정세의 변동에 따라 그에 알맞는 투쟁 방침을 결정하며 시기적으로 되는 투쟁형태를 규정하는 것과 같은 것”

이다.

따라서 전술은 정세 변화에 따라 가변성을 가질 수 있으며, 북한의 대남전술 역시 시대적 여건과 그들이 추구하는 노선에 따라 변화를 보여왔다.

최근 북한의 대내외 정세는 국가주석과 총비서 공석 등 비정상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일의 권위와 지도력 부각에 전력하면서 나진·선봉의 「자유무역 경제지대」 개발을 통한 경제난 타개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극심한 생활고등으로 주민불만이 표면화되고 사회 일탈 현상이 확산되는 등 경제난과 체제불안 가중으로 총체적 위기관리에 부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북한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감을 조성함으로써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대남 적제심을 포지도록 하여 체제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민족」이라는 이름 아래 대남 통일투쟁을 부추기고 있으며, 「핵카드」를 활용하여 세계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미국과 정치·외교·군사 등 다방면에 걸쳐 협상을 실현시킴으로써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고립시키고 그들의 「법통성」을 강화하려는 술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전술은 소위 ‘시멘트 전술’과 ‘갯근 전술’로 묘사할 수 있다.

‘시멘트 전술’은 김일성이 1973년 대남 사업 분야 책임 일꾼들에게 한 연설에서 “남조선과 해외동포들 가운데는 반미·반정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무수히 널려져 있는데, 시멘트가 들어가 그것을 콘크리트화 해서 강력한 조직력을 가진 혁명역량으로 묶어 세워야 한다”는 말에서 연유된 통일전선전술을 뜻하며, 이는 남한내 「혁명동력 조성확대」(청년학생 혁명주력군화,

노동자·농민계층을 투쟁전선으로 연합, 종교계 동조 및 측면지원, 반정부 성향자 규합 통일전선 형성), 즉 혁명의 주관적 요인 성숙에 목적이 있다.

‘갓끈 전술’은 김일성이 1972년 김일성 정치군사대학 졸업생들에게 연설시 “갓은 두 개의 끈으로 머리 위에 유지되고 있는데, 남조선 정권의 갓은 미국과 일본이란 끈으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가운데 하나만 잘라내도 머리에서 날아가 버린다”고 말한 데서 비롯된, 한미·한일간을 이간하고 남한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전술을 의미한다.

이는 「해외 공작기지 신설 강화」(조총련을 통한 공작역량 확대, 북미 등지에서 「제2의 조총련」 신설 공작 기지화, 기타지역 공작여건 개발), 즉 혁명의 객관적 요인을 유리한 방향으로 돌려 놓아 혁명대상에 대한 외부지원을 차단하려는 데 목적을 둔 것이다.

또한, 북한은 남한에서 문민정부 출범등 정치질서가 재편되면서 반파쇼를 슬로건으로 하는 정치투쟁의 효용성이 줄어들자, 통일문제를 집중 공략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양상이다.

즉, ‘통일’이 민족의 염원이라는 사실을 교묘히 이용하여 소위 「통일투쟁」을 빙자 우리 정부를 ‘반통일 집단’으로 규정하고 전북대상으로 부각시킴은 물론, ‘친북 반정부 통일전선’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남·북·해외의 소위 ‘통일세력’을 총규합하여 현 정권을 ‘반통일 세력’으로 몰아 고립·전복시킨다는 「신통일전선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3. '95대남투쟁 방향 및 주요양상

북한은 작년에도 예외없이 남한 사회의 국론분열과 반정부 소요 촉발을 노린, '95대남 투쟁 목표 및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1986년부터 연례화되고 있는 이 대남 투쟁방향은 흑색선전 조직인 ‘민민전’ (한국민족민주전선의 약칭) 명의로 매년 초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은 한국민들의 반정부·반미·통일투쟁 선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북한은 1995년 1월 4일 서울에서 열린 「민민전 중앙위 전체회의」에서 5개항의 ‘통일구국선언’과 52개의 투쟁구호를 채택했다고 민민전 방송을 통해 발표(1995. 1. 16)한 바 있다.

이때 제시한 ‘1995년 투쟁방향’의 특징은 올해가 해방과 분단 50주년이라는 점과, 그들이 선전하고 있는 ‘통일원년’ 등을 감안한 듯 전반적으로 연방제 통일과 남한정권타도 투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투쟁구호가 통일분야와 민주화관련 내용에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김정일 찬양과 자주화·연대투쟁 등도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 선언과 투쟁구호들의 특징은 북한이 ‘對美유연, 對南강경’이라는 전략기조하에 대미관계 개선에 주력하는 대신에, 남북 당국간의 실질대화는 극구 기피하면서 소위 ‘민족대단결’을 내세운 통일 대화공세에 주력한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는 사실이다.

5개항으로 된 구국선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1995년 통일구국의 1차 과녁은 평화통일 걸림돌의 제거이다. 전체 애국민중은 통일의 암초인 반김○○ 투쟁에 적극 나서고 지자체 선거를 문민 반역정권 타도의 계기로 삼자.

• 둘째, 1995년 통일구국의 중요과제는 분단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국가보안법과 콘크리트 장벽을 허물어 버리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

• 셋째, 1995년 통일구국의 근본 출발점은 민족적 자주권을 되찾는 것이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고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풀어 나가자.

• 넷째, 1995년 통일구국의 행동좌표는 민족 단합에 있다. 反김○○ 연합 전선을 형성하여 통일민주 세력을 하나로 결집하고 범민련 지역본부를 이남에도 건립하자.

• 다섯째, 1995년 통일구국의 실천목표는 연방제 통일의 기틀 마련이다. 모든 동포들은 연방제 통일을 최선의 방도로 확정하고 중립적인 연방제 통일국가를 세우자.

이상과 같은 투쟁구호 52개를 분야별로 나누어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김정일 찬양」 구호는 “민족의 태양 김정일 영수 충효일심으로 받들자”, “문무총효 겸비한 김정일 장군님을 구심점으로 전 민족이 대단합하여 조국통일 실현하자” 등 9개 항이다. 「통일투쟁」 구호는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실현하자”, “승공도 적화도 아닌 연방제 통일로 민족분열 끝장내자”, “북-미 사이의 휴전협정 폐기하고 평화협정 체결하자” 등 13개 항이다. 「자주화 투쟁」 구호는 “사대로 망한나라 자주로 살리자”, “자주없이 통일없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자” 등 8개 항이다. 「민주화 투쟁」 구호는 “세계화는 망국화다. 세계화 요설에 철주를 내리자” 등 15개 항이다. 「연대투쟁」 구호는 “반과소 민주연합전선 형성하자”, “각계 운동조직 확대 및 강력한 연대 공

동투쟁 벌여 나가자” 등 7개 항이다.

이러한 기초하에 북한은 적화통일의 최대 장애요소인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핵심과제로 내세우고, 연초부터 선전·선동을 강화해 왔다.

북한은 1997년 12월 21일 ‘당·정·단체 대표협의회’ (평양)를 개최,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국가보안법 철폐 대책위원회’ (위원장 : 장철 부총리)를 결성한 이래, “남조선 당국이 국보법에 매달리는 것은 반민족 반통일적 정체를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남조선에서 국보법이 철폐되지 않는 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은 물론 교류·협력은 이루어질 수 없다”며 국보법 철폐를 남북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위장단체와 각종 선전매체를 동원, 조직적 선동공세를 폈다. 또 1995년 1월 11일 ‘민민전’ 명의의 “국보법 진상 폭로 고발장”을 발표한 후 국보법 철폐투쟁을 출소 공산주의자 송환 문제 및 정권 타도투쟁과 연계, 선동하기도 했다. 이후 국보법 철폐 대책위는 “공개 질문장”을 통해 국보법을 남북간 대화·협력의 장애물로 규정하는 한편(현 대통령의 야당 총재 당시 “국보법 철폐 주장” 사실을 상기시켜 대통령에 대한 불신 조장), 민민전방송 등 선전매체를 통해 남한내 친북세력을 대상으로 ‘국보법 철폐 투쟁 본부’ 결성을 촉구하는 등 투쟁방향을 제시하고, 한총련 및 산하 각 대학 총학생회에도 ‘국보법 철폐 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투쟁을 주도할 것을 선동하였다.

또한 “해방 50년 분단 50년”을 내세워 ‘대민족회의’ 및 ‘8·15 통일대축전’ 행사를 개최하면서 남한의 친북세력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을 선동하는 등 통일투쟁을 부추겼다. 특히 북한의 각종 선전매체를 이용, 동 행사들의 당위성

을 역설하고 남한내 운동권 단체와 개인들에게 편지를 발송하여 동 행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투쟁할 것을 집요하게 선전·선동하였다.

또 남한 학생운동권을 대상으로 대남방송(1995.6.6~6.10) 등을 통해 “범청학련 북측본부 산하 각 학생위원회 명의로 서울대·전남대 학생회 등 국내 65개 대학에 8·15 통일 대축전 성사투쟁에 나설 것을 호소하는 편지를 발송하였다”고 보도하고, 한총련에 대해서는 민민전방송(7.11)을 통해 “1989년 7월 임수경이 전대협 대표로 평양축전에 참가한 것은 역사에 빛나는 통일애국 활동”, “한총련 백만학도 여러분도 6년전 전대협 대표의 평양축전 참가로 분단의 장벽에 파열구를 낸 선배들처럼 8·15 민족통일축제 실현을 위해 응분의 기여를 해야 ……”, 라고 선동하는 등 8·15 통일투쟁 성사를 위한 국내 학생운동권의 밀입북을 사주한 바 있다.

제야·종교계 운동권단체에 대해서도 “8·15 남북 공동행사” 성사투쟁을 선동하는 편지를 발송한 후, 1995년 5월 28일 평양방송을 통해 “조선기독교도연맹 중앙위가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편지를 발송했다”고 보도하고 중앙방송(5.30)을 통해서도 “범민련 북측본부, 조선천주교인협회, 조선불교도연맹 등 3개 단체가 범민련 남측본부와 천주교중앙협의회·정사단·평신도 사도직협의회 등 천주교 단체 및 평불협·전불협 등 불교단체에 각각 편지를 발송했다”고 보도하였다.

그 외에도 제일 친북인을 명의로 국내 대학교수·기업인 등에게까지 무차별로 친북 통일투쟁에 나설 것을 선동하는 편지공세를 폈다.

북한은 김일성 사망 1주기(7.8)을 맞아 “1990년대 연방제 통일실현”이 김일성의 간곡

한 ‘통일유훈’이라면서 국내 친북 세력들에게 ‘통일유훈’ 관철에 매진할 것을 선동하였다.

한편 북한은 남한의 근로자들을 투쟁세력으로 양성하고 의식화시켜 남한 사회의 혼란을 조성할 목적으로 5·1 노동절을 기해 근로자 총파업투쟁을 극렬 선동하였다. 특히 한국전기통신공사 노조파업에 편승, 노동자들의 투쟁을 정치투쟁·계급투쟁으로 전환시킬 것을 집중 선동하였다. 또 메이데이(5.1)를 전후하여 노동계 침투 좌익세력들에게 “한국 노동운동이 질적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주체사상을 향도이념으로 정립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면서, “각지의 노동자학교와 의식화 공간들을 노동자 대중 속에 주체사상을 보급·전파하는 거점으로 되게 하라”(4.28. 민민전 방송)는 등 노동현장의 주변여건을 최대한 이용, 주체사상 고취활동에 주력할 것을 선동하였다.

그리고 최근의 ‘민주노총’ 출범과 관련, 북한이 민민전 방송을 통해 집중적인 선동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민주노총의 투쟁노선과 방향이 “노동계급 주도하의 남조선혁명”이라는 그들의 대남전략 전술과 합치되고 있는데 착안, 강력한 ‘투쟁체’로 가시화된 동 조직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데 있고, 최근의 5·18 특별법 제정문제·노 전대통령 비자금사건 등으로 고조된 문제권의 반정부투쟁 분위기에 편승, 노동계를 자극함으로써 투쟁열기를 더욱 제고시키려는 데 있다.

이 같은 추세로 미루어 볼 때, 1996년 총선거와 노동계의 임투(임금투쟁)를 겨냥, 노동법 개정·노동자 정치 세력화 등을 내세운 선전·선동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 사회의 혼란을 부추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등관**

예비역 고급장교들의 한반도 주변안보에 대한 인식형태 연구

목진휴

교수/국민대학교 행정학과



I. 서론

국방의 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다 전역한 장군급 고급장교는 그 수가 1000여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군을 떠나 사회의 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비록 군을 떠났지만 이들의 군에 대한 지식이나 장기간의 군생활을 통해 습득한 경험은, 어떻게 집약되고 활용되는가에 따라 우리 군의 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군을 떠나 군을 군의 일부로서가 아닌 시민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이들은, 우리 군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집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사회 여러분야에서 전역 후의 생활을 영위하는 전역 군 고급장교들이 우리 군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우리 군이 지금까지 내재하고 있었던, 그러나 집약되어 제기 될 수 없었던 문제점뿐만

아니라 우리 군이 내일의 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앞으로 시도해야 할 여러가지의 정책적 개선방안들을 강구하는데 중요한 일부분이 되리라 본다.

이러한 노력은 작금 문민정부의 탄생과 더불어 진행되어 온 군개혁과 21세기를 목전에 둔 우리 사회의 준비태세 정립이라는 과제와 더불어, 군이 처한 위치를 재조명하며 새로운 조류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물론 새시대에 부응하는 군의 개혁을 위해 군 내부에서 다각적으로 심도있게 또한 적극적으로 그 방안이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들이 보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특히 이들이 군 내부에서 군의 미래를 구상하기 때문에 사고의 틀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면서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현역 복무를 마감한 고급장교(대령급

이상)들이 어떻게 우리 군을 평가하며, 보다 더 발전적인 군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노력에 대하여 어떠한 제안을 하는가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여기에서는 예비역 고급장교들이 한반도를 둘러싼 아태지역의 안보환경을 우리의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남북한의 군사적 관계를 평화공존 상태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인식하며 궁극적으로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군축 가능성에 대한 제언을 알아보는 데 논의의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전역 고급장교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대상으로는 약 1,200여명의 장성급 예비역 장교와 약 200여명의 대령급 예비역 장교를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1995년 7월중에 우편설문의 형태로 실시되었으며, 1995년 7월 1일자 한국군사문제 연구원에 등록된 예비역 장성 전원과 예비역 대령 일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가 예비역 장교의 국방인식 조사임으로 표본은 임의표본이라 할 수 있으며, 실상 표본이라기 보다는 모집단(예비역 대령의 경우는 제외)이라 해도 무관할 것이다.

〈표 1〉 모집단과 응답집단의 속성비교

구 분	전 체		응 답 자	
	도 수	비율(%)	도 수	비율(%)
준 장	574	55.0	158	60.3
소 장	332	31.9	80	30.5
중 장	91	8.7	18	6.9
대 장	46	4.4	6	2.3
합 계	1,043	100.0	262	100.0

〈표 1〉에는 장군급 예비역 장교의 계급별 분포와 본 설문조사의 응답자의 계급별 분포가 제시되어 있다. 장군급 예비역의 경우에 있어 표본

집단의 구성을 보면 준장이 574명으로 전체 1,043명의 55.0%를 차지하고 있고, 소장이 332명으로 31.9%, 중장이 91명으로 8.7%, 대장이 46명으로 4.4%를 차지하고 있다. 본 설문 응답자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준장이 전체 응답자의 60.3%, 소장이 30.5%, 중장이 6.9%, 대장이 2.3%로 전체의 구성비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본 설문의 응답자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설문에 대한 응답율은 25% 정도인 1043명 중 262명에 불과하다. 예비역 대령급 장교 200명에도 동일한 설문지를 발송하여 50명이 회신하였다. 그래서 장군급과 대령급을 합친 경우 총 1243명에게 설문을 의뢰하였고 이 중 312명이 응답하여 25.1%의 응답율을 보였다. 기대보다 낮은 응답율이 설문조사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으나 논의된 바와 같이 응답자의 계급별 분포의 대표성이 대단히 높으며, 모집단의 속성이 적어도 안보에 관한 대단히 동질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본 연구의 결과로 예비역 장교들의 안보에 관한 인식연구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

II. 군사안보환경의 실상과 인식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사각의 안보적 위상과 관련하여 그 실상을 파악하고 남북한간의 군사적 대치환경이 한국전 중단 이후 어떠한 양상으로 변해 왔는가를 국방부의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알아 본 다음, 한반도에서의 군비통제와 군감축에 대한 가능성을 제고한다. 각 항목별로 실상

을 파악하고 설문응답자들의 설문항목에 대한 응답을 중심으로 그들의 인식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그 유사점이나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본다.

1. 한반도 주변 군사안보환경에 대한 실상과 인식

세계 제2차대전의 종식과 더불어 한반도는 미 소간 동서냉전의 대리전을 수행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남아 왔다. 이에 더하여 한국전쟁으로 인한 남북간의 긴장상태는 지금도 여러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주변상황은 그간 많은 변화를 경험하여 왔다. 상황변화의 대표적인 예로 월남의 공산화, 중국의 개방화, 소련의 붕괴로 인한 양극체제의 붕괴, 일본의 재무장화 및 북한 김일성체제의 종식과 김정일체제의 부상과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국교 수교를 통한 한국의 북방외교노력 등을 들 수 있다.

결국, 한반도 주변상황의 변화는 남북간 긴장완화를 촉발한 경우도 있고 그 반대로 긴장을 더욱 심화시킨 사건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면 한국내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까지 한반도에는 군사적 대치의 시대로부터 평화공존 내지는 평화통일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인상을 심어 주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국가안보에 대한 의식변화를 초래하여 더 이상 지속적인 군사긴장의 상태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장달중등의 학자들은 극동지역의 안보상황이 냉전종식으로 더욱 불안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에 대한 근거는

대충 두 가지의 입장으로 정리된다. 첫째, 1991년의 경우 세계의 군사비지출에 대한 동아시아, 남아시아의 군사비 비중이 1981년에 비해 1.9%와 0.4%씩 증가하였다. 증가율은 평균하여 1.6% 정도 되고 있다.

둘째, 일본의 군사비 지출이 전체예산의 4.7%의 정도로 성장하였다. 또한, 미국과 구소련의 지역에서의 군사적 균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으로 패권주의의 부활이 가능하며 이로 인한 군사적인 불안이 가중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그 사실로써 설명력이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주장을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실의 불필요한 확대해석이며 극단적인 판단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도 한다. 그 이유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 아태지역의 군사적 패권을 경쟁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경우를 보면, 중국의 경우, 국방비 증가는 약 1.3%에 머무르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4.7%의 증가율이라 하나 일본 경제의 성장율을 감안하고, 일본이 GNP의 1% 수준에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 성장은 경제성장의 정도나 그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둘째, 남아시아 지역의 군사비지출이 증가한다고 하나, 그 지역이 세계 전체국가들의 국방지출 총액에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의 경우 약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 지역의 군비증가로 소규모 지역분쟁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을지 모르나, 그 규모는 지극히 적을 것이고 한반도 주변까지 영향을 초래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보면, 극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심화될 것으로 보는 입장은 그 나름대로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으로 구성된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응답의 내용을 대갈하여 주변국 안보환경에 대한 일반적 질문과 일본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으로 나누어 보면, 응답자들이 인지하는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은 대단히 비관적이거나 불확실하다.

먼저, 응답자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군비통제가 가능하리라 보지 않고 있다. 총 307명의 응답자 중 한반도 주변에서의 군비통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는 불과 21명이며 이는 전체 응답자의 6.8%에 국한된다. 그러나, 이들은 군비통제가 전혀 불가능하게도 보지 않음이 명백하다. 즉 응답자의 13.4%만이 불가능성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동의나 반대가 강하지 않고 중간적인 반응을 보여 21.8%에 달하는 정도가 한반도 주변에서의 군축 가능성에 특별한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 이와 함께 단순한 동의나 반대의 입장을 보인 응답자를 합하면 전체의 79.8%에 달하는 응답자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응답자들의 중간적이고 다소 모호한 태도는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이 대단히 불확실하고 급격하게 변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 설문응답자의 한반도 주변안보환경에 대한 인식

문 항	전적으로 반대	반 대	그저 그림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	합 계
한반도 주변의 군비통제는 가능할 것이다	41 (13.4)	89 (29.0)	67 (21.8)	89 (29.0)	21 (6.8)	307 (100.0)
한국은 핵무장이 필요하다	15 (4.9)	40 (13.0)	16 (5.2)	99 (32.1)	138 (44.8)	308 (100.0)

문 항	전적으로 반대	반 대	그저 그림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	합 계
일본은 군사대국화 될 것이다.	5 (1.6)	6 (1.9)	11 (3.6)	93 (30.2)	193 (62.7)	308 (100.0)
일본은 궁극적으로 핵무장할 것이다	12 (3.9)	17 (5.5)	25 (8.1)	117 (37.9)	138 (44.7)	309 (100.0)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이 대단히 불확실하고 급격하게 변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음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으로 응답자들을 한국의 핵무장 필요성을 들고 있는 것 같다. 즉, 응답자 전체의 과반수에 달하는 138명이 한국은 장차 핵무장이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여기에 일반적인 동의집단인 99명까지 포함하면 전체 응답자의 76.9%인 286명이 한국의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바로 한국이 처한 안보환경이 결코 낙관적이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기대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주지하는 바, 한반도의 비핵화 정책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상당수의 예비역 고급장교들은 정부의 비핵화정책이 그들이 인식하는 한반도 주변상황과는 거리가 있다고 보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응답자들이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을 비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은 그들이 일본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에도 잘 반영되고 있다. 즉, 그들이 안보상황을 불확실하고 비관적으로 보는 만큼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핵무장 가능성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2.7%에 달하는 193명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필연시한다. 일본이 궁극적으로 핵으로 무장할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 역시 45%에나 달하고 있다.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일반적

동의를 합하게 되면 전체의 82.6%가 된다. 이는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인지하는 76.9%보다도 약 6% 포인트나 높은 인식도이고, 이는 바로 상대적으로 그 우려의 정도가 훨씬 높다는 점을 반영한다.

〈표 3〉에서 보듯이 응답자의 대부분은 현재의 안보상황을 감안해 볼 때,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 가능성을 높게 인지하고 있다. 즉, 응답자의 77.4%에 해당하는 234명이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 가능성은 아주 높든지 적어도 다소 높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

〈표 3〉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 가능성에 대한 인식

구분	아주높다	다소높다	별로없다	전혀없다	합계
한반도의 전쟁가능성	43 (14.2)	191 (63.2)	63 (20.9)	7 (1.7)	302 (100.0)

전쟁재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는 응답자는 1.7%에 불과한 5명에 국한되며 상황을 다소 낙관적으로 보는 20.9%의 응답자를 포함해도,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은 한반도의 상황을 대단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응답자들이 인지하는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은 비관적이고 불확실하며, 그렇기에 결국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한반도 주변 국가들은 궁극적으로 핵으로 무장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평화의 유지를 무력정도의 균형으로 보는 시각을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2. 남북한 군사대치 환경

주지하듯 전세계의 어느 곳도 한반도에서처럼 실질적인 정치이념이 다른, 사실상 두 국가가 근 반세기라는 장기간에 걸쳐 군사적 대치상황을 경험하는 곳은 없을 것이다. 반영구적인 휴전상황 하의 남북간 긴장은 쌍방간에 빈번한 무력충돌 사태를 초래하였다. 그 예로서 크고 작은 군사적 충돌이 비무장지대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남과 무장간첩사건 등은 긴장의 유지 또는 증폭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하여 왔다.

국방부의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군사도발 행위를 계속하여 왔다. 예를 들자면, 군사분계선 주변에서는 무력도발의 형태로 긴장을 야기해 왔으며, 무장간첩의 남파로 민심을 교란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선 및 항공기 등을 수시로 남북 또는 피격하였으며, 정부요인들의 암살도 기도하였다. 이러한 무력도발 행위는 한반도에 긴장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특히 남한에서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처해하 한다는 국민적 동의의 형성에 지대한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다.

〈표 4〉는 1963년에서 1991년까지 국방부가 집계한 북한의 남한에 대한 주요 군사도발의 빈도와 그 충격강도를 제시하고 있다. 충격강도의 기준을 1에서 10까지 나누어 볼 때, 그 강도가 5 이상인 경우는 북한의 군사도발이 남한으로 하여금 위협을 대중화된 상태로 느끼게 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대중화된 군사위협이란 함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하는 불안감이 현실화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

*) 최근의 사회지도자 인식조사나 육군사관학교의 안보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0대 50정도나, 그보다는 다소 낮은 비율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에는 정부의 국방에 대한 정책적 우선 노력이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케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충격강도의 측정을 위한 지표에 대한 설명은 <표 4>의 내용주를 참조하면 된다.

<표 4> 남북한간의 무력충돌의 빈도와 강도

연 도	빈 도	강 도	평 균
1963	3	11	3.7
1964	2	7	3.5
1965	7	31	4.4
1966	16	40	2.5
1967	18	101	5.6
1968	8	50	6.3
1969	8	50	6.3
1970	5	31	6.2
1960년대 평균	61	321	5.3
1971	9	45	5.0
1972	1	4	4.0
1973	20	30	1.5
1974	10	59	5.9
1975	15	50	3.3
1976	2	13	6.5
1977	3	11	3.7
1978	5	26	5.2
1979	2	8	4.0
1980	8	38	4.8
1970년대 평균	75	284	3.8
1981	13	15	1.2
1982	7	12	1.7
1983	7	33	4.7
1984	4	10	2.5
1985	1	5	5.0
1986	4	13	3.3
1987	5	23	4.6
1988	1	1	1.0
1989	5	25	5.0
1990	3	6	2.0
1991	3	7	2.3
1980년대 평균	53	150	2.8
전체기간	189	755	4.0

출처 : 국방부, 1991 「국방백서, 1991~1992」 군인공제회, pp. 429~436.

설명주 : 국방백서(1991)의 부록으로 제시된 북한의 대남도발 실태의 자료를 사용하여, 남한의 입장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의 빈도와 강도를 측

정하였다. 측정된 강도는 합해졌고 빈도수에 의해 나누어져 해당연도의 평균치를 구했다. 군사도발의 강도는 도발로 인한 피해의 정도를 1(가장 약함)에서 10(가장 강함)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충격의 교환 등과 같은 단순한 충돌은 1을, 반면에 김신조사건과 같은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킨 사안은 10을 책정하였고, 민간사상자를 초래한 간첩사건이나 어선납북 등은 5의 값을 부여하였다.

전체 기간을 통해 측정된 북한의 군사도발이 남한사회에 초래한 평균 충격강도는 4.0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므로 평균치로 볼 경우, 군사위협이 대중화는 항상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으나 그 강도는 상당한 정도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전체 기간을 시대별로 나누어 보면, 남한은 북한의 군사도발로 인해 실질적이고 대중적인 군사위협을 느꼈던 시대가 빈번하게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력충돌의 강도가 가장 큰 시대는 1960년대로서 평균충격강도가 5.3에 달하고 있다. 특히, 1960년대 말인 1968년에서 1970년까지 3년간은 줄곧 평균수치가 6.3정도에 달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한 북한의 군사도발의 내용을 살펴보면, 1968년에 무장간첩단의 청와대 기습미수사건인 1·21사태,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및 울진·삼척지역의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있었으며, 1969년의 경우 미국 EC-121기 격추사건과 한국민항기 납북사건, 그리고 1970년에는 국립묘지 현충문 폭파사건이 있었다. 전체 기간을 통해 보면, 총 16회에 달하는 충격강도 10의 사건이 있었는데 1960년대에 이 중 68.8%에 해당하는 11건의 사건이 집중되어 있다. 그럼으로 1960년대는 남한이 북한의 위협을 실질적으로 느낀 시대였다고 볼 수 있다.

표에는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북한의 군사

도발의 강도를 평균하여 3.8과 2.8로 제시하고 있다. 1970년대의 경우, 1971년, 1974년, 1976년 및 1978년 등 4년에 있어 강도 5.0 이상의 북한의 군사위협이 존재하였으며, 1980년대의 경우 1985년과 1989년에 한하여 5.0 이상의 충격을 초래한 북한의 군사도발이 있었다. 그러나, 평균치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1986년과 1987년의 김포공항 폭파사건과 KAL기 폭파사건을 들 수 있다. 그 해에 발생한 다른 가벼운 군사도발 사건으로 인해 평균치가 낮아졌으나, 이들 사건은 국민들로 하여금 국방태세 완비의 필요성을 유발케 하는데 충분한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과의 군사대치와 관련된 본 연구의 결과는 두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는 응답자들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어떻게 평가하는 가이며, 다음으로는 응답자들이 인지하는 우리의 군사적 대처능력과 방안에 대한 평가로 볼 수 있다.

〈표 5〉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남북한 군사관계

문 항	전적으로 반대	반 대	그저 그림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	합 계
한국의 전력이 북한의 전력보다 아직도 열세하다	8 (2.6)	19 (6.1)	24 (7.7)	126 (40.6)	133 (42.9)	310 (100.0)
남북정전협정체제는 평화협정체제로 바꾸어져야 한다	70 (23.2)	42 (13.9)	25 (8.3)	91 (30.1)	74 (24.5)	302 (100.0)

응답자들이 보는 남북한 군사관계는 대치적이며 북한의 절대우위의 군사력으로 종합될 수 있으며, 남한의 열세적 군사력은 주한미군의 도움으로 메꾸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표 5〉와 〈표 6〉의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더

욱 명백해진다. 먼저 〈표 5〉에는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의 군사력보다 열세적이라 보는 응답이 제시되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83.5%에 달하는 259명은 이러한 평가에 동의하고 있다. 남북한 군사력이 동등하지 않다고 보는 응답자들은, 남북간 군사정전 협정체제가 평화협정체제로의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남북한 군사력 불균형 상태를 고착시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강하게 믿고 있는 응답자들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표 6〉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주한미군의 역할

문 항	대단히 높다	높은 편이다	별 기여가 없다	오히려 부담이 된다	합 계
주한미군의 한반도에서의 평화유지에 대한 기여도	242 (78.3)	63 (20.4)	4 (1.3)	0 (0.0)	309 (100.0)

주한미군의 한반도 평화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보는 시각은 절대적으로 긍정적이다. 응답자의 98.7%는 주한미군이 북한의 무력위협을 견제하고, 주변 안보상황을 평화체제로 유지케하는 결정적인 동인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본 설문에 응답한 예비역 고급장교들은 남북한간의 군사적 대치관계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으며 그 정도는 남한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전갈된 남북한 군사적 대치상황의 변천 분석에서는 최근에 들어 무력충돌의 빈번도나 강도는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예비역 고급장교들의 인식은 비록 무력충돌의 빈번도는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현상이 남북한간 군사력의 균형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

시 사 안 보

고 있는 듯하다.

남북한간에 군사력이 불균형적이라 보며 그 우위가 북한 쪽에서 점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들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대처하는 가장 중요한 군사적 방안을 초전 즉응태세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들에게 북한 군사도발 대처방안으로 <표 7>에 제시된 6가지 방안을 그 중요도에 따라 우선 순위를 표시하도록 하여 얻은 것이다.

표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 중 80%에 해당하는 212명은 여섯 가지의 군사대처 방안중 초전 즉응태세의 확립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격퇴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수도권 방어태세를 꼽고 있으며, 영공 방위태세의 확립, 영해 방위태세 확립의 순서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군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본다.

초전 즉응태세와 수도권 방어태세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들은, 바로 초전 즉응태세와 수도권 방어태세에 대한 준비정도가 대단히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북한도발시 가장 미흡하게 인식되는 준비태세를 질문한 바, <표 8>에서 지적된 것처럼, 초전 즉응태세의 미흡성에는 전체 응답자의 44.3%가 수도권 방어태세에는 17%가 그 준비태세가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표 7> 군사적 대처방안의 상대적 중요도

항 목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합 계
초전 즉응태세	212 (79.7)	31 (11.7)	15 (5.6)	3 (1.1)	2 (0.8)	2 (0.8)	265 (99.6)
수도권 방어태세	16 (6.3)	111 (43.5)	69 (27.1)	38 (14.9)	14 (5.5)	7 (2.7)	255 (100.0)

항 목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합 계
영해 방위태세	1 (0.4)	9 (3.8)	45 (19.0)	89 (37.6)	61 (25.7)	32 (13.5)	237 (100.0)
영공 방위태세	17 (6.9)	74 (30.1)	84 (34.1)	49 (19.9)	14 (5.7)	8 (3.3)	246 (100.0)
국지도발 대응태세	4 (1.7)	25 (10.6)	24 (10.2)	35 (14.9)	79 (33.6)	68 (28.9)	235 (100.0)
심리전 대응태세	15 (6.2)	16 (6.6)	27 (11.2)	17 (7.0)	57 (23.6)	110 (45.5)	242 (100.0)

여기에서 특징적인 점은 초전 즉응태세와 수도권 방어태세가 북한도발시 가장 필요한 준비태세임에도 그 준비의 정도가 대단히 미흡하다고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의미하는 바는 실로 중대하다. 첫째, 이러한 인식의 기초에는 군의 북한도발 대처준비가 실제로 미흡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의 도발이 저지되는 데는 초전즉응과 수도권 방어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럼으로 준비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어느 경우이든지, 북한이 무력도발을 감행할 경우 본 설문조사의 응답자들은 초전즉응으로 도발의지를 좌절시킬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그런 상황을 확보하기 위해선 현재의 준비태세가 미흡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8> 북한도발시 방어태세의 준비성 미흡정도

구 분	초전즉응 태세	수도권 방어태세	영해방위 태세	영공방위 태세	국지도발 대응태세	심리전 대응태세	합 계
도 수	112 (44.3)	43 (17.0)	28 (11.1)	14 (5.5)	22 (8.7)	34 (13.4)	253 (100.0)

3. 한반도 군비통제와 군축

냉전의 종식과 남북관계의 개선조짐이 두드러

진 1980년대 이후로, 한반도에서의 군비통제 가능성과 한국군 규모의 축소논의는 사회의 다방면에서 있어 왔다. 특히 문민정권의 탄생과 함께 국방예산의 축소논의에서 필연적으로 포함된 사항이 국방인력 규모의 감소 가능성이다.

〈표 9〉 군비통제와 군감축에 대한 인식

문항	전적으로 반대	반대	그저 그렇	동의함	전적으로 동의	합계
한반도에서 군비통제가 가능하다	41 (13.4)	89 (29.0)	67 (21.8)	89 (29.0)	21 (6.8)	307 (100.0)
북한위협에 관계없이 병력규모를 줄여야 한다	157 (50.6)	100 (32.3)	7 (2.3)	37 (11.9)	9 (2.9)	310 (100.0)

앞에서 논의되었지만, 한반도에서의 군비통제 가능성은 설문조사의 응답자들에 의해 그리 크게 동의되지 못하고 있다. 군비통제의 불가능성에 대해 약 42%의 동의가 형성되나 그 반대의 입장에도 36% 정도의 응답도 도출되고 있다. 그럼으로 군비통제의 가능성 여부는 어떤 명확한 선호를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한국군 규모의 축소를 북한의 상황과 무관하게 감행하는 가능성에 대해선 대단히 높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가 넘는 50.6%의 응답자들은 북한의 상황과 무관한 병력규모의 축소는 결코 찬성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병력규모의 축소를 동의하는 비율이 불과 14%에 머무르고 있는 점은, 한국의 안보적 상황이 북한을 보는 시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14%의 응답자가 무조건적 축소에 동의하고 있음을 단순히 소수의 의견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14%라 함은 19명 중 2명에 가까운 숫자임으로 실상 이들의 인식은 사회

전체의 의견결집과 여론조성에 대단한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아야 한다. 특히 이들이 군에서 고급장교였다는 점을 감안하고, 전역 후에도 여론을 주도하는 계층일 가능성이 높은 이들이 왜 무조건적인 군감축을 선호하고 있는지를 심층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Ⅲ. 결론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전역한 예비역 고급장교들은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매우 보수적인 인식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을 낙관적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남북한 관계에도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보인다. 그럼으로 설문조사의 응답자들은 우리의 군사적 태도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특히, 초전적응태세가 미흡하며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반도에서의 군축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단히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아직도 우리의 군사력이 북한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믿고 있는 그들은, 주한 미군의 주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사회의 일반적인 경향이 안보낙관적이 되어 가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인식의 면을 보이는 것이다. 안보낙관론적인 태도는 잠재적으로 볼 때, 사회에 불안요소를 가중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안보환경과 대처능력에 대한 예비역 고급장교들의 보수적이고 걱정스런 태도는 국방운용의 틀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도리라 본다. **중략**

북한의 정전협정 파기공세와 우리의 대응

김 강 녕

정치학박사/조화정치연구원장



1. 문제의 제기

남북한은 물론 참전국에게도 수많은 인적·물적 피해를 안겨주었던 6·25의 격전은 휴전협정 내지 정전협정(국제법상 엄격한 의미에서 휴전과 정전은 구별되나, 적어도 한국의 경우에는 이 두 용어를 혼용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어 이하에서는 정전협정이라는 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하기로 함)의 체결로써 일단락 맺게 되었다.

쌍방 협상대표들이 무려 2년여에 걸친 '마라톤 회담'을 거듭한 끝에 전쟁이 개시된지 3년 1개월만인 1953년 7월 27일 유엔군 총사령관과 중공군 및 북한군 사령관 사이에 그 협정이 조인되었으며 전문(全文) 5조 63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협정의 목적은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반도의 군사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최종적인 평화적 해결을 이룩할 때까지 적대행위와

모든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停戰)을 확립하는데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전협정은 ① 체결당시의 현 접촉선을 군사분계선으로 삼아 폭 4km의 비무장지대를 설정, 이를 완충지대로 하고, ② 정전의 구체적 보장책으로서 쌍방이 군사인원, 군사무기 및 자재 등을 보충할 경우에도 휴전성립 당시에 보유하고 있던 정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③ 정전의 충실한 실시와 규제조치의 올바른 집행을 위해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 감시위원회를 두고 그 하부기구를 각각 설치운영하기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쌍방간의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1974년 3월 이래 집요하게 '정전협정 폐기, 대미평화협정 체결'의 실현을 주장해 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측은 1954년 6월 '제네바정회담'에서 최초로 남북간에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의한 이래, 1974년

3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3차회의에서 '미 의회에 보내는 편지'를 채택한 시기까지는 남북 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해 왔었다.

그들은 현재의 정전협정체제를 가지고는 "남반부와 미국의 합작에 의한 전쟁위기 조성책동"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새로운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이다. 또한 남한은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고 남한의 군통수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으므로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대미평화협정 체결 요구는 최근들어 정전협정 무력화 내지 파기 공세로 이어지면서 강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96년 4월 4일에 있었던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불인정 선언'은 한반도에서 남북한 관계를 유일하게 규율해 온 틀로서 작동해온 정전협정의 일방적 파기선언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는 북한의 정전협정 파기공세와 대미평화 협정체결 주장의 저의를 분석한 후 우리의 대응노력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2. 북한의 정전협정 파기공세

정전협정은 지난 43년 동안 불안하게나마 남북한간의 정면 충돌을 방지하고, 한반도의 분단 관리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반도 전쟁억지의 기본틀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왔다.

정전협정은 ① 국제법적 주체사이의 문제로서

상호합의한 엄연한 조약(treaty)이므로 국제법적인 구속력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간의 합의절차 없이는 일방적으로 파기·수정이 불가능한 것이고, ② 일체의 적대행위를 완전히 중지하는 휴전(armistice)조약이고 또한 비정치적인 순수 군사문제(military affairs)조약인 것이며, ③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시위원회를 통하여 시행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주된 특성으로 하고 있다.

결국 정전협정은 어디까지나 국제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성문법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억지 주장이나 정치선전적 왜곡으로 무시 또는 쉽게 변경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곧 전쟁을 불사하면서까지 반드시 추구해야 할 가치가 존재하고 있다는 판단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정전협정이 갖는 이상과 같은 특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동안 협정위반을 셀 수 없이 자행해 왔다. 북한의 정전협정파기 양상은 크게 보면 두가지인데, 하나는 정전협정 내용을 위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전협정 체제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파기공세이다.

먼저 정전협정 위반행위는 95년까지 무려 42만여건으로서 이는 매년 1만여건, 하루 27건 이상을 위반한 셈 이어서 사실상 휴전상태라고 하기조차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그동안의 위반사례는 육상·지하·해상·공중을 총망라하는 입체적 양상을 띠고 있을 뿐 아니라 비무장지대 내에서의 총격·침투·피습·납치·폭파·테러 외에도 한국 후방지역 깊숙히 까지 대규모 특공대가 침투하여 장기간 동안 비정규전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DMZ 내에서의 군사도발, 무장간첩

침투, 그리고 각종 전쟁위협 등은 한결같이 주변 정세 변화에 대한 민감한 방응형식을 띠었으며 어디까지나 포괄적인 대남정책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정전협정체제를 무력화시키는 위반이다. 지난 94년 4월 28일 북한은 외교부 성명에서 "휴전협정은 조선반도에 평화를 보장할 수 없는 빈 종이장으로 되고 군사정전위원회는 사실상 주인없는 기구로 유명무실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현 정전기구를 대신하는 '평화보장체계수립'을 미국측에 제의한 바 있다. 그후 96년 6월에는 주한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외교부 비망록을 통해 주장하기도 했다.

북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협정체계를 운운하면서도 반드시 빼놓지 않는 것은 한국은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전당사자가 아니라는 억지주장과 더불어 한국군의 작전지휘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국을 제외한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고집해 오다가 탈냉전의 기회를 교묘하게 역이용하여 정전협정문제를 미국과의 적대관계 해소용으로, 그리고 한국과는 소위 자주·주체논리로서 정치적 정당성 대결의 명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목표에 따라 북한이 추진해온 구체적 파기공세는 첫째, 군사정전 위원회 기능마비 유도를 통한 협정파기 기도이다. 각각 5명의 고급장료로 구성된 군사정전위원회는 91년 3월 UN군측 수석대표로 한국군장성이 임명되자 북한은 이를 구실로 회의에 불참하는 협정 위반을 지금까지 저지르고 있으며, 더욱이 94년 4월 군사정전위원회 북한대표를 일방적으로 철수하고, 소위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KPA PMJ

Mission)' 라는 명칭으로 임의변경하는 한편 9월에는 중국대표를 철수시킴으로써 군사정전위원회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바 있다.

북한의 이러한 일방적 철수 및 변경 행위는 국제법상 사실행위로서 이는 정전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시행정지이거나 협정종료의 일방적 선언에 해당하는 중대사안인 것이다.

둘째, 중립국감시위원회 기능정지를 통한 협정위반 공세이다. 즉 중립국감시위원회는 정전협정 제37항에 의거 UN군측이 지명한 스위스·스웨덴과 공산측이 지명한 체코·폴란드 등 4개국 대표로 구성되어 있으나, 북한은 93년 4월 체코 대표단을 철수시킨 데 이어 95년 2월에는 폴란드 대표단마저 강제 철수시킴으로써 그 기능을 마비시켰을 뿐 아니라, 95년 5월에는 판문점내의 중립국감시위원회 북측사무실에 대한 폐쇄조치를 단행함으로써 협정 제36항부터 43항까지를 완전히 위반한 바 있다.

3. DMZ 불인정 선언 및 평화협정체결 공세

북한이 지난 96년 4월 4일 비무장지대(DMZ)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발표는 예상돼 왔던 행동이다. 북한은 지난 96년 2월 미국에 대해 ① 평화협정 체결시까지 정전협정을 대신 무장충돌과 돌발사건 발생시 해결방도 등을 규정하고 ② 군사정전위원회를 대신, 미북공동 군사기구를 조직운영하며, ③ 이를 위한 해당급의 협상을 진행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북 잠정협정 체결을 제의한데 대해 미국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지난 96년 3월 9일 미국이 잠정

평화협정제외에 호응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이고 주동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그후 지난 96년 3월 29일에는 김광진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담화를 통해 남한과의 '전쟁불가피론'과 함께 미국의 평화보장제안 거부에 대한 대응책에는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의 지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상황에 따른 조치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위 불인정은 '정전체제 무력화'라는 그들의 오랜 전략에 따른 것으로 말할 것도 없이 미북평화협정체결을 위한 것이다. 한반도에서 40여년간 유지되어온 정전체제가 붕괴된 이상 한국전의 실제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번에 비무장지대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비무장지대 내에서 공개적인 군사행동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비무장지대내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이러한 긴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북평화협정 체결밖에 없다는 전략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북한의 대미평화협정 체결 주장의 저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북한의 최근 대내외적인 어려움 즉 당면한 체제위기, 경제난, 국제적 고립 등과 같은 3중고를 겪으면서도 '조선식 사회주의' 및 '하나의 조선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대남전략에 있어서는 이렇다할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최근 북한은 핵문제와 관련된 대미협상 과정에서 일관되게 두가지 원칙을 고수해 왔다. 하나는 어떤 경우에도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협상하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북한 핵문제에 미복수교 및 미북평화협정 체결을 일괄 타결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끈질기게 이 두가지 원칙을

고집해온 저의는 기본적으로 그들의 노동당 규약에 명시된 '대남적화통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북한은 핵카드와 정전협정 파기공세 등을 이용, 한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미국과 집요한 협상을 통해 미북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많은 힘을 쏟고 있다. 북한은 평화협정을 통해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동시에 현 정전협정을 폐기시키려는 의도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북한이 의도한 대로 상황이 전개될 경우, 정전협정을 관장하는 유엔군 사령부도 자동 해체될 것이며, 주한미군의 한국주둔 명분이 약화됨으로써 자연히 한미연합 방위체제가 이완 내지 와해될 것이라는 치밀한 계산을 깔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비무장지대 내에 새로운 군사적 위기를 조장함으로써 비무장지대 인근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후방배치를 포함한 제반 군사문제를 미국과 직접 협상함으로써 주한미군 정책의 변화를 기도하고 있다. 직접적인 대미군사회담과 정치회담을 통해 '주한미군철수' 목적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북한이 그들의 유일한 생존수단인 핵카드를 이용하여 미북평화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도,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적대관계를 해소하여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체제를 보존하면서 대내적으로 대남적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술책인 것이다.

4. 우리의 대응

결론적으로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나 한반도에서의 실질적인 권리·의무의 주체는 남북한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정전협정의 실질적인 당사자임과 동시에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주체인 한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미북한간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은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따라 남북 당사자가 직접 해결하며, 기본합의서의 이행을 통해 상호신뢰가 조성되고 평화상태가 구축되기까지는 현 정전협정이 준수되어야 함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한 점에서 지난 95년 8월 15일 김대통령이 발표한 광복절 50주년 기념사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3대 기본원칙으로 ① 남북당사자 해결, ② 주변국의 협조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보장, ③ 남북간 기본합의 사항 존중을 제시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북측이 피하는 대미 평화협정의 체결은 그 최고목표를 대남정복, 그리고 최저목표를 체제유지에 둔 대남혁명 및 생존전략에 따른 전술적인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질서를 구축함에 있어서 필요한 우리의 대응노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북측의 미북평화협정 체결공작에 미국

이 끌려가는 일이 없도록 대미 공조활동이 짜임새있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북측의 대미 핵관련 협상과정에서 보여왔던 통미봉남(通美封南) 전술, 그리고 미국의 클린턴정부의 NPT체제 유지노력 및 대통령 재선을 위한 대북 접근정책 등을 감안할 때 이러한 대비책이 긴요함을 절감하게 된다.

둘째, 한미 공조체제를 과신하여 우리의 자주국방체제 확립문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은 장차 주한미군없이도 북한의 전쟁기도를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자주국방태세를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라 할 수 있다.

대남군사력 보다 우위에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북한으로 하여금 주한미군만 없으면 무력에 의한 흡수통일이 성공할 것이라는 오판과 환상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한국방위력의 질적·양적 우위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셋째, 북측의 미북평화협정 시도를 봉쇄하고 남북평화협정쪽으로 대세가 기울게 되는 경우에도 많은 선례를 고려해 볼 때, 북측의 책임회피를 견제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생각해야 한다. 그들은 협정, 조약 등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활용하는 전술교리로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후관리 문제에도 특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고 정전협정 파기 공세가 지속되는 한, 평화협정체결보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경구를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등문**

여름철 건강관리에 대하여

임 판 식

중령/공군본부 의무감실



1. 식중독이란

식중독이란 세균이나 그 독소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거나, 식물독(독버섯등), 동물독(복어등), 중금속, 화학물질 등을 섭취하였을 때 나타나는 급성 위장관 증세를 주증상으로 하는 임상증후군이다. 식중독은 식품섭취후 대개 72시간 내에 일어날 때를 말하고, 그 이후에 발생하면 대부분 장관감염으로 구별하는 수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사부자료에 따르면 1979년부터 1989년까지의 보고된 식중독의 총발생 건수는 401건이며, 총 발생 환자수는 9,788명으로 연간 평균 36건의 발생과 890명의 환자발생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식중독의 대부분으로 일시적으로 경미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고되지 않는 실제 발생건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으리라 추정된다. 한국에서는 그 동안 생활양식의 변화, 냉장고 보급의 증가, 육류소비의 증가, 회등 날 해산물 소비의 증가, 가공식품 소비

의 증가 등의 식생활 양식의 변화로 식중독의 원인이 점차로 다양해지고 과거에 비하여 많은 변화가 예견되고 있다. 식중독의 원인은 대개 세균성 식중독이 80%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하절기에 볼 수 있는 식중독은 거의 대부분이 세균성 식중독에 의하므로, 여기서는 세균성 식중독에 대하여만 언급하고자 한다.

가. 식중독의 종류

세균성 식중독은 독소형 식중독과 감염형 식중독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독소형 식중독은 체외에서 이미 생산된 독소(Preformed toxin)에 의한 형과 체내에 들어와서 생산된 독소(Toxin production in vivo)에 의한 형으로 나눌 수 있다. 독소형 식중독은 장독소가 장점막의 adenylyl cyclase계를 자극하여 다량의 수분과 전해질을 분비케 하는 분비형 설사(secretory diarrhea)가 특징이다. 한편 감염형 식중독은 균이 체내로 들어와서 장점막을 침범하여 장점막의 손상에 의

하여 설사, 복통 등의 임상증상을 일으킨다. 이때의 설사는 독소형보다 덜 심하고, 열, 탈력감 등의 전신증상이 있으며 대변에는 백혈구나 혈액 등의 염증성 변화의 소견을 볼 수 있다. 대개 감염형 식중독은 독소형 식중독보다 잠복기가 길다. 그 외 독소형과 감염형 둘 다 관여하는 혼합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균성 식중독으로는 장티푸스 식중독, 콜레라 장염식중독, 포도당구균 식중독, 병원대장균 식중독 등이 있으며, 근래 남서 해안지방에서 매년 여름철에 발생하는 비브리오에 의한 소위 말하는 비브리오 폐혈증도 주의를 요한다.

나. 식중독의 예방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음료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식품취급자가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다룸으로써 흔히 발생한다. 식품을 취급 시에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보균자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포도상구균 식중독이나 B.cereus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장독소는 열로써도 파괴가 되지 않으므로, 일단 의심이 되면 먹지 말고 버려야 한다. 고온다습한 하절기에는 한꺼번에 음식을 많이 만들어 보관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한번에 먹을 정도의 양을 조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른 계절과는 달리 여름철을 맞이하면서 주방에 있는 그릇, 칼, 도마 등은 물에 끓이거나 살균, 소독제를 사용하여 항상 위생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또 도마는 칼자국과 틈 사이에 세균이 많이 서식하기 마련이므로 소독물에 행군 다음 햇볕에 말려 써야 한다. 특히 행주는 세균의 소굴이므로 쓸 때마다 깨끗이 빨은후 살균,

소독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리한 음식이라도 가능한 한 빨리 먹도록 하고 남은 음식은 다시 한번 가열하여 보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냉장고는 세균의 증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멸균작용에는 별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만큼 너무 과신하는 태도는 버리는 것이 좋다.

식중독을 치료할 때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은, 절대 설사를 멈추게 하려고 지사제를 복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설사와 구토는 세균을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인체의 자기방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 식중독에 걸리면 먹은 것을 모두 토해내고 일체의 음식섭취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탈수방지를 위해 적당량의 수분공급은 필요하다.

식중독을 앓다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때도 음식섭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식욕이 회복되었다고 해도 처음부터 위에 부담을 주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위를 부드럽게 감싸주고 기능을 정상화시켜 줄 수 있는 죽같은 것을 시작으로 해서 정상적인 식생활로 돌아오는 것이 권할 만하다.

식중독은 발생시 보건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질환으로, 신속한 보고는 그 이상의 확산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특히 다량유통되는 식품에서 발생하는 식중독의 조기보고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의무이다.

2. 고온에 의한 신체장해

고온, 고습의 환경에서 심한 작업이나 운동을 할 경우 발생되기 쉬운 급격한 신체적 장해를 열중증 또는 고온질환이라고 하는데, 이때 나타나

는 모든 병증은 체온조절의 파탄에 기인하고 있다. 임상적 증세에 따라 열경련, 열허탈(열피로), 열사병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열경련

열경련은 고온에서 심한 근육운동을 하여 땀을 많이 흘려서, 탈수와 함께 염분이 현저하게 감소되어 그로 인해 대사노폐물의 축적, 중추신경 및 간기능 장애가 초래되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현기증, 두통, 구토, 호흡곤란 등의 전구증세가 있을 수 있으며, 작업중 많이 쓴 수의 근에 통증을 동반하는 경련이 생기는 게 주증상이다. 체온은 38℃ 이상이 되지는 않는다. 맥박은 빨라지나 혈압의 변화는 없다. 이런 환자가 발생 시에는 서늘한 곳에 눕혀서 아픈 근육을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며 소금물을 마시게 하거나 생리적 식염수를 정맥주사한다.

열허탈(열피로)

고온에 오래 노출되어 말초혈관의 운동신경의 조절장애와, 심박출량의 부족으로 인해 초래되는 말초순환의 허탈상태를 말한다. 전신의 권태감, 두통, 현기증 등을 호소하다가 의식이 흐려지고 완전히 허탈상태에 빠지게 된다. 피부는 습윤하고 덥거나 차울 수 있다.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떨어지게 된다.

치료는 안정, 휴식을 시키고 탈수가 심하면 소금물을 보충해 준다. 만일 물을 마실 수 없으면 정맥주사를 통해 수분을 보충해야 한다.

열사병

고온에서 심한 육체운동을 할 때 체내에 열이 축적되면서, 체온조절 중추의 기능에 장애가 생겨서 생기는 병으로서 체내 염분량과는 관계가 없다.

전구증상으로 두통, 현기증, 의식혼탁 등이 있

다가 체온이 41~43℃까지 상승하고 급작스럽게 혼수상태에 빠지게 된다. 피부는 땀이 나지 않아서 건조한 경우가 많다. 열사병은 매우 위험한 상태로서, 치료를 않으면 100% 사망하며 치료를 해도 치명률이 높다. 치료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이 체온을 하강시키는 것이다. 얼음물에 몸을 담가서 체온을 39℃까지 빨리 내려주어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할 때는 찬물로 몸을 닦으면서 선풍기 등으로 증발냉각을 도모한다. 또한 혈액순환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사지를 격렬하게 마찰해 준다. 뇌손상은 체온의 상승 정도와 그 지속기간에 좌우되므로, 처음부터 과감한 체온냉각을 해주는 것이 환자의 예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고온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온에 오래 노출되지 않게 하며, 고온에서 운동을 할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고 수분과 염분의 손실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충을 해주어야 한다.

3. 여름철 안질환

여름철에 접어들면 유행성 안질환에 노출될 기회가 많아지는데, 특히 단체생활을 하는 곳에서는 급속도로 퍼져나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요하게 된다.

대개 여름철 안질환으로서의 유행성 각결막염과 아폴로 눈병이 주종을 이룬다. 유행성 각결막염은 아데노 바이러스에 의해, 아폴로 눈병은 엔테로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이 되나, 그 증상 및 임상경과는 거의 비슷해 감별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이중 아폴로 눈병이란 아폴로 11호가 발사되

던 때 발생하여 세계적으로 유행하였다가 그후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서, 요즈음은 여름철이 아닌 다른 계절에서도 볼 수가 있다. 대개 1~2주 내에 자연 치유되나, 최근에는 전형적 아폴로 눈병이 아닌 변형된 유행성 각결막염이 많아져서 3~4주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 증상으로서는 결막의 충혈과 눈을 뜨지 못하고 심한 안통을 호소한다. 대개 한쪽 눈에 더 심한 자각증상이 따르는 것이 특징이다. 간혹 발열, 두통, 전신권태 등의 전신적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며, 귀밑 입과절이 커지면서 동통이 동반되기도 한다.

이 질환들은 환자의 눈 분비물로서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와 가까이 있는 사람은 자주 손을 씻어야 하고, 눈을 만지는 일을 삼가해야 하며 환자가 쓰던 기물들은 가능한 만지지 않아야 한다. 여름철 수영장 출입을 가능한 삼가며, 비위생적인 장소를 피하는 것도 좋은 예방법이라 할 수 있다.

자연 치유되는 경우도 있으나 치료를 잘하지 않은 경우 각막염 등의 합병증이 아주 잘 생기고, 그 후 각막혼탁이나 포도막염 등으로 인해 시력저하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과 전문의의 적절한 치료와 경과 관찰을 요한다.

4. 냉방병

가. 에어컨 1시간은 가동후 30분 정지시켜야

최근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몸이 나른하고 머리가 아프며, 하루종일 집중력이 떨어져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실제로 검사해 보면,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경우 환자의 생활환경을 살펴

보면, 대부분 현대식 냉방장치가 잘 되어 있는 건물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냉방병의 원인은 인위적인 온도의 변화에 우리의 몸이 미처 적응할 시간을 갖지 못한 상태가 반복해서 일어남으로써, 신체의 자율적 조절기능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이다.

냉방병의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머리가 무겁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두통 그리고 쉽게 피곤함을 느끼는 것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고 때로는 알레르기성 비염을 일으키기도 하며, 치마를 주로 입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노출된 무릎부위에 심한 통증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 일단 여름 감기에 걸리면 좀처럼 낫지 않고 하반신에 차가운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종종 코가 막히고 목구멍이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냉방병은 급격한 기온차 때문에 노인, 어린이, 여성들이 특히 취약대상이며 갱년기 및 사춘기 여성들은 호르몬의 분비가 불안정해져서 자율신경의 부조화가 쉽게 일어난다. 게다가 고혈압, 당뇨병, 신경계통의 환자들을 일단 냉방병에 걸리면 증세가 치명적일 수도 있는 만큼 남다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냉방병을 예방할 수 있는 요령

- ① 실내온도와 외부온도의 차이는 5도 이내로 하고, 실내 적정 온도를 26~28도로 유지한다.
- ② 실내의 통풍을 자주하고, 에어컨은 1시간 가동후 30분 정도는 정지시킨다.
- ③ 에어컨 공기유입구에 있는 필터를 최소한 2주일에 한번 정도는 청소한다.
- ④ 하루 종일 냉방상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오전·오후 각각 한차례씩 맨손체조나 가벼운

근육운동을 통해, 근육의 응축을 막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

⑤ 에어컨의 위치를 조정해서 찬 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한다.

⑥ 냉방상태에서 잠을 잘 경우에는, 배의 보온에 유의하여 꼭 이불을 덮고 잔다.

⑦ 여성은 허리, 하복부 등 냉감부위의 보온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⑧ 냉면같은 찬 음식은 가급적 피하고, 식물성 기름으로 튀긴 음식을 많이 섭취하도록 신경 쓴다.

⑨ 과로와 수면부족도 냉방병의 원인이 되므로, 날씨가 더울수록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잠을 푹 잔다.

(10) 하루에 한번 정도는 가벼운 운동으로 땀을 적당히 흘리며, 땀을 흘린 뒤에는 반드시 몸을 씻는다.

5. 무더운 여름철의 운동

건강과 체력유지 및 증진을 위해서 운동은 필수적이다.

햇볕이 따갑고 온도와 습도가 높은 극단적인 기후조건에서 운동을 할 때, 인체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 따라서 기본적인 과학상식을 이해하고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몸이 비교적 장시간 동안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될 경우 어지러움과 식욕감퇴 증세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눈과 피부가 손상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일사병, 시력장애(감소), 화상을 입기도 한다. 따라서 햇볕에서 오랫동안 운동을 할 때는 통풍이 잘 되고 가벼운 모자, 선글라스, 선텐크림과 같은 자외선 차단도구를 적극 활용

하여 몸을 보호해줘야 한다.

흐린 날씨 또는 실내처럼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는 곳에서 운동을 할 때에도 체온은 높게 올라가고, 우리 몸은 체온조절의 수단으로서 많은 양의 땀을 흘리게 된다. 이와 같이 '무더운' 여름철 운동 중에는 많은 수분과 무기질이 손실되는데, 탈수가 심한 경우 인체기능의 이상뿐만 아니라 때로는 생명을 위협받기도 한다. 따라서 심한 탈수증 예방을 위하여 운동 전 및 운동을 하는 사이와 운동을 마친 후에 적당량의 수분과 무기질을 충분히 공급해줘야 한다.

비교적 장시간 운동을 할 때 수분공급은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200~250ml(맥주잔 한 잔 정도)의 양을 운동시작 때부터 마칠 때까지 15~20분 간격으로 물을 마셔야 하는데, 이 때 물의 온도는 약 4~5도(냉장고 온도 수준)가 바람직하다.

쥬스나 콜라, 사이다 같이 당도가 높은 음료수는 운동 중에는 피하는 것이 좋다. 삼투압 농도가 인체세포보다 높은 음료는 오히려 갈증을 더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운동 중에 수분과 함께 손실된 무기질은 운동이 완전히 끝난 후에 공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때는 채소 또는 과일쥬스를 섭취하도록 한다.

특히 과일쥬스는 수분과 무기질 공급뿐만 아니라 운동 중에 소모된 근육내 탄수화물(글리코겐)을 보충시켜줌으로써, 운동으로 지친 몸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운동할 때 입는 옷은 체온조절과 땀의 흡수가 잘 되는 것이어야 하는데, 흡수력이 좋고 통풍이 잘되며 가벼운 소재로 100%면 소재의 운동복보다는 합성제품이 바람직하다.

'96년도 하계기상 전망

신 기 윤

중령/73기상전대 연구부



I. 서론

우리나라의 여름은 6월 하순부터 7월 중순까지의 장마기, 7월 하순부터 8월 한 달 동안의 후서기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름이라 하면 후서기를 말할 때가 많다. 일반적으로 장마는 6월 하순 초에 남부지방에서부터 시작되어 점차 중부지방으로 북상하며 7월은 우리나라 전역이 우기에 접어들게 된다. 8월은 해양성 북태평양 고기압의 최성기일 뿐만 아니라 지면의 복사가 극심하기 때문에 연중 가장 무더운 시기이다. 올해는 우리나라의 기후에 영향을 주는 라니냐(La niña) 현상의 가능성이 비치는 해로서 올여름의 기후는 최근 몇년간에 비해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여름의 기상을 전망하기 위하여 먼저 엘니뇨와 남장진동(El Nino and Southern Oscillation)의 현황, 장마와 태풍관련 자료, 전국 21개 관측소의 관측자료 등을 활용하였고 몇 가지 측면에서 집중분석하

여 우리나라의 여름철 기온 및 강수량을 포함한 전반적인 여름철 기상을 전망하였다.

II. 본론

1. ENSO(El Niño and Southern Oscillation)를 중심으로

ENSO는 엘니뇨(El Niño)와 남방진동(Southern Oscillation)의 합성어로서 태평양 동부 적도역의 월평균 해수면 온도분포가 평년에 비해 높은 현상이 수 개월간 지속되는 것과, 이에 따른 인도양과 남반구의 적도태평양과의 사이의 기압진동을 말한다. 최근 엘니뇨 현상 발생주기를 살펴보면 '90년 이전에는 약 3~5년의 기간을 두고 발생했으나 '90년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94년 여름~'94/'95년 겨울에도 뚜렷하지는 않지만 엘니뇨의 특성들이 나타났다. 그림 1을 보면 1995년 11월 태평양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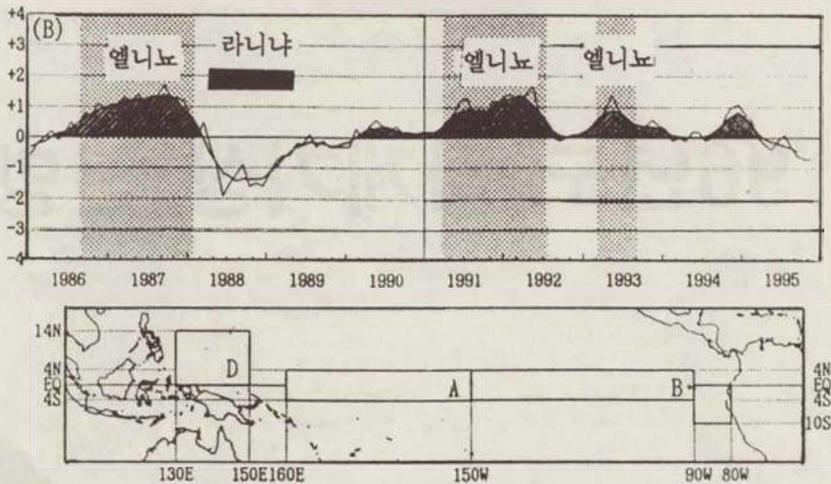


그림 1. 최근의 동태평양 지역의 수온분포

도의 월평균 해수면의 수온 분포는 B해역에서 평년보다 0.5℃이상 낮고, 11월의 편차는 -0.7℃이었으며, 1996년 현재까지도 이 지역(B해역)에서 한랭현상(cold episode)이 진행중임이 확인되었는데 이와는 반대로 태평양 서부열대역(D해역)에서는 1995년 8월이래 기록적으로 해수면 온도가 높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96년은 90년대에 들어서 계속되었던 이상기후현상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엘니뇨 종료 이듬해라는 시기를 기준으로 볼 때 '74, '78, '84, '89년과 유사한 기후 경향을 가질것으로 전망된다.

2. 강수자료를 중심으로

전국 강수량 분포

1972년부터 1995년까지 24년간의 여름철(6, 7, 8월) 전국 강수량의 평년 편차 분포를 살펴보면 '80년 대 초반까지는 비교적 일정한 주기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반이후에는 특별한 주기성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80년대 초반까지는 부편차와 정편차 값이 4~5년을 주기로 비교적 규칙적으로 나타나다가 중반

이후에는 주기성이 없어지고 특히 '90년대 초반에 들어와서 부터는 강수량의 평년 편차값의 증감이 1년 간격으로 나타나고 있다. 엘니뇨 현상과 우리나라 여름철 강수량과의 상관관계에 관해서 분석해 보면 엘니뇨 현상이 종료된 후 그 다음해의 여름철 강수량은 일반적으로 평년값과 유사하거나 약간의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94/'95년 겨울에도 뚜렷한 엘니뇨 현상은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동태평양의 온난현상(warmepisode)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96년 우리나라의 여름철 전체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의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지역별 강수량 분포

지역별 강수량의 최근('72~'95) 평년 편차값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엘니뇨 발생 다음해인 '74, '78, '84, '89의 지역별 강수량의 평년 편차 분포 중 특징적인 사항은 남부와 남해안 지역의 강수량이 모든 해에서 평년값보다 크게 나타났고 동해안 지역은 한해를 제외한 모든 해에서 평년값보다 증가한 값이 나타났으며, 중부 내륙 및 중부 서해안 지방은 평년값 보다 감소한 경우

가 많이 나타나 중부와 남부지방의 지역별 강수량 편차분포가 서로 크게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올해의 지역별 강수량 분포는 남부, 남해안 및 동해안 지역의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부 내륙과 중부 서해안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기온자료를 중심으로

그림 2는 '72년부터 '95년까지 여름철(6~8월) 전국 평균 기온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름철 저온현상의 변동주기는 5~7년 주기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고온현상은 4~6년의 주기를 가지고 있었다.

'96년은 흑점수가 최소가 될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흑점최소기였던 '64, '76, '86년의 여름철 평균기온은 24.5℃, 22.7℃, 23.0℃로 '64년을 제외하고 평년값보다 낮아 저온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76, '86년의 경우 엘니뇨 발생중이거나 엘니뇨 발생 직전의 상황인 반면 '64년의 경우는 엘니뇨 발생 후로 여름철 동태평양 부근에 한랭현상이 발생하여 '96년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4년의 여름철 월별 평균기온의 분포중 8월이 26.9℃로 매우 무더운 흑서기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96년 현재 한랭현상이 진행중인 것과 흑점최소기인 점을 고려할 때 올 여름철 기온은 평균보다 높을 것이며, 특히 장마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마종료 후 심한 흑서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장마를 중심으로

장마기간 분석

장마기간은 장마전선의 활동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6월 하순이 되면 전선이 북상하여 제주도에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고 7월 하순에 이르면 남쪽으로부터 점차 장마가 종료되는 것이 보통이다. 장마현상이 나타나게 된 날을 장마의 시작일, 끝난 날을 장마종료일이라고 하지만 이 날을 정확히 정하기는 어렵다. 장마의 시작과 끝의 평년값은 아래와 같다. 장마시작 및 종료일을 기준으로 장마기간의 평년값은 중부지방 28~31일, 남부지방 30~32일, 제주도 지방 30~31일이다.

최근 15년간의 중부, 남부, 제주 지방의 장마일수의 평년 편차를 분석한 결과 장마일수가 가장 긴 해는 봉부, 남부의 경우 '87년도로 중부지방 42일, 남부지방 48일이었으며 제주도의 경우 '93년도로 43일이나 되었다. 장마시작일이 가장 빠른 해는 '81년으로 제주지방이 6월 17일 시작되었으며, 장마종료일이 가장 늦은 해는 '87년으로 중부지방이 8월 10일에 장마가 종료되었다. 장마일수는 전체적인 경향은 유사하였지만 지역적으로는 다소 편차가 있다. 특히 남부지방의 경우 '92, '94, '95년의 장마일수가 평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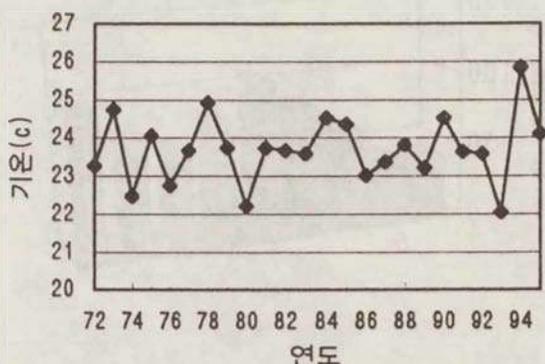


그림 2. 남한지역의 여름철 평균 기온분포

크게 못미쳐 극심한 가뭄현상이 발생하였다. 엘니뇨와 관련해서는 중부, 남부지역의 경우 엘니뇨 발생후 장마기간은 평년과 유사하였으며 제주도 지방의 경우 감소·증가의 경우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최근 30년('66~'95)간 라니냐와 한랭기간 발생시 장마기간은 평년보다 2~3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올해 '96년의 경우 전국의 장마일수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마일의 시작은 각 지역의 장마의 시작 및 장마 종료일을 살펴본 결과 엘니뇨 발생 후 장마의 시작은 대체적으로 평년보다 일찍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마기간중 강수량

그림 3은 남한지역 21개 관측지점에서의 30년간('61~'90) 여름철 순별 평년 강수량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우리나라의 장마기간 및 여름철 강수분포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6월 초, 중순경에는 40mm정도의 비슷한 양의 강수량을 기록하다가 6월 하순부터 강수량이 20mm이상 증가하여 7월 중순에 약 100mm정도의 최고값을

기록하고 하순부터는 그 양이 크게 감소하였다가, 8월 중순부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여 8월 하순경에 여름철 순별 강수량중 두번째로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이같은 순별 강수량의 분포를 통해 우리나라의 장마가 6월 하순경에 시작되어 7월 하순경에 끝나며 8월 중·하순경에 또 한차례의 우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81년부터 '95년까지 장마기간중 강수량 분포를 조사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장마기간 강수량의 평년값은 지역적으로 그 차이가 많은데 제주지방 330~440mm, 남부지방 260~380mm, 중부지방 170~430mm의 평년값을 가진다. 최근 15년간('86~'95) 우리나라 장마기간중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한 해는 '87년도 460mm이며 가장 적은 강수량을 기록한 해는 '94년도 100mm로 평년값의 1/3에 불과하였다. 전체적인 분포를 볼 때 '85~'91년까지는 평년값 이상의 강수량을 나타내면서 연별 편차가 크지 않은반면 '92~'95년에는 강수량도 감소하였고 특히 연별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 우리나라 역시 최근의 전 세계적인 이상기상변동의 영향권 아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현상은 '90년대 이후 엘니뇨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올해 장마기간의 강수량을 예상하기 위해서 태평양 해수면 온도경향을 조사한 결과 약한 한랭현상(cold episode)을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최근 30년('66~'95)동안 라니냐 현상이나 한랭현상이 발생하였던 해의 장마기간 전국 평균 강수량은 평년값보다 증가한 반면 중부지방 7%, 제주지방은 36%나 감소하였다. 따라서 올해 장마기간의 강수량은 평년값보다 약간 크며 지역별로 편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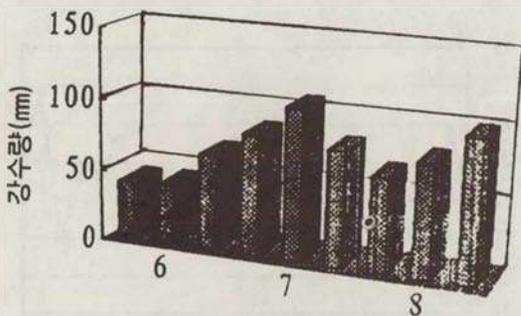


그림 3. 남한지역의 여름철 순별(상·중·하순) 평년 강수량

5. 태풍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태풍

30년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수는 126회로 연평균 4.2회로 나타났다. 이중 8월달이 전체 발생수의 42.3%인 총 52회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10월이 2.4%인 3회로 가장 적었다. 30년간 연별 태풍 발생수를 조사한 결과 태풍이 가장 많이 발생한 해는 '85년으로 8회이었으며 가장 적은 해는 '83년과 '88년으로 1회에 불과하였다. '96년도에 내습할 태풍의 수를 예상하기 위하여 겨울철 기온과 태풍 내습수와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남한지역 전체 평균기온이 영하로 내려간 '73/'74, '76/'77, '80/'81, '83/'84, '84/'85, '85/'86년 겨울 이후 여름의 태풍 내습 횟수가 평균 4.8회로 평년보다 많았다. 라니냐 현상이나 한랭현상(cold episode)이 발생한 해의 태풍 내습수 또한 평년보다 많았다. 그 직전 겨울철 평균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고 라니냐 및 한랭현상이 발생하여 '96년도와 유사한 '67, '74, '77, '81, '84, '85, '86, '88, '89년의 연별 및 월별 태풍경로를 조사하였다. 조사된 9년간의 평균 태풍 내습횟수는 4.2회로 평년과 비슷하였으며 월별 분포를 살펴보면 6월 6회, 7월 8회, 8월 14회, 9월 9회, 10월 1회로 8월에 태풍 내습횟수가 가장 많았다. 특히 '74, '84년의 경우 이 두 현상이 동시에 발생해 '96년과 가장 유사한 해로 이 두 해의 태풍내습 횟수는 10회로 7월 3회, 8월 4회, 9월 3회에 발생하였다. 9년간 우리나라 부근을 통과한 전체 태풍의 진로를 분석한 결과 일본열도 남쪽으로 지나간 경우가 32%,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한해협과 내륙 및 서해를 지나간 경우가 전체의 66%를 차지하였다. 태풍

의 경로중 대만부근에서 북서쪽으로 전향하여 일본, 대한해협, 우리나라로 접근하는 일반적인 진로를 보인것이 74%, 전환없이 직진하거나 중국내륙쪽으로 접근한 것이 26%로 전체적인 태풍의 진로는 일반적인 편서풍 흐름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5/'96년 겨울 평균기온이 최근 10년만에 처음으로 영하로 내려가고 현재 태평양 해수면 상태가 한랭현상(cold episode)인 것을 고려할 때 올해 태풍 내습수는 '95년도 3회보다 많은 4~5회로, 월별로는 8월달의 태풍 내습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III. 결론

최근 엘니뇨와 남방진동의 현황, 장마와 태풍 관련 자료, 전국 21개 관측소의 관측자료 등을 집중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여름철 기온 및 강수량을 포함한 전반적인 여름철 기상을 전망한 결과 몇몇 공통적인 현상은 여름철 강수량의 증가와 태풍 발생수의 증가가 그것이다. 특히 여름철 강수량의 증가와 관련하여 전체 강수량의 50%를 차지하는 장마기간의 강수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좋은 일치를 보였다. 특히 지역적으로 남부 및 남해안지방의 뚜렷한 강수량 증가로 지역적 편차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최근 흑점최소기였던 '64, '76, '86년의 여름철 강수특징이 지역적 편차가 심했던 것과 일치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따라서 '96년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보다 증가하고 지역적인 편차가 심할 것이며, 태풍 발생수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올해 여름철 기온을 예상하기 위하여 '96년이 흑점 최소기가 될 것을 고려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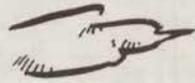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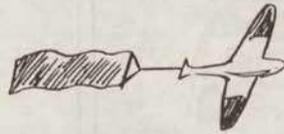
최근 흑점최소기였던 '64, '76, '86년의 여름철 기온을 분석한 결과 '64년의 여름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값을 나타낸 반면, '76, '86년의 경우 저온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76, '86년의 경우 엘니뇨 발생중이거나 엘니뇨 발생 직전의 상황인 반면 '64년의 경우 엘니뇨 발생 후로 여름철 동태평양 부근에 한랭현상이 발생하여 '96년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96년 현재 한랭현상이 진행중인 것과 흑점최소기

인 점을 고려할 때 여름철 기온은 평균보다 높을 것이며 특히 장마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장마종료 후 심한 후서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96년의 여름철 기상 전망은 장마의 조기시작 및 장마기간의 증가, 강수량의 증가와 함께 지역적 편차 심화, 평년보다 높은 기온분포 및 장마후 폭서, 태풍발생수의 증가로 요약될 수 있다. **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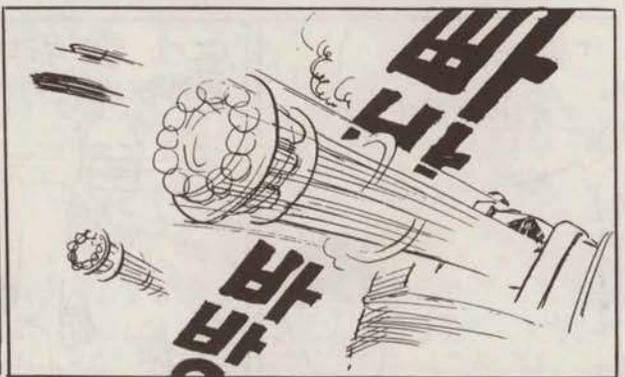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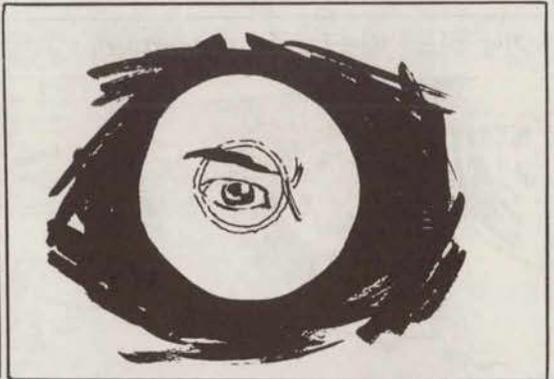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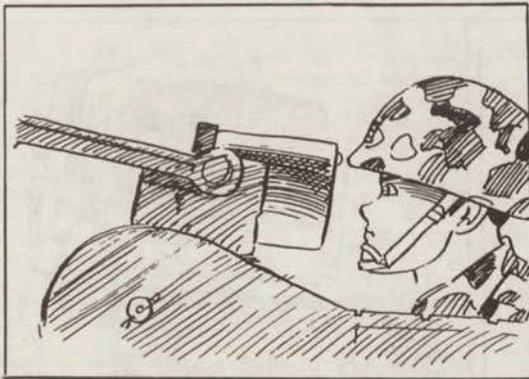
96년 여름철 기상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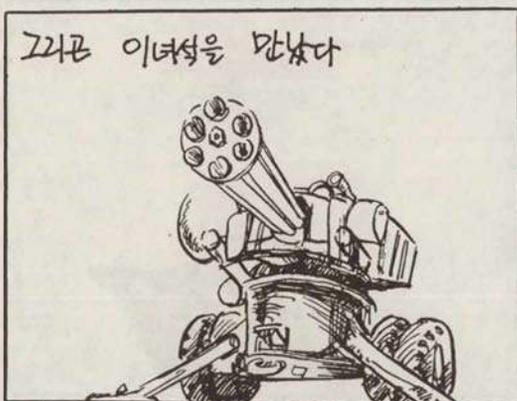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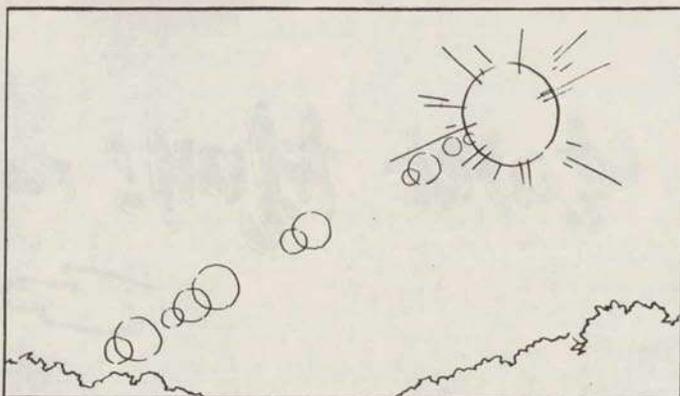
구 분	예 상	
강 수 량 (6~8월)	전국	평년(600~730mm)보다 다소 많음
	동해안	평년(590~600mm)보다 증가
	중부내륙	평년(720~730mm)보다 감소
	중부서해안	평년(700~700mm)보다 증가
	남 부	평년(600~610mm)보다 증가
	남해안	평년(670~680mm)보다 증가
기 온	전 국	평년(23.6℃)보다 다소 높음
장 마	강수량	중부 : 평년(310~320mm)과 비슷
		남부 : 평년(330~340mm)보다 증가
		제주 : 평년(380~390)보다 감소
	장마시작	중부 : 6.22~23
		남부 : 6.20~21
		제주 : 6.19~20
	장마종료	중부 : 7.22~23
		남부 : 7.22~23
		제주 : 7.20~21
태 풍	발행횟수	4~5회(평년 : 4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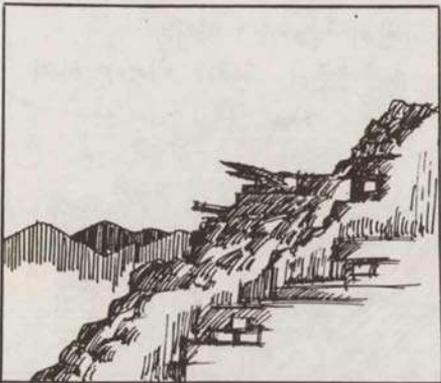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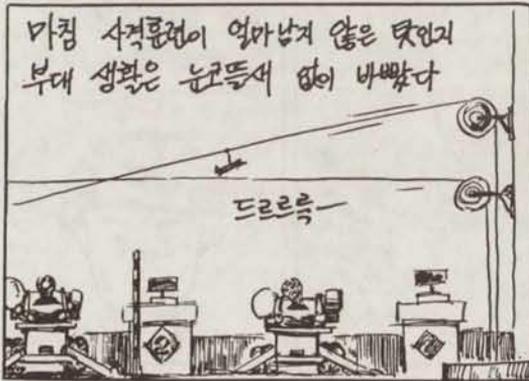
남아라 형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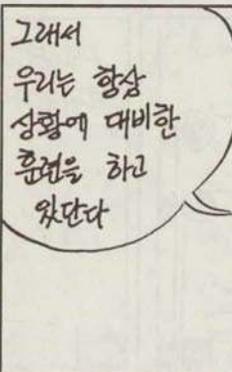


중·그림 근 석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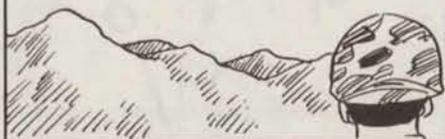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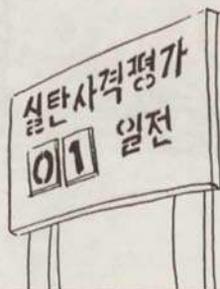
그 선임병은 힘들어 하기는 커녕
자신의 생활에 무척이나 만족하고 있었다



나는 궁금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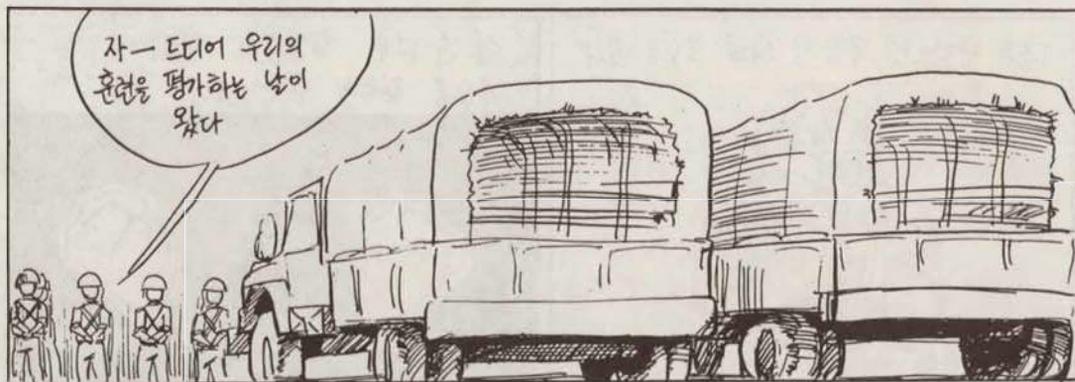
어느덧 훈련평가는 코앞으로 다가왔고



모든 부대원은 전장에 나서는 용사처럼
의연한 모습이었다



자- 드디어 우리의
훈련을 평가하는 날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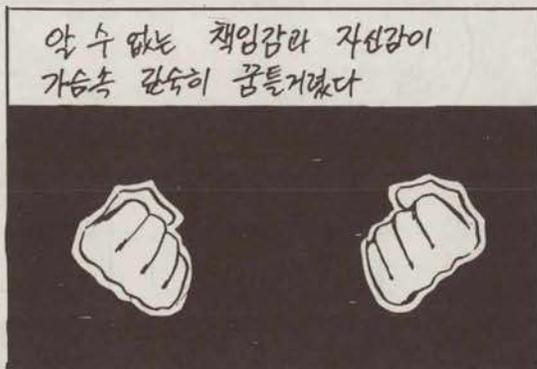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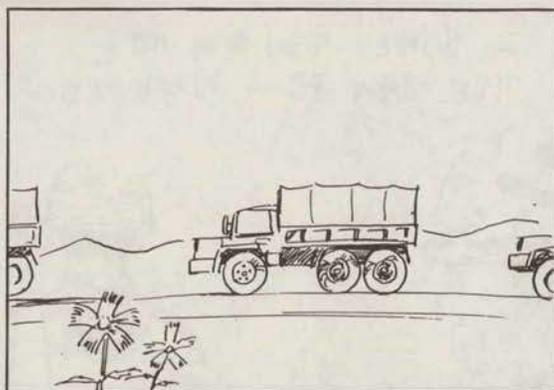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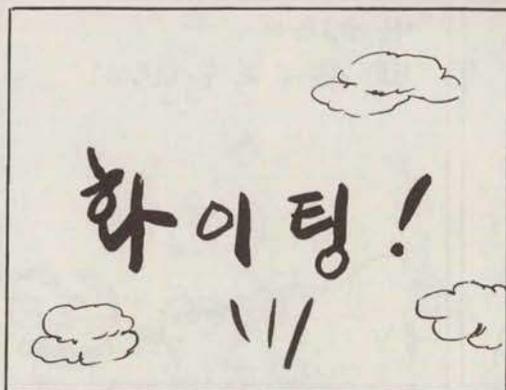


우리 모두는 후회없이 훈련에
임했다니 자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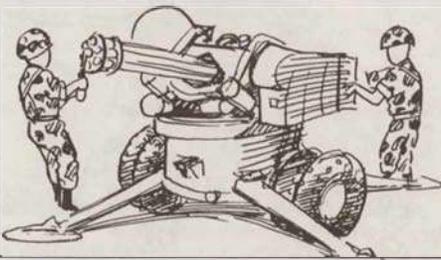


모두가 자신의 기량을
100% 발휘하도록
화이팅 한번 외쳐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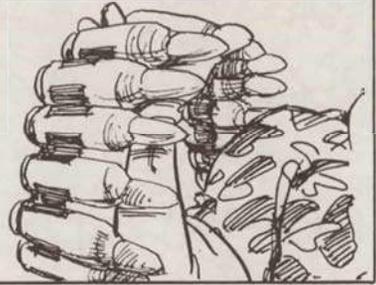
그러나 우리 바다를 감상할 여유도 없이
평가 준비에 여념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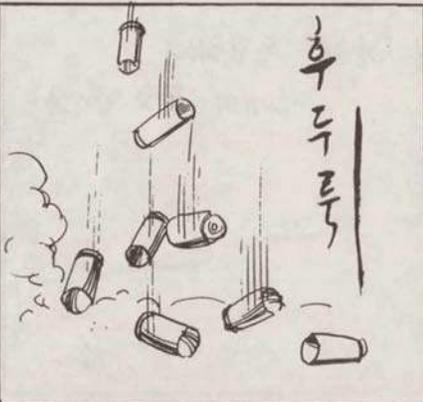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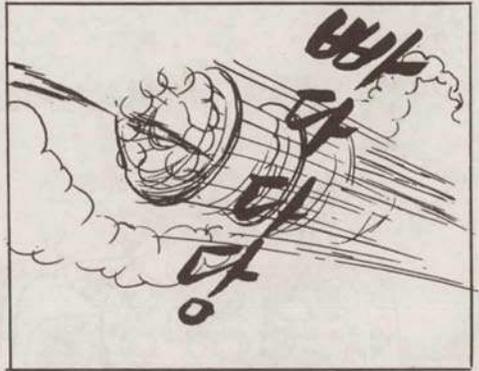
수십가지의 장비를 완벽하게
점검한 다음



곧바로 사격에 들어갔다



바바바바바바바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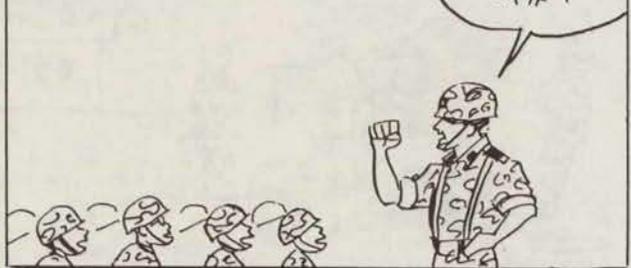


심판은 우리의 평방운동에 보답하듯
계속 표적을 뚫어댔다



평가를 마친후
우리 부대의 명중률이 밝혀지자

우리가
대대 1등을
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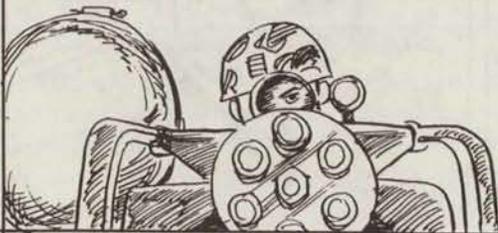
모두들 서로를 격려하며
눈시울을 적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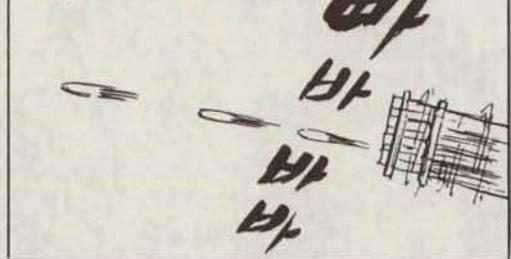
그때. 선상병들의 표정은
풍성한 수확을 거둔
농민의 마음과 같은 표정
이었다



지금의 나.
그때의 선배들에 못지않은 자신감으로



대내면 표적에
방아쇠를 당긴다



목표물을 향해 돌진하는
철매의 모습으로...



2000

작은 출발, 힘찬 도약

박 병 배

병장/제3591부대 헌병대대



이제는 그래도 어느정도 익숙하다. 하지만 처음 생각해 보면 '군생활에서 무슨 문화활동이냐'며, 내 스스로를 의심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사회에 있을 때 익숙했던 일이라 선뜻 그룹사운드 동아리에 지원했지만, 커다란 기대를 하거나 특별히 바라는 게 많아서였던 것은 아니다. 동아리가 만들어진다니 한번 지원해 보자는 반신반의의 마음이 컸고, 기왕 시작했으니 열심히 해 보자는 마음의 채찍질이 컸다.

처음 모임에서 막연하기만한 마음으로 자신의 연주분야를 정하고, 새로이 들어 온 악기들을 정리하는 동록회원 모두의 모습에서 어떠한 안정감이나 기대감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 열의를 가지고 한번 뿌리를 내려보자는 정훈관실장님의 이야기도 그렇게 현실성있게 다가왔던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기만한 여건속에서 서로의 파트를 결정하고, 나는 단지 계급이 선임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동아리 회장이라는 중책을 떠맡게 되었다.

부조화 속의 조화라고나 할까! 적은 인원인데도 맞아 떨어졌다. 나는 바랐던 데로 리드싱어를 맡았고, 리드기타, 베이스기타, 드럼, 키보드 등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결정되었다. 마치 '공포의 외인구단'이라는 만화에 나오는 외인부대가 형성된 것이다.

모임의 과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동아리별로 하루의 날짜가 배정되어, 우리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의 시간이 할당되었다. 초기 정착단계에는 동아리 모임 자체가 업무의 연장이 될 수 밖에 없다는 부대의 취지는 좋았지만, 가는 날이 장날이라는 말처럼 일주일에 고작 2시간인데 왜 이렇게 업무와 겹치는 시간이 많은지…….

우리는 자연스럽게 누구라 할 것이 없이 일과 후에 모이기로 합의를 보았다. 서로가 다른 음악적 경험과 전문가 수준의 "권준수 상병"에서부터, 아마추어에 불과한 "이성재 상병"에 이르기까지 서로의 기량을 맞추기가 힘들었다. 또한 부



서가 다른 동아리원들끼리 느꼈던 서먹서먹함이란……. 하지만 우리는 음악이란 공감대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었다.

특히 “권상병”의 역할은 주도적이었다. 사회에 있을 때 언더그라운드 계열에서 활동했다는 경험이 말해 주듯이 모든 악기를 다 다룰 줄 안다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나, 서로 격차가 심한 외인 부대의 미온 오리새끼를 한마리의 백조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동아리의 활력소가 되는 커다란 힘이 되었다.

그 결과, 우리는 부족한 연습 가운데에서도 첫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95 군가경연대회에서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발표회를 갖고 우리 모두의 바램, 그룹사운드 “K-13”의 희망에 찬 출발을 선언하였다. 잘한다는 칭찬의 말,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하다는 조언에 이르기까지 발표후의 모습은 기대와 채찍질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발표회 이후에 우리들은 허탈감과 후회감에 쌓일 수 밖에 없었다. 준비가 짧았던만큼, 우리 모두가 바랬고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거는 기대감에 대한 부담감이란……. 부족한 여건과 연습의

어려움에 대한 한탄의 한숨이 연발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처음의 시도로 모든 것을 다할 수 없다는 자기반성과, 한알의 밀알이 되어 동아리의 뿌리를 튼튼히 내려보자는 첫출발의 정신으로 다시 연습을 시작하였다.

재미있는 일도 있었다. 우리 문화동아리의 그룹사운드가 조선일보에 크게 보도되고 또 연이어 국군방송의 PD로부터 들어온 인터뷰 요청이며, 군생활에서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경험들이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었다. 특히 조선일보의 보도사진에 내 얼굴이 크게 실려, 외출 때마다 주위의 친구들로부터 들었던 출세했다는 농담소리가 결코 싫게 들리지 않았다.

지금도 우리 동아리 그룹사운드 K-13은 어린 아이에 불과하다. 시설도 인력도 모든 것이 부족하기만 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96년도 새해에 신입회원을 모집하였고, 적은 인원이지만 동아리원들의 열의는 뜨겁기만 하다. 무엇보다도 회원 모두가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장점이다. 어려움에 꺾이지 않는 백절 불굴의 정신, 이것이 바로 우리 동아리를 이끌어 나가는 힘의 원천이다.

명량한 병영, 우리 손에 달렸다.



이 동 규

병장/제3659부대 헌병대대

“우리 학교 운동회때 장병들의 농악공연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말 60여명의 대규모 국악단을 이끌고 위문공연을 왔던 인근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부대 장병들의 사물놀이 공연을 보고는 “위문공연왔다가 오히려 수준높은 사물놀이 공연을 보고 간다”며 감탄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무용과 피리산조, 관현악 연주 중간에 부대 농악동아리 소속 장병들이 찬조출연하여 사물놀이 공연을 펼친 것이다. 어린이들이 연주가 아름다운 선율의 정적인 공연이었다면 부대 농악동아리의 사물놀이 공연은 힘이 넘치고 신명나는 것이어서, 장병들뿐만 아니라 위문공연 왔던 학생들과 선생님들까지도 어깨춤을 추며 즐거워 하였다.

부대에 농악 동아리가 처음 구성된 것은 '95년 4월이었다. 대구 비산농악회 임원인 서준호 군무원과 오세도 상사가 주동이 되어, 뜻있는 영

내병을 모아 연습을 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중앙복지금으로 악기를 사고 농악복도 마련하였다.

“매주 전투체육의 날에 농악반에서 연습하여 체육대회, 기지공개행사에 참가하고 1년 후에는 비산 농악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다.”

동아리 창설 초기 17명의 농악 회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설정한 목표였다.

서준호 군무원의 열의와 농악에 대한 회원들의 호기심으로 수요일(전투체육의 날)마다 농악반 주위를 울리던 북소리, 팽과리 소리가 6월이 되면서 뜸해지기 시작했다. 가장 큰 이유는 사무실 일이 바빠서, 회원들이 전투체육의 날에도 시간적 여유를 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단기병들이 제대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해졌으며,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던 정훈관실에서도 거의 농악반을 포기할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아마 이때 서준호 군무원의 눈물겨운 노력이 없었다면 농악반은 명백도 유지하기 힘들었으리라.



▲모형 항공기 대회의 특별행사로 펼쳐진 장면들의 농악공연 모습

여기서 서준호 군무원을 잠시 소개하고자 한다. 이분은 올해 56세의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로 농악에 심취한 분이다. 아니 좀 더 리얼하게 말하면, 스스로의 표현대로 농악에 “미쳤다”고 해야 할 것이다. 정년퇴임하면 혈혈단신 전국을 돌며 좋은 농악기를 구입해 농악과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그는, 사비를 털어 농악반 장병들에게 음료수를 사주기도 하고 각 부서를 돌아다니며 바쁜 업무때문에 농악반 장병들을 내놓지 않으려는 간부들을 설득시켜 회원들을 연습시키는 등 농악반 활성화에 발벗고 나섰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되자 체육대회, 사병의 밤 등 굵적굵직한 행사들이 열리고, 이때마다 농악반이 초청대상 제1호가 되면서 농악반은 다시

활기를 찾게 되었다.

농악반은 올해 네명의 새내기를 맞았다. 이들을 지도하느라 목에 핏대를 세우던 농악반 고참 민석기 하사는, “업무스트레스를 푸는 데는 농악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바탕 신명나게 놀고나면 몸이 가뿐해지고, 저의 노력으로 다른 장병들이 즐거워 하는 걸 보면 기쁨이 배가 됩니다”며 농악반 회원으로서의 보람을 이야기 한다.

“부서장들이 큰 대회나 행사때만 농악반을 찾지 말고 평소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다면, 신명나는 농악공연으로 우리 부대는 훨씬 더 명량한 병영이 될 것입니다”라는 부탁도 잊지 않았다. **등근**

해동검도를 아시나요?

천 현 석

병장/제3726부대 무장전자정비대대



작년 가을쯤엔가 정훈관실에서 영내사병을 위한 동아리를 만들기 위해 설문조사를 한적이 있었다. 군입대 후에도 여가시간을 활용해 각자의 취미생활과 자기개발 시간을 갖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병영생활에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기면에서 의욕적인 군복무를 지향하기 위한 계획이라며 만들고 싶은 동아리를 본인들이 제안해 보라는 것이었다. 동료들은 기대반 의구심반의 생각으로 설문조사에 응했고, 2번에 걸친 설문조사 후 7개의 동아리가 만들어지고 말았다. “에구머니나! 진짜루 하네”라는 놀람으로 동아리에 참여 하려하니 웬걸!?! 영어회화, 테니스, 컴퓨터, 검도, 프라모델, 댄싱, 영화감상 등 어느 하나 선택할 수 없을 정도로 모두가 하고 싶은 것들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말이지만 학생시절 검도를 하던 친구가 볼펜 한자루만 있으면 열사람도 겁 안난다던 말이 생각나, 다른 하고 싶은 동아리를 뒤로 한채 덜컥 검도 동아리에 들고 말았

다. 우여곡절 끝에 또다시 덜컥하고 검도반 회장까지 되버린 후, 인원을 추스려 보니 약 40여명 남짓되었다.

아직은 아무런 장비(검, 도복, 강사)도 갖추지 못한채 모임을 가지려 하니, 처음에 의욕적이었던 친구들이 하나 둘씩 등을 돌리고 현저하게 수가 줄어 들었다. 동아리 계획이 취소됐네, 어쨌네 하는 유언비어 속에서, 그래도 회장이라는 감투를 쓰고 있는 나도 조금은 흔들렸다. 하는 것 없이 몇달이 지나자 정훈관실에 장비가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다. 목검 50개, 죽도 20개, 호구 2SET 등, 하지만 정작 우리를 가르쳐줄 강사가 없었다. 왕년에 한가닥 했다던 정훈관실장님께서, 강사가 확보(?)되기까지 직접 당분간 지도해 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다시 우리는 모이기 시작했다. 다른 동아리에 비해 유달리 큰 관심을 보여주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정훈관실장님 덕분에 주먹구구식으로 우리 고유의 검도인 해동검도에 발을 내딛었다.



동아리 활동에 일부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동아리가 성장하려면 지휘관 참모들의 사려 깊은 배려가 필수적인 것 같다. 또다시 시간이 조금 지난후 우리는 “짜가”가 아닌 진짜 검도 강사님을 정훈관실장님의 동분서주한 노력 끝에, 현역 해동검도 관장님과 사범님을 모시게 되고 장소도 기지체육관으로 옮기게 되었다. 다시 인원도 늘어가고 여기 저기서 문의전화가 쇄도해서 해동검도의 인기도 정말 높아졌다. 우리 검도반 사나이들을 매료시켜 버린 해동검도. 자욱이 이어오는 땀냄새, 천정을 찌를듯한 기합소리 등 무사도 정신이 담긴 우리 고유의 검도에, 군인정신을 접목시켜 맘 같아선 온 장병이 함께 했으며 하는 욕심도 난다.

관장님과 사범님을 처음 만나봤을때 그들의 몸에서 풍기는 기운, 비록 검을 다루는 사람이지만 겸허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매. 사나리아면 한 번쯤은 되고픈, 흉내내고픈 모습이기에 우리 해동검도 부원들은 일주일에 한번씩 모여도 모이는 시간만큼은 자발적으로 최선을 다한다. 또 한

가지 아쉬운 부분도 이점인데, 군 특성상 모두다 다른 작업장에서 다른 업무를 하고 있어서, 정해놓은 시간에 모든 회원이 한꺼번에 다 참석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하지만 운동을 하는 사람답게 검을 소중하게, 그리고 졸병을 위협(?)하는데 사용치 않는다는 다짐을 전제로 개인이 검을 보관하면서 틈틈이 수요일날 배웠던 수업을 복습하기로 했다.

평소에 TV나 수면으로 여가를 낭비했던 우리들에게 검도라는 일종의 문화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종전에 가졌던 타율적이고 목적의식 없이 보냈던 시간에서 신체적·정신적 성장을 돕고 비행 및 일탈을 예방하여 사기도 증진되고 소속감도 크게 향상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서 겨우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지만 이 동아리 활동이 자칭 신세대라 주장하는 X세대 장병들에게,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어느덧 동방불패가 되어 하늘을 가르는 상상도 해 본다. **등근**

공·군·문·단

- 적병이 물러가고, 질병이 나으며...
- 우정의 무대 제작 지원기
- 코카콜라를 마신다?!
- 판문점을 다녀와서
- 꿈나무 메추리
- 군인일기-행군
- 우리나라 탑(塔)에 대한 소고(小考)

적병이 물러가고, 질병이 나으며 ...



조 규 진
소령/제3726부대 255대대

대금은 신라시대의 대표적 악기인 삼현(三絃 : 거문고, 가야금, 향비파)과 삼죽(三竹 : 대금, 중금, 소금) 중의 하나로서 대나무로 만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악기이다.

대금은 신라 신문왕 때 만파식적(萬波息笛)이라 하여, 소리로써 세상의 모든 환난과 풍파를 평정케 하는 신비한 힘을 가진 악기로 삼국유사에 설화로 기록되어 있다. 그 청아하고도 강류를 겸비한 음색은 모든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 주기에 죽하다고 하겠다.

대금의 축자는 원래 속이 팍 찻다는 뜻으로 「함」이라고 읽으며, 대금을 대함이라고 읽는 것이 옳은 음이나 지금은 대금이라고 통용되고 있다. 순수 우리말로 대금을 「큰저」 또는 「젓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금에 관한 역사적인 기록들은 많이 있지만, 삼국유사 권2 만파식적(萬波息笛)조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신라 제31대 신문대왕은 개요 원년(681년) 7월 7일에 즉위하여 선왕인 문무대왕을 위하여 동해변에 감은사를 창건하였다. 그 이듬해 5월 초하루에 해관(海官) 박숙청이 아뢰기를 동해 한가운데에 작은 산이 떠서 물결을 따라 감은사를 향해 떠온다는 보고를 하였다. 왕이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여 일관인 김춘질에게 명하여 점을 쳐보도록 하였는데 점을 친 결과 대답하기를, 선왕께서 지금 바다의 용이 되시어 나라를 보호하시고 문무왕과 김유신 두 성군이 덕을 같이하여 나라를 지킬 보배를 내려주시려 하니, 만일 왕께서 해변에 가시면 반드시 값을 헤아릴 수 없는 큰 보물을 얻으시리라는 풀이를 하였다.

왕이 기뻐하며 그날 7일에 이견대에 행차하여 사람을 보내고 그 작은 산을 살펴보게 하니, 산의 모양이 거북이의 머리를 닮았고 또 산 위에 대나무가 하나 있는데 낮에는 둘이 되고 밤에는 합하여 하나가 된다고 아뢰었다. 왕은 그 날밤 감은사에서 유숙하였다. 다음날 정오가 되어 대

고 비가 오며 암흑의 날이 7일간이나 계속되다가, 그 달 16일에 가서야 비로소 바람이 자고 물결이 평온하여졌다. 왕이 배를 타고 그 산에 들어가니 용이 검은 옥대를 받들고 와서 받치는지라 왕이 용을 영접하여 같이 앉아서 물어 가로되 '이 산의 대나무는 나누어지기도 하고 합하여지기도 하는데 그 연유가 무엇이오' 라고 물으니, 용이 대답하기를 '한 손으로 손뼉을 치면 소리가 나지 않고 두손으로 손뼉을 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이 대란 물건도 합한 연후에야 소리가 나는 법' 이라하며, 성왕께서 소리으로써 천하를 다스릴 상서로운 징조이니 이 대나무를 베어 저(笛)를 만들어 불면 천하가 화평할 것이다 하였다.

지금 왕의 선친 문무대왕께서 바다의 큰 용이 되고, 김유신이 다시 천신(天神)이 되어 두 성왕께서 마음을 같이하여 이 큰 보물을 주시어 나로 하여금 갖다 바치게 한 것이라 하였다. 왕이 놀라고 기뻐하며 오색금채와 금과 옥을 주고 신하를 시켜 대나무를 베어 가지고 바다에서 나오니 산과 용이 갑자기 보이지 않았다.

왕이 돌아와 그 대나무로 저(笛)를 만들어 월성(月星)에 있는 천존고(天尊庫)에 보관하였는데, 이 저를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질병이 나으며 가뭄에는 비가 오고 비가 오면 개이며 바람은 가라앉고 물결도 평온하여 졌다. 그래서 이 저를 이름하여 만파식적(萬波息笛)이라 하고 국보(國寶)로 삼았다. (삼국유사 만파식적 편)

이와 같은 기록으로 보아 대금의 기원은 신라 시대로 삼는 이도 있으나, 삼국시대 이전에 이미 가로부는 저가 우리 나라에 널리 퍼져서 불려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고려시대 이후로는 모

든 악기를 조율(調律)하는데 표준악기로 삼아왔다. 음역은 아랫단, 중간단, 높은단으로 구분하며 낮은 임(淋)에서부터 높은 태(汰)까지 약 3옥 타브에 이른다. 음색은 저음부에서는 부드럽고 따뜻한 편이고, 중음부에서는 청아(清雅)하고 투명한 소리를 내며, 고음부에서는 시원하고 장쾌한 소리를 낸다. 특히 고음부에서 「떠이어」하며 시원하게 울리는 청(淸)의 소리는 한민족의 맥(脈)을 있는, 천년의 혼(魂)을 머금은 소리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대금이 사용되는 음악은 수제천이나 여민락 등 궁중의 어전에서 아뢰던 아악과 연례악·재례음악은 물론, 영산회상등 민간의 술풍류나 대풍류·가곡·가사 시조의 반주와 독주곡에 이르기까지 정악계통의 음악 전반에 걸쳐 사용이 된다. 특히 대금은 한국의 대표적인 독주악기로, 청성곡(淸聲曲)이나 상령산 등은 이 세계의 음악평론가들이 격찬할 정도로 정평이 나있는 음악들이다.

천년을 이어 내려오면서 신묘한 소리으로써 천하를 화평케 했던 청아하고도 장쾌한 소리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의 경건한 기상을 나타내주고 맥을 이어준 훌륭한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등단**

우정의 무대 제작 지원기

홍 승 진

중위/제3758부대 정훈관실



1996년 새로운 한해의 싱그러움을 마약 느끼기 시작할 무렵, 공군본부에서 날라들어 온 소식. “올해 상반기중 우정의 무대 공연을 강릉에서 해보는 것이 어떤가?” 이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이 1월 달이었으니 뭐……. ‘날씨 따뜻해지고 장병들 위문공연으로 잘됐다. 명색이 정훈장교인데 이것도 안해보고서야…….하는 생각으로 편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곧이어 2월 중순에 들려 온 소식, “방송 3월 31일, 녹화 3월 25일”. 이 소식은 우리 사무실의 전 구성원을 긴장시키기 충분하였다. 정훈관실 업무중 가장 큰 행사인 4월달의 모험항공기 대회예선과 시기상으로 비슷하게 겹쳐버린 것이 아니까. 게다가 3월 25일 녹화에 사전 헌팅이 3월 8일로 잡혀 있었으니, 설 연휴를 빼면 실질적인 시간여유는 얼마 없었다. 아픔의 시작이었다. 우리 사무실에서는 즉각 비상사태가 발동되었다.

부랴부랴 얼마 전에 우정의 무대를 유치한 타 부대에 연락을 하여 필요한 자문을 구하고, 문

서를 기안하여 출연장병을 모집하였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출연 신청자의 쇄도, 역시 매스컴의 위력이 대단함을 새삼스레 느끼게 하는 열기였다.

이때 들려 온 소식, “MBC가 최근의 시청률 저조의 타개책으로 3월초 단행할 예정인 프로개편에서 대표적 장수 프로그램인 우정의 무대, 전원일기, 장학퀴즈 등을 폐지할 것을 적극 검토중”이라는 각종 신문의 보도는 우리들의 맥을 빠지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아픔 두 번째……. 올해로 8년째에 이르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웬만한 부대는 3~4회씩 다 거쳐갔을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신세대 장병들이 이런 집단적인 오락거리를 계속 좋아하는지도 문제이고, 프로그램 자체도 별 변동 없이 진행되다 보니 약간의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방송에 문외한인 나로서도 느껴질 정도이니, 폐지가 현실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손을 놓고 기다리던 것이 일주일여, 결국 프

로그랩은 존속으로 결정이 되었고, 여기서 잃어버린 일주일간의 준비 기간의 손실은 우리를 더욱 시간에 쫓기게 만들고야 말았다. 세번째의 시련…….

게다가 새로 바뀐 프로듀서가 기존의 체제를 답습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겠다고 사전답사일에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굳이 경어를 쓰는 이유는 이분이 대학교 선배일뿐 아무런 합당한 근거는 없다)에서 선발해 놓았던 오프닝 댄스팀과 장기자랑팀의 다수가 도로아미타불이 되어 버렸다. 결국 새로운 포맷의 시도를 하는 첫부대가 공교롭게도 우리 3758부대가 된 것이고, 인원선발을 다시 시작해야 했다. 네번째의 고난이라고 할까…….

여기에 3월초까지도 행사 근거라 할 수 있는 기본 근거가 명시적으로 내려오지 않는 사소한 기술적 문제도 있었고, 녹화당일을 비(非)비행일로 잡을 수밖에 없어 방송국일정과 조정을 하다 보니 녹화일이 거의 일주일이나 당겨지는 엄청난 사태가 일어났다. 이 때문에 장병들이 그렇게도 갈망하던 유명 인사들의 출연이 일정상의 문제로 어렵게 되었다고 한다. 다섯번째의 시련……. 하지만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이일을 마무리해 보자는 오기로 우리 정훈관실 전 부서원은 헤쳐나아 갔다.

결국 최종녹화일은 다가왔고 바로바로 실려오는 장비와 시설들은, 단 한시간짜리 프로그램에 쏟아지는 무대 뒤의 노력을 실감케 했다. 간접적으로 전파를 통해서만 볼 수 있었던 사람을 직접 눈으로 본다는 것은, 구경하는 장병들뿐만 아니라 필자에게도 재미있는 일이었다. 게다가 방송국의 자체 사정으로 인한 파업으로 노조원이 업무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국장급” 카메라

기사, “부장급” 조명기사가 등장하는 등 불거리도 많았다. 다행인 것은 행사 실무자인 본인이 녀을 잃을 만큼의 미모의 출연자가 만나와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 그나마 다행이 아니었나 싶다. 하여튼 녹화당일은 볼만한 노래와 장병들의 그 동안 열심히 연마했던 장기자랑, 그리고 사회자의 재롱(50줄에 접어든 할아버지 급이지만 이 표현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등으로 즐거운 잔치분위기였다.

본 녹화는 끝났지만 여전히 자잘한 사고는 계속 발생하였다. 조연출자가 녹화원고를 분실하는 상식이하의 사고를 치지 않나, 녹화에 참여하였던 가수는 옷과 물품을 현장에서 분실하고, 작은 물건도 아니고 녹화 당일 촬영기자재인 사다리(높이 3m)도 녹화장에 홀리고 가는 민지 못할 뒤통수 거리도 발생하고야 말았다.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 행사를 주관한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일단 안도감부터 들고, 그 다음에는 약간의 허탈함이 따르는 것이 보통사람이면 느끼는 감정이 아닐까 한다. 이번 행사를 치르면서 내적·외적으로 우여곡절이 많아서 좌충우돌하기는 했지만, 여하튼 공군에서 정훈장교로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보람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번 우정의 무대 공연을 지원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우선은 무대 뒤의 숨은 노고를 볼 줄 아는 시각을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단 한시간 짜리의 어찌 보자면 아주 평범한 프로를 위해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애를 썼다. 공연 예정장소에 3일전부터 와서 무대시설을 조립하고, 조명 달고 음향 달고 각종 기자재를 설치하고 페인트 칠하고……. 정작 TV에 나오는 사람은 30명도 채 안되는데 말이다. 우리는 이 잘 포장된 60분짜



리 Show를 보면서 그 뒤에 숨은 사람들의 노력을 볼 줄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관객의 입장이 되었던, 그 프로의 주인공이 되었던 간에 말이다. 인생의 다른 부분에도 이런 생각을 적용해 본다면 더 폭넓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두번째는 방송이란 매체의 허구성을 볼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어차피 눈으로 보는 것은 허구일 뿐이다. 무대 정면에서는 그럴듯하게 보여도 옆이나 뒤에서 보면 가면을 쓴 허상들이 나와서 벌이는 것을, 잘 포장해서 내보내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보는 하나의 방송프로다. 즐겁게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그 허상을 즐기는 것은 좋지만, 그 정면만이 진실인 것으로 착각하지 않는 지혜가 요구된다고 본다. 비단 방송뿐만 이겠는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세번째는 방송관계자들을 보고 느낀 생각인데, 출연 연예인도 두부류가 있다.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따라다니는 매니저들의 코높이도 이에 따라 다르다. 물론 잘 나가면서도 인간적으로 완성된 인간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보았다. 높은 위치에 있으면 있을수록 겸손해지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겠다는 타산지석의 지혜를 볼 수 있는 기회였다.

마지막으로 국익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군생활의 모습을 좀더 과감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고려해야 함이 당연하지만, 지나치게 감추기만 하는 것은 군과 일반 국민들의 일체감 조성을 위해서 지양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상으로 우정의 무대프로 제작을 지원하면서 겪었던 일을 간략하나마 정리해 보았다. 이번 행사에 음으로 양으로 고생한 3758부대 가족들, 특히 실장님을 비롯하여 사무실 부서원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아울러 지금 병상에서 투병중인 신 담당PD 선배님의 부인되시는 분의 신속한 쾌유를 이자리를 빌어 기원한다. **중군**

코카콜라를 마신다?!

—올리버 스톤의 ‘타고난 킬러’를 보고—

이 준 복

중위/교재창 생산관리과



사람들마다 영화를 보는 관점은, 수많은 개개인의 생각이 각각 이듯이 아마도 이 세상 사람들 수만큼이나 다를 것이다. 영화가 만들어 지고 그것이 감독의 손을 떠나 사람들앞에 나서게 되면, 그때부터 영화에 대한 평가는 관객 개개인에게 달려 있다. 내가 영화를 볼 때 주로 보는 것은 조금 단순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 사회의 모습을 그려냈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사회의 한 단면을 현실감 있게 그리거나,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영화를 좋은 영화로 받아들인다. 올리버 스톤 감독의 ‘타고난 킬러’ (이하 킬러) 또한 내게는 좋은 영화로 받아들여진 영화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처음보면 ‘뭐 이런 영화가 다있어!’ 라는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다. 복잡하게 전개되는 화면과 다양한 질감의 화면 구성, 정신없이 살인에만 몰두하는 남녀주인공과 그들을 둘러싼 세명의 미치광이(?) 남자들.

이런 아리송한 ‘킬러’의 극적 흐름속에서 내가 바라보는 것은 두가지 사회적 현상이다. 바로 매스미디어의 광범위한 사회적 영향력과, 사회라는 구조속에서 인간의 살인마저 가장 본능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추앙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킬러’에 나타나는 미디어의 모습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그것들은 각각의 모습으로도 의미가 있으며 복합적인 작용으로도 의미가 있다. ‘킬러’는 매스미디어 속의 현실과 우리가 사는 현실의 세계를 넘나들며 그 경계점을 모호하게 만들어 버린다. ‘킬러’속에 나타나는 영화, 코메디 프로그램, 뉴스, 만화는 인간의 본능을 규정하는 힘을 가진 존재로 등장하게 된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그 모습들을 살펴나가 보자.

우선 말로리 녹스와 미키 녹스가 말로리의 집에서 그녀의 가족을 죽이고 달아나는 장면을 보자. 그 장면은 60년대 미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코미디물을 패러디한 것이다. 부모를 살해한다

는 존속살인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영화 속의 관객들은 환호하고 웃어가며 즐긴다. 조금 심한 비교이기도 하겠지만 이 장면은, 몇 년전 소말리아의 내전을 종식시키려 했던 미군의 상륙작전 장면을 CNN이 중계하였던 것을 생각나게 한다. 군부대의 상륙작전이라는 것은 그것이 피를 흘리던 그렇지 않던간에 전쟁의 살육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인공위성과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우리는 그 살육의 현장을, 집에서 마치 TV에서 중계되고 있는 스포츠나 코미디 프로를 보듯 가족이 모여 앉아 볼 수 있는 것이다. '왈가닥 루시' (?)를 패러디한 이 장면은 이러한 비교를 가능케하는 첫번째 매개물로 작용한다.

다음으로 간간이 삽입되어 나타나는 코카콜라의 광고를 보자. 이 광고들은 우리나라에서도 TV를 통해서 방영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광고였다. 순박해 보이는 북극곰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코카콜라라는 상품을 인지하게 되고, 아무런 부담없이 가까운 편의점에 가서 콜라를 골라마시면 된다. 그러나 이속에서도 이전의 비교는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영화 속의 코카콜라 광고는 두가지가 등장하는데, 그 하나는 북극곰들이 밤하늘의 아름다운 오로라를 함께 즐기는 모습이다. 대화가 단절된 채 눈앞의 황홀한 모습에 매료되어 옆에 누가 와서 끼어들려하면, 조금 짜증은 내지만 잠시 자리를 내주고 다시 그것에 몰두하게 된다. 또 하나의 광고는 북극곰이 콜라 한병을 따서 마신다음 천진스럽게 웃는 장면이다. 이 두장면은 '킬러'가 말하려는 것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여주는 장면이다. 오로라를 쳐다보는 북극곰들의 모습은 방관자적인 모습으로 매스미디어를 통해 보여지는 갖가지

사회적 현상들을 바라보고, 그것에 탐닉해 들어가며 열광하는 대다수의 대중(대중은 보통 수동적인, 안좋은 이미지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광고속에서의 오로라는 아름답고 황홀한 모습이지만, 그것은 매스미디어의 치장에 가려진 사회의 추악한 모습들이다. 그것은 전쟁일수도 있고 광적인 살인일수도 있다. 북극곰으로 대변되는 대중들의 모습은 '킬러'의 곳곳에 산재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영화의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60년대 미국 가정의 모습들이다. 그들 또한 미키와 말로리 부부의 살인 행각을 그저 TV를 통해서 멍하니, 그리고 경악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된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들은 방관자적인 입장이며, 매스미디어를 통해 사건을 관람하듯 즐기는 산재되어 있는 무기력한 개인일 뿐이다.

다시 영화속으로 들어가 보자. 미키와 말로리가 모텔방에서 여자를 납치해 묶어놓고 그들끼리 섹스를 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장면에서 눈여겨 볼 것은 창틀밖으로 보이는 뉴스필름과 기록영화 필름들이다. 수많은 전쟁의 비참한 모습들과 미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살인 사건들, 간간이 보이는 동물 세계의 모습들. 이 필름들은 미키가 바라보고 있던 TV 프로그램들이다. 미키 또한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 그가 사회와 마주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TV이며, TV속에 비쳐지는 모습 그대로 사회를 바라보게 된다. 그에게 있어 전쟁과 살육으로 얼룩진 세상의 모습은 본능이 지배하는 동물의 세계와 다를 바 없다. 아니 어떻게 보면 동물의 세계가 더 아름다울 수도 있다. 그들은 최소한 동족을 죽이지는 않으며 개발의 이름으로 환경과 사회를 파괴하지는 않으니까? 그가

바라볼 수 있는 세계는 TV에서 보여주는 살육의 세계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니키는 인간의 본능을 살인이라고 여기게 된다. 그에게 있어서 몇 사람죽이는 것은 본능에 충실한 행동일 수밖에 없다. 물론 그의 살인 본능을 일깨우는 것은 어린 시절의 기억도 큰 몫을 한다.

억제되었던 본능의 소리를 말로리를 만나면서부터 느끼기 시작했고, 그들이 결혼을 했던 망각의 강에 하얀천을 흘려보내듯이 그들은 이전의 모습을 잊고 새롭게 태어나고자 한다. 녹스부부의 결혼식에서 미키가 말했듯이 '나의 세계'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은 자신들만의 세계에서 자유롭고 싶었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인간의 본능에 충실하기 위해 살인과 섹스에 몰두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은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들의 존재를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들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아메리칸 인디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 그들을 가만히 놓아두지 않으려는 사회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녹스부부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아메리카 인디언은 자연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던 그들의 선조가 산업화라는 거대한 악마를 가져왔던 백인들의 침략에 의해 자신들의 세계가 깨어지고, 자신의 아들과 부인이 그 문명이 가져온 전쟁이라는 희생물이 된 이래로, 그는 산업화라는 거대한 악마가 낳을 자기파멸의 또다른 악마의 모습을 예언하였고 그들을 기다려왔던 것이다. 그 악마는 녹스부부였으며 그들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였지만, 산업화라는 악마를 등에지고 진행돼 왔던 사회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었다. 그들에게 악마적인 본능을 일깨워주는 것은 추악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매스미디어였으며, 미디어는 그들이 어렸을 때 겪었던 가족사의 비극과 결

합에 악마적인 본능을 불러 일으키는 상승작용을 했던 것이다.

'킬러'에서 나타났던 다양한 매스미디어의 형태와 그것을 즐기는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대한 매스미디어의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준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매스미디어로 끝나지 않는다. 매스미디어는 오늘날의 문명사회를 대표하는 하나의 매개체일 뿐이며, 그것은 인간의 역사속에서 발달해 온 물질적인 존재인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어느새부터 그들 스스로 만들어 왔던 물질세계로부터 지배당하게 되었으며, 그것에 의해 자신들을 규정당하도록 하고 있다. 미키가 말했던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랑' 대신, 인간은 '살인'을 자신의 본능으로 여기도록 강요하는 사회를 만들어 왔던 것이다. '살인'의 대상은 TV프로그램 속에 존재하는 타인이 아닐 수도 있다. 바로 '살인'을 조장해 왔고 방관해 왔던 문명사회, 그리고 그 성원들이 대상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마지막 장면은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녹스부부를 이용해 자신의 출세욕을 이루려 했던 웨인 게일이, 결국 녹스부부의 마지막 살인대상이 된 것이다. 웨인 게일은 '살인'의 세계를 방관해오던 것에서 벗어나, 대중을 감각적인 것으로 물고개 대중의 방관을 적극적으로 조장해 왔던 매스미디어와 사회를 대변하는 인물인 것이다. 그는 아까도 말했던 자기파멸의 악마에 의해서 제거되어 버리는 우리들 미래의 모습일 수도 있다.

'살인'을 자신의 본능으로 만들 것인가, '사랑'을 자신의 본능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일까? 이 영화는 그 해답을 찾아 나가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공민**

관문점을 다녀와서

김 주 광

상사/제3726부대 수송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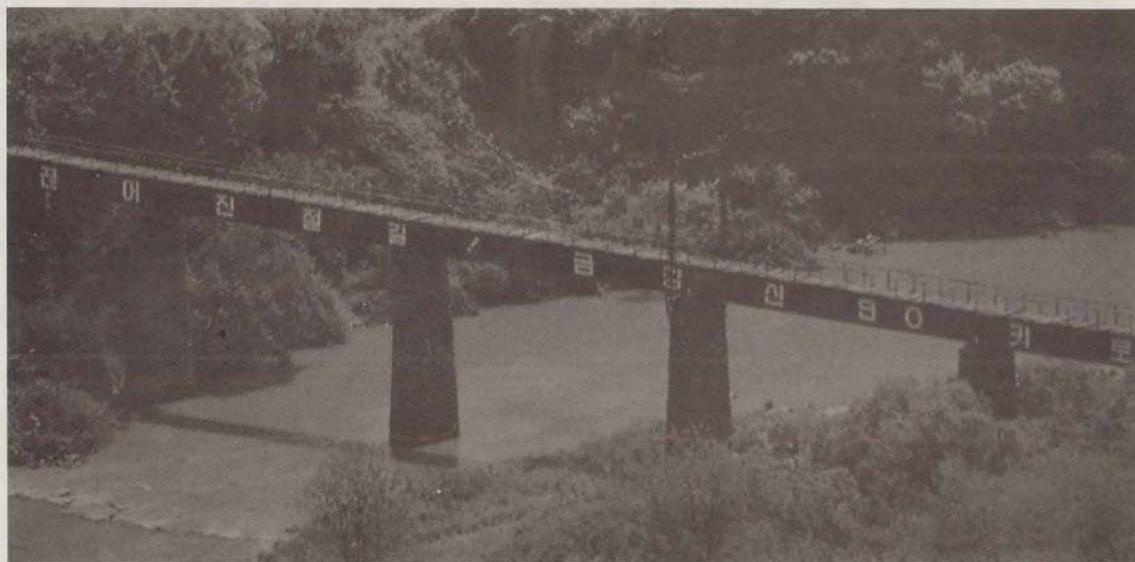


맑게 개인 하늘과 산과 들의 아름다운 경치를 벗삼아 정훈관실 주관으로 비행단 최초의 관문점 견학을 떠나는 아침이다. 15년간의 군생활을 통하여 전방부대를 처음으로 방문하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40여명의 일행이 버스에 탑승하여 간단한 인사와 세부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동안, 차량은 서서히 운행을 시작했다. 복잡한 도심을 통과하자마자 곧게 잘 정돈된 도로가 우리를 반기었으며, 길옆 철새 보호구역에서 나선형의 곡선을 그리며 한가로이 노니는 수많은 철새들의 무리가 평화로움을 느끼게 하였다. 새롭게 단장된 이 도로는 앞으로 가장 빠르고 자유롭게 남과 북을 연결할 자유로이다. 한강 상류를 끼고 잘 정돈된 주변 경관을 만끽하면서 북쪽을 향해서 달리는 동안,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어떠할까 하는 기대감과 전방에서 철통방위를 위해 수고하는 병사들을 만나게 된다는 설레임이 들기 시작했다. 부대에서 출발한지 1시간 50분쯤 되거나, 인적은 뜸하고 가끔씩 오가는

관광차량과 군용트럭의 숫자만 늘어나 긴장감은 더해 갔다.

첫번째로 임진각에 들러 잠시 휴식을 취하게 되었다. 임진각 자유의 다리를 통과하는 우측에는 6·25의 처절한 전투가 벌어졌음을 알리는 무너져 내린 교각과 잔해들이 눈에 들어왔고, 한편으로 오랜 역사의 흐름을 말해주듯 교각사이로 푸른 강물이 말없이 흐르고 있었다. 조금씩 산세가 험하여지고 차량의 통해도 한적한 곳으로 버스는 달리고 있었다. 두번째로 도착한 곳은 멸공관이다. 6·25전쟁시 한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기꺼이 바쳐 산화한 육탄 10용사의 진지점령 모습을 보면서, 나의 군생활 기간동안 조국의 번영을 위해 더욱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해야겠다고 다시금 다짐하며, 제3땅굴 발견 VTR을 보았다.

자리를 옮겨 일행은 더욱 험준한 고개를 넘어 북측을 관측하기에 알맞은 도라전망대에 도착하였다. 안내사병의 설명을 들으면서 망원경을 통



▲ 금강산 가던 철길

하여 북측을 관측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전망대에서는 120만 실향민들의 가슴을 여미게 하는 개성 시가지가 한눈에 보였으며, 서로에게 더 이상 다가갈 수 없게끔 하는 철책도 볼 수 있었다. 자유가 그리워도 가족이 그리워도 오갈 수 없는 그 철책, 이 철책이 사라져 자유롭게 왕래할 그 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일 것이다.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저 철책 넘어 제일 가까운 곳에 위치한 북한의 기정동 마을과 남한의 맨 끝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 또한 멀리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며 우뚝 솟은 송악산 봉우리 기암석은 보는 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다. 하지만 산 허리마다 경관을 해치는 반미구호와 인공기계양 철탑, 산마다 파헤쳐 남측을 관측하기 위한 북쪽 GP가 눈에 거슬렸다. 특히 세계에서 제일 높다는 인공기계양 철탑은 높이만도 120m 인데다 인공기 크기는 가로 100m, 세로 80m

로, 달고 내리는 시간이 30분이 걸린다고 하니 실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안간힘을 쓰고 있나 짐작하고도 남았다. 또한 어렵פות하게 북한의 GP 대남방송이 가끔씩 들려왔다. 이곳이 바로 비무장지대인 것이다.

북쪽 낮은 초소에서 시작하여 남쪽 비무장지대 미군 초소인 1.6km지점까지 땅굴을 파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았다. 내가 서 있는 이곳에 땅굴을 파고 들어왔다는 생각을 하니 오싹 하였다. 이제 그 현장을 보기 위해 제3땅굴 견학을 하게 되었다. 전망대에서 기념촬영을 한후 잠시 탑에서 떨어지는 약수를 맛보았는데 정말 꿀맛이었다. 제3땅굴, 초병의 안내를 받아 지하 600여m의 갱도를 들어가니, 일행 모두 어쩌면 이렇게 정교하게 암석층만을 뚫고 파왔을까 하는 생각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또한 나도 모르게 두 손을 불끈 쥐고,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며 지금도

호시탐탐 남침의 기회를 엿보는 북한의 이중적 음모에 맞서 더더욱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아직도 남쪽을 향해 파내려오던 굴착기 자국이 선명히 보이고 있다. 이 땅굴을 이용하여 1시간당 3만명의 병력이 이동할 수 있다고 하니 놀라운 일이다.

차량은 다시 이동하여 우리의 마지막 견학장소인 판문점을 향해서 출발하였다. 최전방을 향해서 가는 길 옆에는 남한의 최북단의 대성동 마을 입구가 보였다. 우리 일행은 유엔군 방문자 회의실에서 판문점에서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방문표찰을 가슴에 달고 버스에 탑승하였다. 늑름히 말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무장헌병들의 밝은 표정을 보니 마음이 든든하였다. 주위의 곳곳에 우리 국군장병과 북한군 병사가 서로 경계를 서고 있었다. 북한군 초소에서 망원경으로 우리를 관찰하고 있는 것을 보니 다소 긴장감이 들기도 했다.

판문점에서 기념촬영을 하였다. 그리고 남북 대화가 열리는 회담장소에 들었다. 테이블 위에 네개의 마이크가 남과 북을 향하여 2개씩 연결되어 있었으며, 마이크 선으로 남과 북을 표시한다고 한다.

“지금 저의 좌측에 계신 분은 잠시 월북자가 되셨습니다”라는 안내자의 설명에, 긴장감은 다소 풀어지고 폭소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촬영이 허용된 장소에서 촬영하는 동안, 창문밖에서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북한군 병사가 바로 뒤쪽 가까이 와있는 것이 보였다. 지척에서 본 북한군

병사와 우리 병사와의 표정은 너무나 대조가 되었다. 검게 그을린 얼굴과 움푹 패인 광대뼈, 나이 또한 이십칠팔세 됨직하며 무표정한 모습에서 자유가 제한된 그들의 생활을 실감할 수 있었다.

판문점 앞에서 활짝피진 얼굴로 기념촬영을 한 후, 8·18 도끼만행 사건이 일어났던 곳으로 이동하며 당시 상황을 접하니 그 끔찍함을 실감케 되었다. 이제 차량은 다시 무장 차량의 호송을 받으며 판문점 견학을 마치고 귀경길에 오르게 되었다. 일정에 맞추다 보니 3시가 되어야 임진각에 다시 도착하여 점심식사를 할 수 있었다. ‘통일을 의미한다’ 하여 모두가 설렁탕으로 메뉴를 통일하여 정말로 맛있고 즐거운 식사를 하였다.

부대로 돌아오는 길에 잠시 생각에 잠기었다. 여러가지를 깨닫게 한 정말 값진 견학이었던 것 같다. 서로 믿고 자유로운 왕래가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과, 그저 멀리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저쪽도 우리 땅인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하루속히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남북의 대립이 아닌, 평화롭고 살기 좋은 하나의 통일된 조국이 되길 바란다. 판문점이 아닌 금강산과 백두산을 견학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란다. 또한 그런 조국의 통일을 기대만하고 일상대로 생활하는 내가 되는게 아니라, 견학을 통해 보고 느낀대로 말은 바 나의 임무속에서 더더욱 국토방위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마음 깊이 다짐해 본다. **등단**

꿀나무 메추리



최 영 만
상사/제5718부대 215대대

“요한이는 커서 뭐가 될거니?”
“으음. 군인이요.”

다섯살 꼬마인 아들과의 대화속에 아버지가 묻는 말이다. 처음 물음에도 군인이요, 두번째 물어봐도 그 대답은 하나같이 군인다. 이 녀석은 도대체 군인이 뭐가 좋아서 대답마다 군인이 되려고 한단 말인가?

학교에서도 장래 희망란에는 꼭 군인이란 단어를 적는 아들의 희망을 키워주기 위하여 나의 행동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아들에게 대한 언어와 태도, 군인다운 품성과 행동, 자상한 아버지가 되려고 무척 애를 쓴다.

매년마다 주최하는 서부 경남지역 모형항공기 대회에 별로 관심이 없이 그냥 지나쳤는데 3학년 때에는 꼭 출전하게 해주고 싶었다. 대회요령의 문서를 읽고 의논한 후 참가하도록 결정되었다. 가까운 문방구에 가서 모형 비행기를 사다 사흘간 같이 제작한 끝에 드디어 한대의 비행기

를 완성하여 시험비행을 위하여 사천 공설운동장으로 갔다. 고무 동력기라서 그런지 아들은 날리는게 서툴고 힘들어 하였다. 고무줄 감기와 자세가 부자연스러워 요령을 가르쳐 주어도 마치 못해 하는 모습이 눈에 역력했다.

“요한아, 아버지가 다시 도와 줄께.. 잘날지 못한다고 실망하고 짜증내지 말아라. 사람이 일을 시작한다고 해서 꼭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야. 부족한 점을 고쳐 나가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단다. 인내가 필요한 거지. 모형 비행기도 마찬가지야. 한번 만들어 보고 두번 만들어 보면 요령과 경험이 생겨서 잘 날을 수 있단다.”

10여분 동안 실망과 좌절감을 떨쳐 주려고 애써 설명했지만, 생소하기도 했던 아들의 표정은 건성으로만 대답할 뿐이었다.

대회날짜는 빠르게 다가왔다. 세월만큼이나 마음도 초조해 지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글라이드로 바뀌어서 제작했다. 처음보다 요령이 생겨 쉬웠지만 만드는데 여간 힘들었다. 균형과 날개 뒤

틀림 방지에 신경을 쓰며 열심히 제작한 끝에 또 한대의 모형비행기가 완성되었다. 바람부는 방향과 날리는 요령의 미숙으로 여지없이 비행기는 곤두박질 치드니 박살나 버렸다. 포기해 버릴까 말까 머리가 혼잡해지기 시작했다. 이미 신청 접수까지 되었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학교 선생님께 무어라 말할까, 또한 아들에게 돌아올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을 어떻게 감당하지?!

마지막으로 혼신을 다하여 모형비행기를 밤새도록 만들었다. 피곤에 지쳐 잠은 쏟아지지만, 아들의 변함없는 꿈나무를 심어주기 위해서도 포기할 수 없었다. 완성된 비행기를 쳐다보니 잘 날을 것같은 예감이 들어 피곤이 가시었다.

드디어 글라이더 부문은 주기장으로 옮겼다. 바람이 조금 불지만 괜찮았다. 차례가 되었다. 긴장감이 감돌며 우승의 문턱을 향하여 날렸다. 아니나 다를까 2초도 안되어 곤두박질 쳤다. 연결고리 부문에서 잘못되어 다시 하기로 했다. 아들에게 띄우는 요령을 설명한 후 차분하게 최선을 다하지는 말과 함께 하나, 둘, 셋, 셋과 동시에 띄었다. 점점 하늘 높이 솟았다. 연결고리가 떨어지고 비행기는 높이 떴다. 계속하여 비행기는 바람을 타고 비행하였다.

“됐다. 됐다. 요한아, 이제는 입상권에 들어.”

마음에 울려 퍼지는 짜릿한 쾌감이 온몸을 감싸 왔다. 26초 81이라는 좋은 성적이 나왔다. 잠시 다른 아이들의 띄우는 모습을 보았지만 거의 몇초안에 떨어지고 있었다.

“입상이다.” 쾌재를 부르며 퇴근했다.

폐회식을 끝내고 돌아온 아들의 두 손에는 상장과 상품이 들려 있어야 했는데 아무 것도 없었다. 이럴 수가? 분명히 입상했을 텐데 …….

“요한아, 상 못받니?”

“예, …….”

힘없이 대답하는 아들의 모습은 실망 그 자체였다. 나 또한 맥이 빠져 하늘만 쳐다보며 한숨만 쉬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지는 법인가? 내 자신이 아들에 대한 과욕을 부렸음에 후회했다. 다음에 잘 해보자는 위로의 말만 할뿐 더 이상의 말이 필요없었다.

하루가 지난 다음날 월요일 아침, 사천 초등학교 조례시간이었다.

교장선생님께서 단상에 서서 모형항공기 대회 수상자 명단을 불렀다.

“글라이더 부문 동상에 3학년 4반 최요한 어린이, 앞으로.”

아이들의 박수를 받으며 시상대에 선 아들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다. 사천 초등학교 출전 선수 중 성적이 제일 좋았다.

부대장 상과 동메달, 기념품 시계를 어루만지며 소리없는 기쁨의 눈물이 앞을 가리웠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던가. 심혈을 기울였던 작은 소망이 성취되었다는게 믿어지지 않았다. 하늘을 주름잡는 독수리가 되고 싶다는 꿈나무 메추리의 작은 소망이 실현되었을 때, 아버지인 내가 왜 가슴조였는지 자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해가 갈 것이다. 이번 대회로 인하여 꿈나무에게 희망을 안겨준 좋은 계기가 되었음을 감사드린다.

초록빛 바다처럼, 맑고 푸른 하늘처럼 순수하고 거짓없는 어린 꿈나무에게 희망과 용기를 잃지않게 하리라. “최선을 다한 자만 최후에 웃는다”는 말을 상기하며, 우렁찬 폭음과 함께 창공을 향하여 치솟는 보라매의 은빛날개를 보면서, 꿈나무 메추리의 어깨를 감싸 안은 손에 미래 공군의 주역이 되어 달라는 작은 소망을 기원해 본다.

군 인 일 기

- 행군

이 재 천

하사/제8988부대 1포대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늘 그렇게
말이 없었다.

입안 가득 몰려오는 피로와
군화속에서
피어오르는 열기가
너와 나의 행로를 재촉한다.

목적지가 이정표처럼
우리를 반기고,
길가의 이름모를 잡초가
우리의 피끓는 조국애를 복돋운다.

한걸음 한걸음
발자욱으로 생기가 도는,
나무며 풀이며
진주빛 하늘이 우리를 반긴다.

그래 우리 젊은이여.
건자!
뛰자!
우리의 발길을 기다리는
내일을 향해.

우리나라 탑(塔)에 대한 소고(小考)

유 동 훈

상병/교재창 인쇄지원계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민족주의 의식이 고조되면서, 우리의 고적과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와 같은 책이 공전의 베스트셀러가 된 사실과, 이와 비슷한 여러 아류작들이 시중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등이 이에 대한 하나의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런데 민족문화에 대한 이러한 관심과 열기에 비해, 정작 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바른 안목을 갖추기란 그리 쉬운 일 같지는 않다. 국민 모두가 역사학자나 예술전문가도 아닐뿐만 아니라, 민족유산이나 문화재를 안내하기 위한 표지판조차도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지식이 자세한 설명없이 나열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족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출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아는 만큼 느끼며, 느낀 만큼 보인다”라

는 유홍준 교수의 말에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말하자면 민족문화에 대한 애정만 있고 기본지식이 없다면 이는 ‘공허한 열정’에 불과하고, 전문지식만 갖춘 채 우리 것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맹목적인 지식의 나열’에 불과하므로 애정과 지식, 이 두 가지를 함께 갖추는 것이 민족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자세 아래한국의 불교문화, 그 중에서도 불교예술의 근간이 되는 탑(塔)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민족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자 한다.

1. 탑의 기원과 동아시아 전래

탑은 원래 인도 말로 ‘유골을 봉안하여 흠이나 돌로 높이 쌓아 올린 무덤’이라는 뜻이었다. 탑의 기원은 다음과 같다.

부처가 죽자 그 시신은 화장하였고 유골은 여덟 부족에게 분배되었다. 이들 부족은 이를 가지

고 탑을 세웠으며, 유골을 분배받지 못한 부족은 유골을 담았던 병을 가지고 병탑(甁塔)을 세우거나 재를 가지고 회탑(灰塔)을 세웠다. 이것이 불교 최초의 탑이다.

인도 초기에는 흙이나 벽돌을 이용하여 탑을 만들었는데 현재 대부분은 파괴되었고, 원형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B.C. 3세기~B.C. 1세기에 건립된 중인도의 산치대탑(Sanchi 大塔)이다. 이 탑은 아래그림과 같이 밑에서부터 기대(基臺)·복발(覆鉢)·평두(平頭)·산개(傘蓋)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복발은 흙을 둥글게 쌓은 모양이 마치 발(鉢-술)을 엮어놓은 모양과 비슷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인도에서는 고귀한 신분을 상징하기 위해 산개를 널리 사용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불교가 중국으로 전파된 후, 중국에서는 인도의 탑과는 전혀 다른 모양의 독창적인 탑이 만들어졌다. 즉 중국탑은 제일 윗부분(傘蓋)에서만 인도탑의 흔적이 보이고, 그 아래쪽은 그들 나름대로의 고층 누각 모양의 탑을 만들어서 중국적인 변신을 이루었던 것이다. 그리고 탑의 층수는 3·5·7로 하였고, 탑의 한층 한층이 취하고 있는 평면의 모습은 대부분 4각형을 이루거나, 여기에 부분적인 변형을 가미하여 6각형 또는 8각형의 형태를 취하게 하였다. 이는 탑이 무덤의 형식에서 벗어나 조형예술의 일환으로 발전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고 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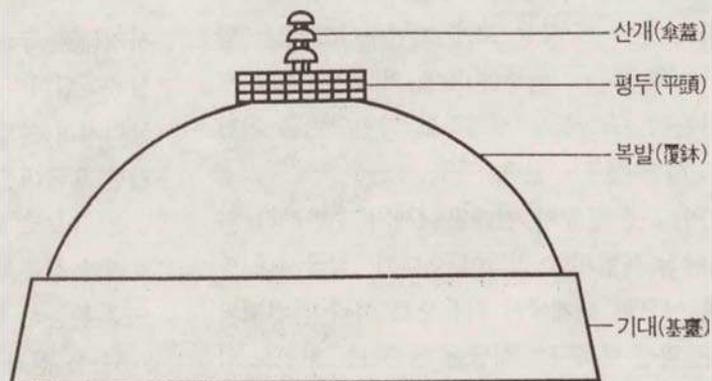
다.

일반적으로 탑은 나무로 만든 목탑(木塔), 벽돌로 만든 전탑(塼塔), 돌로 만든 석탑(石塔)등으로 분류하는데 중국은 주로 전탑을, 한반도에서는 석탑을, 일본에서는 목탑을 건립하였다. 이는 한·중·일 3국이 각각 자국의 자연조건과 풍토에 맞는 재료를 사용하여 탑을 만들었음을 추측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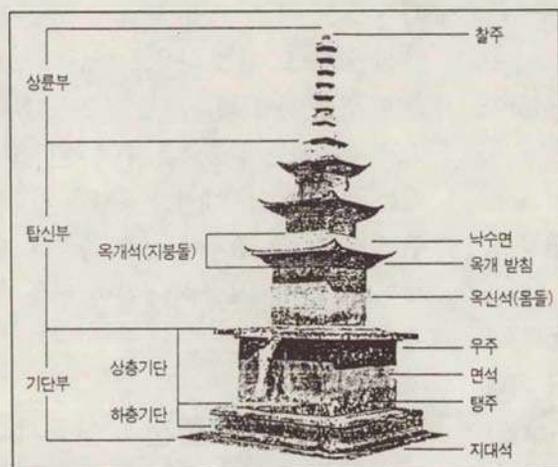
2. 탑의 수용과 발전 : 삼국시대

중국에서는 불교전래 초기에 목탑이 유행했는데, 이 양식은 한반도에도 그대로 전래되어 불교전래 초기 고구려·백제·신라에서도 높은 누각 모양의 목탑을 많이 건립하였다. 현재 알려진 목탑의 유적으로는 평양 부근의 청암리사지, 부여의 군수사지, 익산의 미륵사지, 경주의 황룡사지와 사천왕사지가 있다. 목탑은 재질이 나무여서 풍우(風雨)나 벼락과 같은 자연재해를 입기 쉬웠기 때문에, 현재 거의 남아 있지 않고 그 탑의 터만 남아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전탑(塼塔)으로는 안동



▲ 산치대탑 부분 명칭



▲석탑의 구조

신세동 칠층전탑, 안동 동부동 오층전탑, 송림사 오층전탑, 여주 신륵사 다층전탑 등이 있다. 그런데 중국의 전탑은 전체가 벽돌로 축조되어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전탑은 밀받침인 기단부가 화강암으로 되어 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이는 벽돌의 재료가 되는 진흙을 한반도에서는 구하기 어렵고 화강암은 비교적 얻기 쉬웠기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서, 전탑형식에 있어서 일종의 '한국적인 변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석탑의 경우, 그 재료는 화강암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안산암이나 점판암을 사용하기도 한다. 구조는 크게 기단부(基壇部)·탑신부(塔身部)·상륜부(相輪部)의 세부분으로 구성되는데, 기단부를 생략하고 자연암반을 기단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된 4세기 후반부터 약 200년간 목탑이 건립되어 오다가, 삼국시대 말기에 이르러 백제에서 처음으로 석탑이 건립되었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현존하는 한반도 최초의 석탑인데, 이것은 돌로 지었지만 옥개석(지붕돌)을 기와집의 지붕처럼 처마선을 살짝

들어올린 것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목탑을 모방한 것이다. 이를 발전시켜 건축의 표현을 간소화시키면서 석탑의 양식, 즉 기단부와 각 층의 몸돌과 지붕돌(탑신부), 그리고 상륜부라는 구조의 틀을 보여 주는 것은 부여 정립사지 오층석탑이다.

한편 신라의 석탑은 전탑을 모방하였는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은 634년에 만들어진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으로, 이 탑은 전

탑과 유사하나 그 재료는 흑갈색의 안산암이다. 또 의성 탑리 오층석탑도 돌로써 전탑 양식을 모방한 것으로, 기단이 잘 정비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보아 분황사탑보다 규격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3. 한국탑 형식의 완성과 변형 : 통일신라시대

백제의 석탑과 신라의 전탑 양식이 삼국 통일을 계기로 집약·종합되어 석탑의 가장 전형적인 양식의 표본을 보이고 있는 것이, 경주 감은사지(感恩寺址) 삼층석탑과 고선사지(高仙寺址) 삼층석탑이다. 특히 감은사는 문무왕이 왜적을 물리치려는 염원으로 동해안 대왕암 근처에 창건한 호국대찰로서, 이 절터에 서로 같은 형식과 같은 규모로 동서로 나란히 서있는 쌍탑은 신라 최대의 삼층석탑이다. 이 탑은 기단을 상하 2단으로 튼튼히 쌓고 1층은 넓고 긴 몸돌을 올리고 2·3층을 점점 좁고 짧게하여, 상륜부 끝으로 이르는 상승감과 안정감을 동시에 표현하였는데 이것은 이후 한반도 삼층석탑의 전형 양식이 되

었다.

이 두 탑이 세워진 지 80년후에 불국사 석가탑이 등장하게 된다. 이 탑은 완벽한 균형과 아름다움을 창출하여 삼층석탑의 형식을 완성하게 되었다.

이후 석탑의 규모와 구조는 점점 작아지고 생략되었으며, 모양도 기본양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전혀 다른 형태의 불국사 다보탑과 화엄사 사자삼층석탑, 다른 형식의 기단부를 형성하고 있는 철원의 도피안사 삼층석탑과 석굴암 삼층석탑, 여러 가지 조각이 새겨져 있는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과 산청 범학리 삼층석탑, 양양 선림원지 삼층석탑 등이 그것이다.

4. 고려와 조선시대 탑의 특징

신라의 석탑이 경주를 중심으로 한 경상도 지방에 집중되어 있는데 반해, 고려의 석탑은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백제의 옛땅에는 정림사지 석탑의 양식을 계승한 석탑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과 장하리 삼층석탑 등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 옛 고구려의 땅에는 6각 또는 8각으로 된 다층석탑이 많이 건립되었고, 개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삼국의 양식을 두루 포용한 석탑이 건립되었다.

그런데 원(元)의 지배하에서는 석등·불상·전각 등과 함께 석탑의 양식이 크게 변모하였다. 원의 양식에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탑으로는 경천사 십층석탑을 들 수 있다. 1348년에 건립된 이 탑은 원의 기술자(工匠)가 직접 만든 것으로 상륜부는 라마교 양식을 따르고 있다.

이 탑이 건립된 후, 고려시대의 탑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탑까지도 원의 양식을 따른 것이 몇

개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원각사지 십층석탑이다. 이 석탑의 전체 형태나 세부구조, 표면조각 등은 경천사 석탑을 그대로 모방하였고 사용된 석재도 같은 대리석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인도에서 '유골을 봉안하여 흙이나 돌로 높이 쌓아 올린 무덤'을 의미하였던 탑은, 불교가 중국에 수용되면서 그 형태가 고층 누각의 모습을 지니게 되었으며, 이것이 한반도에 전래되면서는 중국에서 발전한 목탑양식으로부터 탈피하여 주변에서 널리 구하기 쉬운 화강암을 이용한 석탑양식의 한국적인 전형을 완성하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러한 탑의 변천·발전사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탑 속에 면면히 투영되어 있는 선대인(先代人)들의 숨결이다. 오늘날과 같이 고도의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던 시대에 선대인들은, 잘 다듬기 어려운 화강암을 어떻게 이와 같은 '조형예술의 꽃'으로까지 승화시킬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당대에 아무리 강력한 국가의 사업의지가 있었다라도, 탑을 다듬어 올리는 이름모를 선대인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불심(佛心)이 없었으면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한 애정과 긍지는 화려한 대궐이나 사찰 등과 같은 유형의 무엇에서만 획득될 수 있는 것만은 아니고, 아무리 작고 보잘 것 없는 조형물이라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선대인(先代人)의 정신자세와 숨결을 느낄 때 더욱 크게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문화유적이 한갓 '옛것'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을 사는 현대인게게도 큰 의미를 주는 '무형의 유산'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공**

공 권

1996년 여름호(통권 제235호)

글을 기다립니다.

구 분	내 용	분 량
보라매칼럼	의식적 차원에서 권장할 사항	20매 내외
시사, 안보	— 군 전략 및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것 — 군과 관련된 군내의 시사문제	40매 이내
군사지식	공군 및 군대 전반에 관련된 지식 및 정보	40매 이내
공군논단	시사안보를 제외한 연구분석 발표	40매 이내
마음의 샘	지혜로운 삶을 위한 수상록	20매 내외
취미생활	타인에게 권할 만한 취미 소개	30~40 내외
장병문예	단편소설, 시 등 문학작품	35매 내외
병영이야기	병영생활을 소재로 한 에피소드	7~8매
기 타	— 공군정책 제안 — 부대동정 사진 — 공군의 일원으로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	

알림

본 도서는
공군장병들의
교양함양과 건전한
읽을거리 제공을 위하여
발간된 것으로
게재된 내용은 공군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기 간 : 연중

▶보낼곳 : — 각 부대 정훈참모

— (320-919) 공군지 편집실

충남 논산시 두마면 부남리 사서함 310

* 반명함판 사진 1매, 연락처 명기

▶전 화 : (효)6236 (02) 506-6232

(042) 552-6232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 지급(원고 송부시 계좌번호 기입 바람)

■발행처 :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발행일 : 1996년 6월 14일

■인쇄처 : 인쇄/출판 금성산업

T. (042)254-7434, F. 256-7434

공군 조종장학생 모집



모·집·요·강

1. 지원자격
 - 연령 : 만16세에서 23세까지
 - 학력 : 4년제 정규대학 1학년 재학생
2. 모집일정 : 연 2회(3월, 9월) 모집
3. 접수장소 : 각 시·도 지방병무청 민원실(모병관실)
4. 문 의 처 : 공군본부 인사참모부
 - 전화 : 효성대 1151~2
 - (02)506-1151~2, (042)552-1151~2

